

신학적 강해의 대가 데이비스 박사의
전선지서 주해 시리즈 2



여호수아 주해

어긋남없이 다 이루어진 말씀



저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
역자 이창배

키 드 바 로 주 경 연 구 소

Joshua

No Falling Words

By

Dale Ralph Davis

Translated by

Chang Bae Lee

Copyright © Dale Ralph Davis

ISBN 978-1-84550-137-2

10 9 8 7 6 5 4 3 2 1

This edition published in 2000,
reprinted in 2003, 2006, 2008, 2010 & 2012

Geanies House, Fearn, Ross-shire,

IV20 1TW, Scotland, UK.

www.christianfocus.com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Copyright © Chang Bae Lee

저자 소개

데일 랄프 데이비스(Dale Ralph Davis)는 그의 아내와 함께 테네시 시골에 살고 있다. 그전에 그는 미시시피 해티스버그에 있는 우드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이었다. 그 이전에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을 가르쳤다. 그는 성경 핵심 주해(Focus on the Bible Commentary) 시리즈 가운데 **사사기**(ISBN 978-1-84550-138-9), **사무엘상**(ISBN 978-1-85792-516-6), **사무엘하**(ISBN 978-1-84550-270-6), **열왕기상**(ISBN 978-1-84550-251-5), **열왕기하**(ISBN 978-1-84550096-2)에 대한 주해도 썼다.

역자 소개

이창배 목사는 국제대학교 영어영문과(B.A.),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M.E.), 총회신학연구원(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M.),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M.A., Ph.D.)를 졸업했다. 역자는 한국에서 총회신학연구원, 개혁신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에서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Evangelia University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다. 역자는 엘리스 알 브로츠만의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와 데일 랄프 데이비스의 **구약 내러티브, 어떻게 분석하고 강해할 것인가?**를 번역하였고, **룻기 원문주석, 십계명 주해, 이사야 53 장 주해, 히브리어 문법, 히브리어 교본, 아람어 문법**을 썼다.

목차 (Contents)

약자	vi
저자 서문	vii
역자 서문	ix
서론 (Introduction)	1
제 1 부: 땅의 입성 (수 1-4 장: Entering the Land)	
1. 하나님의 약속과 네 사람의 장례 (수 1:1-18; 24:29-33 The Promise of God and Four Funerals)	4
2. 그늘진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 (수 2 장 How to Listen to a Shady Lady Story)	12
3. 넘쳐 흐르는 강 건너기 (수 3-4 장 Going Across the Flow)	18
제 2 부: 땅의 정복 (수 5-12 장: Taking the Land)	
4. 성례의 거행 (수 5:1-12 Celebrating the Sacraments)	31
5. 여리고 전투는 여호수아가 싸운 것이 아니다 (수 5:13-6:27 Joshua Did <i>Not</i> Fight the Battle of Jericho) ..	37
6.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교회 (수 7 장 The Church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	43
7. 전투와 언약 (수 8 장 Combat and Covenant)	52
8. 상식으로 인한 걱정거리 (수 9 장 The Trouble with Common Sense) ...	61
9. 가나안의 남부 전투 (수 10 장 In Canaan's Dixie)	67
10. 병거도 말도 없이 이긴 북부 전투 (수 11:1-15 Not by Chariots, Not by Horses)	76
11. 전쟁의 요약 (수 11:16-23 War Wrap-up)	83
12.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시도다 (수 12 장 Great Is Thy Faithfulness)	87
제 3 부: 땅의 분배 (수 13-21 장: Possessing the Land)	
13. 우리의 기업을 받는 것 (수 13 장 Receiving Our Inheritance)	92
14. 기업 차지의 본보기 (수 14 장 For Example)	97
15. 약속대로 받은 기업의 지도 (수 15 장 Promise Geography)	106
16. 기업 차지의 비극적 경향 (수 16-17 장 Tragic Trends)	111
17. 많은 기업들 (수 18-19 장 Lots of Lots)	121
18. 마지막 분배: 레위인의 기업들 (수 20-21 장 Final Provisions)	130

제 4 부: 땅의 보존 (수 22-24: Retaining the Land)

19 제단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수 22 장 What Can an Altar Alter?)	144
20. 불안한 장래 (수 23 장 Staying on Edge)	155
21. 아브라함의 장소에서의 언약 갱신 (수 24:1-28 Covenant Renewal at Abraham's Place)	165

약자 (Abbreviations)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i>IBD</i>	<i>Illustrated Bible Dictionary</i>
<i>ISBE</i>	<i>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i>
<i>IDB</i>	<i>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i>
<i>IDB/S</i>	<i>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Supplementary Volume</i>
JB	Jerusalem Bible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	New English Bible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JB	New Jerusalem Bible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i>TDOT</i>	<i>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i>
TEV	Today's English Version
<i>TWOT</i>	<i>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i>
<i>ZPEB</i>	<i>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i>

저자 서문

나는 대학에서 스피치 101 강좌를 통해 배운 한 규칙을 기억한다. 그것은 사과 혹은 변명으로 연설을 시작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연설이 아니고 책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약간은 부인하면서 그 규칙을 어길 것이다.

이 주석은 분명히 여호수아서에 대한 비평적, 언어적, 문법적, 고고학적 보고가 아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내가 그런 종류의 주석을 쓸 수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확실히 당신은 이 책에서 적어도 문법적인 세부 사항들이나 비평적인 논의들의 잡동사니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부득히 다른 곳에 있다. 나는 (우가릿어 혹은 아카드어와 같은) 많은 근동 언어들을 알지 못하므로 언어학을 강조할 수 없다. 나는 훈련받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니므로 배경을 강조하지 못한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본문 이외에 모든 것을 흔히 고려해 보려는 사변적인 비평적 입장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이므로 알맹이없는 그런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목적은 목회자가 히브리어 본문과 씨름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주시고자 했던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성경 연구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모범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의 확신은 목회자가 기꺼이 그의 눈 앞에 히브리어 성경을 두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청중을 그의 마음에 두고, 해석학의 씨름(다시 말하면, 이 저자가 그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충실하게 그 의도를 붙잡고 오늘의 하나님의 양떼에게 유익하게 그 본문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씨름)을 그의 머리에 둔다면, 그는 하나님의 굶주린 백성 앞에 차려놓을 만나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나는 주석들이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패턴에 따라 저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신학교 학생들이 구약이 가르쳐지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이 그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이 구약에 **열중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 성령님은 우리의 교실들에서 일하시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이 일단 구약의 **불**을 느낀다면, 글썄, 그렇다면, 구약은 그들에게 새로운 책이 될 것이다! 확실히 모든 전문적인(언어적, 고고학적, 비평적) 문제들이 적절하게 논의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적용의 수준에까지 굽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강해적 취급에서 그 부분들을 함께 모아야 한다.

최근에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감과 불오성과 무오성(inspiration, infallibility and inerrancy)을 소중하게 여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모두 영어 소문자 아이(i)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성(instructability)을 밀고 나가야 한다. 바울

사도는 구약이 “유익하다”(딤후 3:16)라고 쓸 때 틀림없이 매우 진지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가 구약을 되찾으려면 우리의 구약에 대한 강해가 구약이 곡해나 왜곡이 없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바르게 하는 일을 위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는 나의 책 **어긋남없이 다 이루어진 말씀**(*No Falling Words*)이 그러한 표준들에 근접에 있다고 믿는다. 이 제목은 여호수아서의 종이 닳인 수 21:43-45(정확하게 말하면, 21:45 [23:14 도 보라])에서 나온 것이다. 창세기에 기록된 옛 약속들 중에 어긋나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었다. **어긋남없이 다 이루어진**(no falling) 말씀들이란 **실패하지 않는**(no failing) 말씀들이란 뜻이다. 나는 독자들이 똑같은 것을 발견하리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긋나서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없고 다만 우리도 역시 그 위에 설 수 있는 **서 있는**(standing) 말씀들만이 들어 있다.

두 가지 현실적인 일에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한다.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사용할 때 성경책을 갖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나는 많은 영어 번역들을 이용했지만 자주 내 자신이 직접 번역하기도 했다.

나는 학생들, 동료들, 그리고 교구 신자들의 자극과 격려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원래 내가 이 책을 끝마친 것은 1987 년 종교 개혁 주일이다. 그것은 목회사역의 기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가운데 쓰여진 ‘목사관’에서 펴낸 작품이다. 나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형식으로 그것을 출판해 준 것에 대하여 크리스찬 포커스사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 나는 이 책을 여호와의 선물(잠 19:14)인 바바라에게 바친다. 그녀처럼 아주 충분하게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바바라가 나로 이 책을 그녀에게 바치기를 원했다!

역자 서문

데이비스 박사의 여호수아 강해를 한국어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번역하면서 여호수아서에 대한 많은 통찰을 배웠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 저자가 역자에게 준 많은 통찰 가운데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저자는 여호수아서의 처음과 끝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언급에 주목하며 책의 메시지를 찾았다. 여호수아서는 첫 장에서 위대한 종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 임재, 말씀, 백성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음을 말하고,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르아살의 장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현실적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 아래 결국 잘 되게 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다.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셨지만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저자는 땅의 입성(1-4 장)과 정복(5-12 장)과 분배(13-21 장)와 보유(22-24 장)로 나눌 수 있는 여호수아서의 신학적 핵심이 21:43-45 인 것을 지적한다. (이스라엘이 사는 온 땅을 말하는) 21:43 은 13-21 장을 적절하게 요약하고, (이스라엘의 적들의 패배를 말하는) 21:44 은 1-12 장을 요약하고, 21:45 은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러티브를 둘러싸고 있다. 수 21:43-45 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우리를 위한 약속이 들어 있다. 롬 11:33-36 에서 하나님의 크고 신비하고 집요하신 자비를 보며 바울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신지요!”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저자는 21:43-45 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어찌 그리 견고하고 견고한지요!”라고 찬양하고 있다. 신학은 송영을 포함할 때 항상 최고조에 달하고, 신학은 동시에 경배함이 없이 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얻은 안식은 이스라엘의 적들의 패배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적대가 제거되지 않으면 안식이나 평강은 없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적들을 멸망시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살후 1:6-9)와 우리의 안식에 대한 예표 역할을 한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마귀와 그의 종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더 이상 밤에 공포도 없고 낮에 날으는 화살도 없을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자기 포도 나무나 무화과 나무 아래 아주 안전하게 앉을 것이다(미 4:4).

강해 단락의 제목들과 대지들과 소지들의 영어 제목을 괄호에 넣어 제시한 것은 저자가 보여준 강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설교자들에게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분석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이 여호수아서의 의도된 메시지를 바로 파악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2017 년 부활절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서론 (Introduction)

여기에 여호수아서에 대한 완전한 서론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서의 시대와 배경에 대한 제안은 나중에 주어질 것이다. (여호수아 22장에 대한 서론적 논평들과 그 각주들을 보라.) 비평적인 결론들은 주의깊게 본문 자체에 접한 후에만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수아서가 선지자들의 글에 속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서를 역사서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우리 영어 성경들에서 역사서란 여호수아서부터 역대하까지의 책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용어이다. 유대교 전통은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까지를 전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이것이 진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¹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어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¹ 원래 맛소라 본문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각각 한 권의 책으로 상하의 구분이 없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구분된 것은 칠십인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대교 전통에서 전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로 이루어진 네 권의 책을 말하고, 후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트레-아싸르]로 이루어진 네 권의 책을 말한다. [트레-아싸르]는 숫자 12를 나타내며 소선지서 12권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부르는 이름인 것에 유의하라.

[역자주] 유대교 전통의 히브리 성경의 3 분법 (총 24 권)

1. 토라(תּוֹרָה 율법서): 5 권

브레시트(=창), 시모트(=출), 바이크라(=레), 브미드바르(=민), 드바림(=신)

2. 느비임(נְבִיאִים 선지서): 8 권

1) 전선지서(נְבִיאִים רִאשונים 느비임 리쇼님)

여호수아(=수), 쇼프팀(=삿), 시무엘(=삼), 므라힘(=왕),

2) 후선지서(נְבִיאִים אַחֲרונים 느비임 아하로님)

여사야후(=사), 이르므야후(=렘), 여헤즈겔(=겔), 트레-아싸르(=12 소선지서)

3. 크투빔(כְּתוּבִים 성문서): 11 권

1) 시가서(שִׁפְּטֵי שִׁפְּטֵי 세페르 에메트)

트힐림(=시), 이요브(=욥), 미실레(=잠)

2) 두루마리서(מְגִלּוֹת 므길로트)

루트(=룻), 시르 하시림(=아), 코헬레트(=전), 에하(=애), 에스테르(=에)

3) 역사서

다니엘(=단), 에즈라-느헬야(=스-느), 디브레 하야밈(=대)

역사서로 모든 선지서로 모든 상관없지 않은가? 이 두 입장 사이에 무슨 중요한 차이라도 있단 말인가? 이것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나는 (구약에 막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신학생들이 “구약이 모두 **역사**처럼 보였기 때문에 구약을 그렇게 많이 읽거나 공부한 적이 없었다.”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곤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구약을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단순한 기록으로, 그것도 무미건조한 기록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그들 중의 일부는 학교에서 역사를 좋아한 적이 없었고 성경이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된 줄 알고 비통해 하였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역사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예언으로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전선지서와 역사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설교와 세계 역사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같다. 선지서로서 여호수아서는 단지 정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단지 계몽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적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설교문이다. 우리는 “구약에서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에 관한 선포(a declaration from God about God)”라는² 것을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여기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전**선지서** 중의 하나로 여기는 일을 계속 잘 할 것이다.

당신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연구할 때 “저자가 이 이야기를 나에게 말할 때 그는 무엇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던지려고 노력하라. 저자는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단지 당신에게 (일부는 정보를 주는 것도 포함하지만) 정보만을 주기 위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포할 메시지, 곧 당신에게 권할 하나님을 갖고 있다.³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자.

² J. A. Motyer, 'Old Testament History',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ed. Frank E. Gaebelein,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79), 1:154.

³ 나는 역사적 본문들이 “단지 과거의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의 여러 단계들에서 교회에 적실한 방식으로 이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시드니 그레이다누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역사적 본문의 성격이 선포로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Toronto: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70], 212). 앞서 말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성경 역사의 중요성이나 신빙성을 논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다만 그 역사의 참된 성격을 분명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제 1 부

땅의 입성 (Entering the Land)

(여호수아 1-4 장)

1. 하나님의 약속과 네 사람의 장례 (수 1:1-18; 24:29-33 The Promise of God and Four Funerals)

몇달 전에 나는 에드워드 에글스톤의 **시골뜨기 학생**(*The Hoosier Schoolboy*)을 나의 한 아들에게 읽어주고 있었다. 상당기간 동안 우리가 그 책을 우리의 소장품속에 갖고 있었지만 한번도 읽어 본 적은 없었다. 마침내 셋과 나는 그것을 읽었다. 그가 꽤 좋아하더니 실제로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사실 그는 '그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자기 혼자 스스로 마지막 장을 읽었다. 이것은 성경의 어느 책에 있어서조차도 과히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자가 그의 서론과 결론에 그의 최고의 관심사들의 일부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볼 관점을 얻기 위해 책의 맨 처음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볼 것을 제안한다.

여호수아서의 경우 이것은 우리가 네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모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머지 장례식은 우리의 논의에서 나중에 하도록 미루어 두자.

I. 하나님의 약속과 첫 번째 장례 (수1:1-18 The Promise of God and the First Funeral)

여호수아 1 장의 주제들에 대한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1 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장은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이고 둘 모두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모세의 죽음, 1a

A 여호와와 여호수아에 대한 **지시**, 1b-9

A 행동에 대한 여호와와 **명령**, 1b-4

- "건너라..."
- "내가 줄 땅..."

b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격려**, 5-9

-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있다" (이 부분의 시작과 끝)
- "강하고 담대하라" (이 부분의 중앙에 3번)

A'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시**, 10-18

a' 행동 준비에 대한 여호수아의 **명령**, 10-15

백성에게 (관리들을 통하여), 10-11

- "너희가 건너 갈 것이다..."
- "여호와께서 ... 주실 땅"

동쪽 지파들에게, 12-15

- “너희는 건너야 한다...”
- “여호와께서... 주실 땅”

b'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격려**, 16-18

-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길”
-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개요로부터 적어도 두 가지 강조점이 드러난다. 그 하나는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취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격려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두 주요 부분에서 격려는 모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여호수아는 격려가 매우 필요했다. 이 주제는 3-4 장까지 계속된다(3:7; 4:14). 흥미롭게도 1 장은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내러티브가 아니고 거의 전부 직접 화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그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사용한다. 이제 더 세부적인 강해로 나가보자.

i. 여호와와 약속의 생명력 (1:1-4 The Vitality of Yahweh's Promise)

여호수아 1 장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첫 번째 주제는 여호와와 약속의 생명력이다. 약속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실 땅과 관계가 있다(2-4, 6, 11, 15 절). 그것도 대단한 땅과 관계 있다! 창 15:18, 신 1:7; 11:24 에서처럼 동쪽의 경계는 유프라테스 강이다. 그것을 믿든 안 믿든, 당신의 지도를 꺼내 볼 필요가 있다.¹ 그러나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것이다(창 12:6-7; 13:14-15; 15:7, 18-21; 17:8; 24; 26:3-4; 28:13-14; 35:12; 48:3-4; 50:24). 그러므로 여호수아 1 장의 신학적 뿌리들은 창세기 12 장과 그 이하의 장들의 땅 속으로 깊이 박혀 있고, 그 옛 약속이 이제 곧 성취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려는 **배경** 곧 “모세가 죽은 후(1절)”라는 **상황**은 특별히 중요하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2절).”고 말씀하셨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모세의 위대함을 밝히고 있는 오경의 전통을 기억해야 한다. 출애굽기 32-34장에서 이스라엘은 언약적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었다. 모세만이 여호와와 언약적 교제 가운데

¹ 수 1:4 에 설명된 약속의 땅의 경계들에 관하여 Yohanan Aharoni and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rev. ed. (New York: Macmillan, 1977), 41; 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 and en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67-77; Gordon J. Wenham, *Number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1), 231-33 등을 보라. 이스라엘은 그 역사 가운데 수 1:4 에 묘사된 땅의 범위를 차지해 본 적이 없다.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인이었다. 이것은 출 33:7-11이 문맥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모세는 그들의 운명을 자신의 것과 결부시켰다(33:16). 일반 선지자들과 달리, 모세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여호와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민 12:1-8). 사실상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나오는 세 절 곧) 신 34:10-12은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선지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셨을 때까지 어느 선지자도 모세만큼 위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다.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낙담, 경악, 당황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당신이 모세의 죽음이 있을 것을 예기하고, 그것에 대해 전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신 31장), 막상 그 하나님의 종(*the servant of God*)이 죽고 당신과 당신이 기업으로 받을 땅 사이에 넘실거리는 강이 놓여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모세가 정말 죽었는가 하고 물을 수 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는 11번이나 언급된다!) 성경의 첫 다섯 책(=모세오경)이 당신을 준비시켜 왔던 모든 것이 장례식으로 끝날 때 당신은 무엇을 남기겠는가?

저자가 여호와와 약속의 지속성을 놓는 것은 바로 이 배경 곧 “비교할 자 없는 모세”의 죽음이란 배경 아래이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기다려야 한다”? 아니다. “너는 울어야 한다”? 아니다. 기다리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건너 ...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모세는 죽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살아 있다. 시대의 흘러감이 있지만 그 약속의 존속력이 있다. 여호와와 신실성은 인간들이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성취한 업적들에 좌우되지도 않고, 장례들이나 강들에 직면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²

ii. 여호와와 임재의 격려 (1:5, 9, 17 The Encouragement of Yahweh's Presence)

여호수아 1장이 강조하는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와 함께 하심이 주는 격려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5절).” 이 간단한 말이 전에 모세에게 한 번 주어졌던 것(출 3:12)을 유의하면 흥미롭다. 모세는 그 때 이스라엘과 바로 앞에 서도록 부름 받았을 때, 매우 과묵하고, 뒤로

² 이 문제에 대하여 존 칼빈은 아주 적절한 말을 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죽어 사라지든, 그들의 이력의 중간에서 실패하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아주 유익한 사고를 제시한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픈 변화가 임박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마치 그 머리가 잘려 나간 몸처럼 남아 있었다. 이렇게 분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참되심은 불멸의 진리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 은사들을 주셨던 인물들을 데려 가실 때 그들을 대신할 다른 인물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이 밝은 거울 안에서처럼 여호수아 자신을 통하여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에게 뛰어난 은사들을 주시기를 기뻐할지라도, 그의 강한 능력은 그들에게 매여 있지 않으며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에게 종으신 대로 적절한 후계자들을 찾으실 수 있고 아니 바로 돌들로부터라도 빛나는 행위들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으시다.”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trans. Henry Beveridge, in vol. 4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81], xix).

물러서고, 변명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나에게는 요구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비슷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확신을 주고 계신다. 사실 출 3:12에 비추어 3:14-15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진술의 함축적인 의미들과 메시지에 대한 신학적인(혹은 경건한) 속기(速記)로 의도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³ 이따라서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와와는 변하지 않으셨다. 그는 여전히 여호와 곧 그의 종과 그의 백성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호 1:9과 대조해 보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6, 7, 9절!)”고 권면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확신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이를 악물며 용기를 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해질 수 있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 걸쳐 이 확신이 얼마나 거듭거듭 다시 나오고 있는지를 유의하라(2:24; 3:7, 10; 4:14; 6:27; 10:14, 42; 13:6; 14:12; 21:44; 23:3, 10).

현대 기독교인 독자는 이것을 보며 여호수아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고 온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나 적용되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나와 같은 평범한 기독교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약속은 평범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인가? 히 13:5-6에서 이 약속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라.

5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왜냐하면(for) 그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hence) 우리는 자신있게 말한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여기에서 수 1:5의 약속이 기독교인 청중에게 적용되고 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의 약속은 또한 당신을 위한 것이고(히 13:5b의 “왜냐하면(for)”에 유의하라) 탐욕과 불만족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고 그 결과로(히 13:6의 ‘그러므로(hence)’에 유의하라) 걱정이 없는 삶의 자유를 크게 누리도록 해 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변화무쌍한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혹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듭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없다.

³ Morris S. Seale, *The Desert Bible* (New York: St. Martin's, 1974), 154-56; Moshe Greenberg, *Understanding Exodus* (New York: Behrman House, 1969), 81-82; and Karl-Heinz Bernhardt, 'Hayah', *TDOT*, 3:380-81 등을 보라.

iii. 여호와와 말씀의 구심성 (1:7-8 The Centrality of Yahweh's Word)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주제는 여호와와 말씀의 구심성이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가르침)대로 행하기를 힘쓰라.”고 명령받았다(7절). 그러한 순종으로 인도하는 공식을 보류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은 “너는 이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하며(옴조리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다(8절).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인도한다. 말씀 연구의 부족은 순종의 부족을 낳는다. 저자가 마지막 장들에서도 여호와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긴급성을 어떻게 강조하는지를 주목하라(22:5; 23:6; 참고, 8:30-35).

이 명령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인 혹은 모든 기독교인도 역시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그렇다. 우리가 수 1:7-8 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시 1:2 을 직면해야 한다. 이 구절은 모든 경건한 신자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곧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와 율법(가르침)에 있고 그는 밤낮으로 그분의 율법(가르침)을 옴조린다.” 피할 길이 없다! 사실, 그 율법(가르침)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어야 한다. 여호수아 1 장과 시편 1 편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신비적인 경험들이나 따뜻한 감정들이나 어느 복음주의적 출판사로부터 최근에 나온 책에서 주창되는 어떤 새로운 묘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나온다.

iv. 여호와와 백성의 통일성 (1:12-18 The Unity of Yahweh's People)

여호수아 1장이 마지막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묘사하는 주제는 여호와와 백성의 통일성이다. 12-18절에는 신학적인 골자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수기 32장에 비추어 읽힐 때 이 구절들은 새로운 중요성을 갖는다. 두 지파(혹은 두 지파 반)들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서 정복하여 얻은 땅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모세는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중도에서 멈추게 할 뻔스런 음모가 숨어있다고 의심했다. 화를 버럭내며 모세는 그들을 “죄인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몹시 꾸짖었다(민 32:14). 모세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민 32:6-7 개역개정)?”고 그들을 질책하였다(민 32:6-7). 그러면 또 하나의 가네스바네아 사건이 될 것이라고 모세는 말했다. 민수기 13-14장의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에 대한 반역의 위험에 비추어서 보는 때이다(민 32:16-27).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 묘사된 온 이스라엘의 통일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여기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자발적인 순종의 모델이고 격려의 도구이다. 그들이 무관심의 태도를 보이고 요단 서편을 정복해야 할 지파들을 무시하였다면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여 반역과 불신으로 나아가게 했을 것이다. 여호수아서 전체에 걸쳐 나오는 “온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3-4장; 7-8장; 10:29 이하; 22:12, 16; 23:2; 24:1).⁴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교리와 실천을 위한 암시 곧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통일성은 결코 한가한 사치품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서로에 대하여 정말 끈끈하고 달라 붙어 있음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중 어느 누구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돌보는 격려가 공적인 모임들 안에서 있어야 한다(히 10:25; 그리고 삼상 23:16 에 있는 아름다운 예를 보라).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성이 충성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혹은 우리들을 고아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때까지 충분할 것이다.

II. 하나님의 약속과 나머지 세 장례 (24:29-33 The Promise of God and the Last Three Funerals)

결론으로서 사망 광고를 전하고 있는 수 24:29-33은 그렇지 않으면 흥미로운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는 방식치고는 다소 무미건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저자가 이렇게 그의 책을 마감하는 이유를 물어보아야 한다. 저자는 단지 장례 세부 사항을 주거나, 중심 인물들에 대하여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을 제공하거나, 매년 참배하는 날에 일가 친척들이 무덤을 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는가? 나는 이 구절이 신학적인 사망 광고 기사이고 저자가 그의 관심사를 두드러지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책의 끝에 놓았다고 제안한다.

i. 여호와와의 약속의 진실성 (The Veracity of Yahweh's Promise)

첫째로, 저자는 여호와와의 약속의 진실성을 강조한다. 여호수아, 요셉의 뼈, 그리고 엘르아살이 장사되었다고 말하는 장소들(30, 32, 33절)을 관찰하라. 각각의 경우에 분명하게 정해진 장소가 언급되어 있지만, 중요한 요점은 그들이 각각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 안에** 장사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묘비들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⁴ 여호수아서 전체에 걸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통일성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점점 증가하는 분열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여호와와의 신실성에 대한 기념비들이다.

‘요셉의 뼈’에 대한 언급(32절)은 특히 흥미롭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요셉으로 마감한다.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묘사이다. 요셉은 애굽 위에 그리고 애굽 안에 있었지만, 확실히 애굽에 속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조차도 그의 눈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다른 땅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그 약속을 아주 좋아했으므로—그것은 그에게 대단한 열정을 갖게 했으므로—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의 뼈를 그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고 당부하였다(참고, 히 11:22). 그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였다(출 13:19). 그리고 이제(수 24:32) 그들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 엄청난 시간 곧 500년 내지 600년이 흘러갔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증언하듯이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무효로 하지 못했다.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이들은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다.

ii. 여호와와의 백성에 대한 시험 (The Test for Yahweh's People)

둘째로, 저자는 여호와와의 백성에 대한 시험을 암시한다. 31절 말씀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씀에는 충성에 대한 기록과 흔들림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둘 모두의 죽음에 대하여 듣는다. 모세오경이 아론과 모세를 짝지어 언급하듯이, 여호수아서는 빈번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짝지어 언급한다(14:1; 17:4; 19:51; 21:1). 이렇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죽음은 정복 세대가 완전히 지나갔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그리고 장로들이 죽었는데 과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31절에서 저자는 삿 2:10의 상황을 벌써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 대답이 부정적인 것을 두려워한다.⁵ (어쩌면 그것이 그가 이 책을 쓴 이유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자는 흔들리는 이스라엘이 더 늦기 전에 여호와와의 성실하심에 대한 보답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이 사라진 후에도 교회는 계속 성실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작은 시험이 아니다. 여기에 차 세대 종교에 대한 계속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한 때 의존했던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의 부드러운 압력이 없어도 우리는 계속 진심어리고 성실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⁵ 칼빈(*Joshua*, 282)이 말한 것처럼 “따라서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는 동안과 장로들이 더 나이들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한 것에 그들의 번덕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가 들어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들이 갑자기 여호와께서 베푸신 호의들에 대한 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일어날 타락과 불화를 암시하는 무언의 대조가 있기 때문이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을 수 있을까?

iii. 여호와와의 승리에 대한 필요 (The Need for Yahweh's Victory)

셋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여호와와의 승리에 대한 필요를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무덤들이 여호와와의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죽음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완전함과 그에 대한 비극이 있다. 왜 믿음과 삶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마감되어야 하는가?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난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은 여기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보는 죄의 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이 아닌가(시 90:9, 11-12)? “사망을 폐하신(딤후 1:10)” 분이 마지막 장들을 부활로 빛나게 하신 것(마 28장; 막 16장; 눅 24장; 요 20-21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일이다.

III.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당신은 당신의 끝이 가까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본 적이 있는가?
2.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의 임재, 그의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심”을 재확인시켜 주셨는가?
3.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심성은 당신의 삶에 변화를 주는가?
4. 어떻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온 이스라엘을 격려할 수 있었는가?
5.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당신으로 참고 견디게 하였는가?

2. 그늘진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 (수 2 장 How to Listen to a Shady Lady Story)

라합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여호수아 2 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정탐꾼, 1a

도착/관심사: 정탐꾼들의 보호, 2-7 [역자의 정정: 1b-7]

신앙의 고백, 8-14

도망/관심사: 라합과 일가친척의 보호, 15-21

여호수에게로 돌아온 두 정탐꾼, 22-24

1. 여호와와의 주권에 대한 고백 (2:8-14 The Confession of Yahweh's Sovereignty)

이러한 구조를 염두에 두며 여호수아 2 장의 주요 가르침을 숙고해 보자. 이 구조는 우리로 이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와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사람들은 이 구조를 샌드위치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은 샌드위치의 빵 조각과 같고, 두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은 상추 조각과 같고, 세 번째 곧 중앙 부분은 고기와 같다. 말할 필요조차 없이 고기가 샌드위치의 가장 중요한—그리고 가장 비싼—부분이다. 상추 조각은 추가한 부분이고 빵 조각은 마요네즈가 손에 묻는 것을 막아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그가 8-14 절을 그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당신은 이의를 제기하며 어떤 부분이 단지 중앙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저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다른 단서를 찾을 수는 없는가? 아니, 우리는 찾을 수 있다. 7 절의 끝에서 저자가 서스펜스를 조장하는 방식에 유의하라. 그는 독자로 “문들이 닫혔다면 그 정탐꾼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도시로부터 빠져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남겨둔다. 독자가 이 이야기에 정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분명 7 절 끝에서 독자가 느끼는 불안감이다. 그러나 15 절까지 이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것(다시 말하면 당신이 당신의 문학적 해결을 얻지 못하는 것)에 유의하라. 15 절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 이러한 긴장에 대한 질문과 대답 사이에 저자는 라합의 신앙고백(8-13 절)을 두고 있다. 이것은 저자의 문학 스타일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것은 마치 독자인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두 정탐꾼들이 어떻게 도망칠 것인지에 대하여 골머리를 앓지 말라.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기에 나로 그걸

인용하게 하라.” 이것이 저자가 라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당분간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이다.

부수적으로 이것은 저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저자는 4-6 절에 근거한 까다로운 윤리적인 질문들 곧 라합이 여리고 경찰관에게 거짓말한 것이 옳은지에 대한 끝없는 언쟁들과 토론들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람들이 라합의 거짓말이란 못에 그들의 바지가 걸려 찢어지며 그 문제에 대하여 끝없이 언쟁을 벌이다가 저자가 의도적으로 전 내러티브의 중심이 되게 한 라합이 말한 진리(8-13 절)를 들을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다. 그것은 어떤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과 같다. 아내는 자랑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고 남편에게 그들의 저녁 손님들을 위해 그녀가 준비해 놓은 아주 맛있는 샐러드와 디저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 맛있는 것들을 본체만체하고 대신 그의 손가락으로 냉장고 윗면을 문지르며 “냉장고의 윗면에 꽤많은 먼지가 있네.”라고 중얼거리며 나갔다. 그는 전체 요점을 놓쳤다. 그는 그의 아내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관심의 초점은 아주 잘못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신약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신약은 일관되게 라합의 **믿음**을 강조한다(히 11:31; 약 2:25).¹

i. 여호와와 능력 (2:10 The Might of Yahweh)

라합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그것이 이야기에서 중앙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녀는 여호와와 능력을 되풀이하여 말한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요단 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시혼과 옥에 행하신 일 곧 당신들이 어떻게 그들을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10 절).”² 이것은 라합의 믿음의 기초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들에 대하여

¹ 이것은 필연적으로 성경 저자가 라합의 거짓말을 시인하거나 우리로 가서 그렇게 하도록 승인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라합의 거짓말을 시인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것(곧 그것의 윤리적인 암시들)을 무시해버린다. 물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성경이 전하는 것과 권장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것과 요구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성경은 야곱에게 4 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을 전한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로 똑같은 일을 하라고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² [역자주] 저자의 10 절에 대한 번역 즉 ‘For we have heard how Yahweh dried up the waters of the Sea of Reeds before you when you came out of Egypt and what **he** did to the two Amorite kings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 to Sihon and Og – whom you destroyed’에 나오는 “**he** did”는 맛소라 본문의 “you did” 대신 칠십인역(καὶ ὅσα ἐποίησε τοῖς δυσὶ βασιλεῦσι = and all that **he** did to the two kings)를 따른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한글 성경과 영어성경은 맛소라본문을 따르고 있다.

들었다. 이것이 믿음에 이르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성경적 믿음은 적어도 어떤 지식, 데이터, 그리고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사랑에 빠지는 한 쌍의 남녀조차도 단지 “어휴!” 혹은 “아이고!” 혹은 “아!” 혹은 “어!”하는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하고, 연락하고, 서로 서로에 대하여 그들의 과거, 그들의 좋아하는 것들, 그들의 싫어하는 것들, 그들의 성격 등을 알아본다. 연애조차도 어떤 지식에 기초를 둔다. 믿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일단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셨는 것을 들음으로부터 생긴다.

ii. 여호와와 위엄 (2:11 The Majesty of Yahweh)

그 다음에 라합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11 절) 여호와와 위엄에 대하여 고백한다. 그것은 믿음의 확신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에 관하여 이르러야 할 결론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신 4:39). 그런데 여기 그녀의 입술에 ‘이스라엘인’다운 고백을 가진 이방 여인 곧 가나안 기생이 있다. 그녀는 여호와와 절대적인 지고하심을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여호와가 하늘에서와 땅위에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iii. 여호와와 자비 (2:12-13 The Mercy of Yahweh)

이 모든 것은 라합을 여호와와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새번역, 12-13 절).” 여기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으로 결코

[개역개정]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새번역]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 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ESV] For we have heard how the LORD dried up the water of the Red Sea before you when you came out of Egypt, and what **you did** to the two kings of the Amorites who were beyond the Jordan, to Sihon and Og, whom you devoted to destruction.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난하는 데까지 계속 밀고 나아간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가오는 진노를 피해야만 했다. 그것은 단지 바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필요의 문제였다. 구원하는 믿음은 항상 이와 같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항상 그분의 날개아래 피하려고 달려간다. 놀랍게도 라합은 주님의 두려움 앞에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두려운 하나님 안에 자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손길의 어루만짐 이외에 그 무엇이 이 이방 기생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을 빚어낼 수 있겠는가?

II. 여호와와 신실하심 안에 있는 격려 (Encouragement in Yahweh's Faithfulness)

둘째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신실하심 안에 있는 격려를 받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에피소드로부터 얻는 최종적 이득은 24 절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나타난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사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땅은 계속해서 2 장의 관심사이다(1, 9, 14, 18, 24 절). 그리고 이제 정탐꾼의 답사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들은 그 도시에 제 5 열을³ 만들지 않았다. 곧 그들에게 ‘내부 공작’을 하여 기만 전술로 그 도시를 넘겨줄 사람은 필요 없었다. 그들이 이 에피소드로부터 받은 유일한 것은 여호와와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이런 가외의 격려가 없어도 그 약속을 확신했어야만 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정말로 여호와와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호와와 약속들이 확실하지 않은 데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이 **확실하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그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를 강화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은혜로우시게도 자신을 낮추시며 과잉의 징표들, 증거들, 그리고 섭리들을 통해 우리로 그의 이미 확실한 말씀을 확신하게 하신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밝히려고 메일을 통하여 그녀에게 카드나 메모를 보내는 남편과 비슷하다.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데 있어서 그녀가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사랑받고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은 가외의 노력이다. 이처럼 여호와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계신다.

³ [역자 주: 남영신, **국어사전**, 1615] 오열(五列)=적의 내부에 있는 동조자를 가리키는 말로 “스페인 내란 중에 프랑코군 에밀리오 몰라 장군이 4 개 부대(4 columns)를 이끌고 마드리드를 공격하면서 시내에도 그들에게 내놓는 제 5 의 부대(5th column)이 있다”고 말한 데서 유래되었다.

III. 여호와와 은혜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Yahweh's Grace)

여호와와 은혜의 아름다움은 이 장의 가르침에 있는 마지막 강조점이다. 예비 단계로 여호수아 2 장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라. 사실상 1 장 다음에 3 장이 나오는 것이 더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3 장이 1 장을 다 읽은 독자가 갖는 기대들을 곧바로 충족시킴으로써 짜임새있는 내러티브를 이루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기는 하지만 6 장에 라합의 구원을 말하는 작은 부분(22-25 절)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분 곧 6:22-25 은 내러티브의 흐름에 방해됨이 없이 쉽게 배제될 수 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본제에서 벗어나 라합의 이야기를 삽입하여 말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왜 저자가 이 자료를 선택해서 전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을까?

이 이야기는 이방인 곧 가나안인, 심지어 기생의 회심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 기생이란 단어는 [조나]이다. 히브리어 [조나]는 매춘부 혹은 창녀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이다. 실제로 라합은 가나안의 풍요를 비는 사당에서 봉사하는 신전 창기들 중의 하나 곧 [케데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경적 윤리에서는 신전 창기나 일반 창기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라합은 [조나]—곧 이방 여인이고 그것도 평판이 좋지 않은 기생—이었지만 교회 안으로 영입되었다(6:22-25)! “그러나 기생 라합을 . . . 여호수아는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6:25).”

그것이 불쾌하고 마음에 걸릴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교회는 오직 존경할만하고 깨끗하고 중산층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병원이 아픈 사람들 대신 오직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방사선 기계들 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혹은 그것은 죽은 사람들 대신에 오직 장의사들과 검시관들만이 시체 공시장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죄인들 이외에 누가 교회에 있을 것인가? 교회는 클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은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이다. 명백히 라합의 과거는 첫 번째 복음서 저자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복음서의 저자 마태는 라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트로피를 본 것처럼 보인다. 여리고의 그늘진 여인이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닌가(마 1:5)?

I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당신은 라합의 행위가 여호와에 대한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녀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가?
2. 라합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어떻게 이것을 드러내 보였는가?
3. 당신은 어떻게 여호와에 대한 지식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가?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드러내 보였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이 당신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가?
4. 라합의 이야기는 당신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당신을 격려하는가?

3. 넘쳐 흐르는 강 건너기 (수 3-4 장 Going Across the Flow)

한 기독교 잡지에 실린 만화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른 네 제사장들이 묘사되었다. 한 제사장이 두려워하는 기색을 하며 그 동료들 향해 “당신이 잠깐 멈추고 여호수아가 틀렸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묻는다. 물론 그 만화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나 “온 땅의 주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3:13)”는 여호수아의 예언은 중대한 말이다. 이걸 밟 그것도 제사장들의 발로서는 대단한 업적일 것이다!

I. 도하 내러티브의 문예적 특징들 (Literary Features of the Narrative)

학자들은 여호수아 3-4 장의 외견상 모순들로 인해 자주 곤란을 겪어 왔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한 적절한 구조를 만들고 외견상 고립된 어떤 특징들을(예, 3:12; 4:9) 이해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실재하는 비평적 문제들은 상상되어 온 것만큼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¹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바르게 평가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문예적인 특징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첫째로, 이 이야기 속에 상당한 서스펜스가 들어 있다. 예를 들어, 3:8 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리실 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지시는 제사장들로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끝난다. 여호수아의 말(3:13)은 정돈하며 그 간격을 메운다. 그러나 그의 말(3:13)에도 비슷한 갑작스러움이 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의 말을 통해 다소 추가적인 정보를 줄지라도 물이 한 곳에 쌓여 선 후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3:15 에 들어 있는 서스펜스는 내가 나중에 다룰 것이다.

둘째로, 기념하기 위한 돌 열둘을 확보하는 것과 그것들의 의의에 주의를 기울인 것(4:1-10a)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10a 바로 앞과 바로 뒤의 부분들은 건너는([아바르]=건너다: 3:13-17 에 4 번, 4:10b-14 에 5 번 나옴) 일의 과정을 묘사하지만 그 주된 관심은 돌 열둘에 집중되어 있다.

건너는 일, 3:14-17

돌 열둘, 4:1-10a

¹ Paul P. Saydon, 'The Crossing of the Jordan, Josue 3; 4', *Catholic Biblical Quarterly* 12 (1950): 194-207 을 보라.

건너는 일, 4:10b-14

제사장들은 3:17 에서 백성이 건널 때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4:10a 에서도 거기에 서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는 진척되지 않았다. 더욱이 4:10b-4:11a(“그 때 백성은 속히 건넌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는 저자가 잠시 벗어나 돌 열둘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하기 바로 전에 3:17b and 4:1a 에서 중단되었던 내러티브의 흐름을 다시 이어간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돌 열둘에 관한 이야기를 요단강 도하 내러티브에 끼어 넣은 것 같다. 이것은 저자가 우리로 그것이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저자가 요단강 도하 내러티브의 맨 마지막(4:21-24)에 여호수아의 교훈적 말을 놓은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가장 묵중한 어조를 남겨두었다. 요단강 도하의 신학적 응축, 곧 각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설교의 절정적 결론이 여기에 있다. 강조를 암시하는 비슷한 방식이 마태의 주기도문(마 6:9-13)에 대한 보고에서도 보인다. 마태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6:14-15)을 주기도문 바로 뒤에 놓고서 용서에 대한 청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저자가 증언하는 것을 들어보자. .

II. 도하 내러티브의 신학적 관심사들 (Theological Concerns of the Narrative)

i. 여호와와의 사역에 대한 인지 (3:1-6 The Perception of Yahweh's Work)

저자는 3:1-6 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을 말한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와의 사역에 대한 인지를 강조한다.

이 요점을 전개하기 전에 우리는 전체 에피소드에서 언약궤의 중심적인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언약궤는 3 절(“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언약궤는 여호수아 3 장과 4 장에서 17 번 언급된다. 저자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시야에서 놓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언제나 우리와 마주치며 우리로 넘쳐 흐르는 물을 가르시고 그의 손에 있는 듯 그것을 붙드시고 그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그분 자신이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²

² 언약궤에 관하여 출 25:10-22 그리고 민 10:33-36 을 보라.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J. Barton Payne, ‘Ark of the Covenant’, *ZPEB*, 1:305-10 를 보라.

모든 사건은 여호와와 엮여 있고 이스라엘은 활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일차적으로는 여전히 목격자들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와의 사역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 일정한 거리를 둘 때라고 3 장 4 절은 말하는 것 같다. "다만 너희와 그것[=그 궤] 사이에 거리 곧 약 2 천 규빗되는 거리가 있게 하라;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너희가 가야하는 길을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지금 제시한 나의 번역은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을 따른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자연스럽게 언약궤로부터 거리를 두는 이유가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제안한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바짝 따라가면 그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거리를 두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와의 위대하신 행위를 볼 수 있고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다. 이 견해가 개정표준역과 새국제역처럼 언약궤의 무서운 거룩성을 거리를 두는 이유로 보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다. 이 두 영어 성경은 거리에 관한 절을 삽입절로

[역자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궤"라는 용어는 한글 성경(개역, 개역 개정) 레위기 16 장 2 절에 단 한번 나온다. 그러나 레 16:2 에 "법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하아론](הַאֲרוֹן)은 직역하면 "그 궤"이지 "법궤"가 아니다. "법궤"라는 용어 사용은 십계명을 율법 혹은 법령으로만 보도록 잘못 인도할 수 있다. 모세오경에 "법의 궤"로 명명된 적이 없고 "증거의 궤" 혹은 "언약의 궤"라는 의미의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나오는 것은 십계명이 법령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으로 본 것을 잘 보여준다. 삼상 4-6 장에도 "법궤"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으며 "여호와와의 언약궤(삼상 4:3, 4[2x], 5, 6)" 혹은 "하나님의 궤(삼상 4:11, 17, 18, 21; 5:1; 6:10[2x])" 혹은 "여호와와의 궤(삼상 5:3, 4, 6:1, 2, 8, 11, 15, 18, 19, 21)" 혹은 "이스라엘 신의 궤(삼상 5:7, 8[2x]; 6:3"라는 이름이 나온다. 레 16:2 의 הַאֲרוֹן[하아론]은 "그 궤"로 번역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 둔 궤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지 않는 "법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간주하고 그것을 절의 끝에 두고 있다.³ 언약궤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위엄 있는 거룩이 있지만 그것이 여기에서의 요점은 아닌 것 같다.⁴

여호와의 사역을 인지하는데 있어서 거리뿐만 아니라 태도 역시 중요하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3:5).” 이 요구가 함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출 19:10, 14, 22; 민 11:18; 수 7:13; 삼상 16:5) 그것은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마다 그 백성에게 요구된 특별한 준비를 의미했다. 그것은 옷을 빨고 성관계를 절제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 등을 포함했다. 간단히 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그의 백성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대체 왜 거리와 태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가? 도대체 왜 큰 사건에 대한 준비로 부산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말 여호와의 사역임을 이스라엘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적절한 통찰력, 기대감, 그리고 준비를 갖지 못하면 여호와의 사역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의 참된 가치와 의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해 전에 나의 형과 나는 메릴랜드 샤프스버그(Sharpsburg, Maryland) 근처 안티에탐 크릭(Antietam Creek)에 있는 남북 전쟁 전투지를 방문했다. 한 공원 관리인이 우리를 데리고

³ [역자주] 다음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라.

[NIV] Then you will know which way to go, since you have never been this way before. But keep a distance of about a thousand yards between you and the ark; **do not go near it.**"

[RSV] that you may know the way you shall go, for you have not passed this way before. Yet there shall be a space between you and it, a distance of about two thousand cubits; **do not come near it.**

[ESV] Yet there shall be a distance between you and it, about 2,000 cubits in length. **Do not come near it,**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e way you shall go, for you have not passed this way before.

[NASB] However, there shall be between you and it a distance of about 2,000 cubits by measure. **Do not come near it,** that you may know the way by which you shall go, for you have not passed this way before.

[YLT] only, a distance is between you and it, about two thousand cubits by measure; **ye do not come near unto it,** so that ye know the way in which ye go, for ye have not passed over in the way heretofore

⁴ 수 3:3-4 을 위해 다음 문헌들을 보라. C. F. Keil, *Joshua, Judges,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40-41; and F. R. Fay, *The Book of Joshua*,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2, *Numbers-Ruth* (1870;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56.

온통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는 2층 방으로 가서 여러 큰 벽면 지도들을 사용하며 우리에게 1862년 전투에 대한 흥미롭고 유익한 강의를 해 주었다. 그는 옥수수밭, 덩커 교회, 번싸이드, 맥클레란, 그리고 리 등을 기막힐 정도로 살아나게 했다. 너무 빨리 끝나버렸지만 그의 강의 끝무렵에 나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전투의 패턴을 잘 파악했다고 느꼈다. 그러한 준비가 없었다면 전투지 주위를 돌아다니거나 위로 올라가 보는 것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은 역사적 잡동사니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강의를 통해 그 사건과 그 인공 유물들을 볼 관점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또한 여호수아 3-4 장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현시(顯示)”에 대하여 바르게 평가하고 믿음을 강화하려고 하면 그들은 먼저 그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비록 여호와께서 매달 그의 백성을 위해 도강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 원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당신은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리기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가?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그러하신 분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기대할 정도까지 우리자신을 준비시키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ii. 여호와의 종 높이기 (3:7-9 The Exaltation of Yahweh's Servant)

여호와의 종 높이는 것은 두 번째 주요 강조점이다. 요단강 도하 전에 여호와와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3:7)”라고 보증하셨다. 저자는 나중에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확증한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4:14).” 모세의 죽음이란 위기, 지도력의 이양(1장 강해를 보라),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정복을 위한 전쟁을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그의 위치에 안전함을 느끼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래 있는 그의 유능함을 확신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었다.

처음에 우리는 지도력에 대한 이러한 확증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의 중요성은 지도력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을 때 보다 분명해진다. 브루스 캐튼은 남북전쟁에서 존 포우프 장군의 군대의 군사들의 태도를 묘사한다. 어느 한 지점에 그들은 돌고 돌며 계속 행군하였고 보급품이 다 떨어져 대부분이 배고파서 지쳐 있었고 상부 명령이 좌절된 것을 잘 의식했고 초조해하였다. 그래서 포우프 장군이 스톤월 잭슨의 소총 공격에 맞서기 위해

데려온 군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고 그것을 예상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⁵ 왜 그랬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대한 그의 백성의 견해가 가나안에서 있을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며 물이 끓어져 한 곳에 쌓이게 하는 일과 여호수아의 유능함에 대한 그분의 승인을 보여주는 인감을 그분의 종 위에 찍으시는 일을 동시에 하셨다.

iii. 여호와와 능력에 대한 확신 (3:10-13 The Assurance of Yahweh's Power)

셋째로, 요단강 도하 내려티브는 여호와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강조한다. 도하 전에 여호수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3:10 개역개정).”고 예언했다. 이 확신 배후에 확실한 논리가 있다. 여호와께서 거칠고 세차게 이는 강을 길들여 잠재우실 수 있다면 공격해 오는 아모리 사람들을 격퇴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분이 요단강의 흐름을 막으실 수 있다면 기르가스 족속을 제압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당신들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면 틀림없이 당신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롬 8:32 에서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논리’를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다면, 그분이 그 정도까지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주시리라는 것을 계속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출애굽기 16 장에서 이스라엘이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믿음의 추론이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출 15-16 장)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들을 내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어야만 했다. 홍해에서 구원, 요단강 도하,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폭발이다. 이것들은 큰 위기 상황들을 그토록 능력있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보다 작은 위기들과 걱정거리들도 틀림없이 잘 다루실 책임자인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신자의 삶의 전 지평선을 채색하도록 의도된 것들이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 기독교 용어 중 세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도 아니고, 단지 우리 클럽의 명예 리더도 아니며, 그의 백성의 모든 난처한 상황속에서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⁵ Bruce Catton, *Mr. Lincoln's Army* (Garden City, N.Y.: Doubleday, 1951), 29, 34.

구출하시고 충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 속에 붙여넣는 것이다. 그는 그러리틀 리그의 지역신에 불과한 신이 아니라 정말로 “온땅의 주님이시다(3:11, 1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화’하고, 그를 조각하여 우리의 키높이로 낮추고, 그를 우리의 능력 한도로 제한하려는 경향을 버려야 한다.

iv. 여호와와 방법의 기묘함 (3:14-17 The Strangeness of Yahweh's Method)

넷째로, 여호와와 방법의 기묘함에 유의하자. 특별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는 3:15c 에 유의하라. 히브리 본문의 순서를 따르면 15c 는 기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끊는 삽입 설명이다.⁶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을 밟으면(3:13) 요단강이 그 흐름을 멈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막 확신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대하는

⁶ 저자는 NIV 가 영어문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히브리어 본문의 순서를 무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역자주] 개역개정과 쉬운성경은 NIV 처럼 원문 순서를 무시하고 맨 첫 자리에 두었고,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둘째 자리에 두었다. 우리말 성경은 원문대로 세 번째 자리에 두었으나 흐름을 끊는 삽입절처럼 처리하지 않았다. 다음 번역들을 비교하라.

[저자가 따르는 RSV: 원문 순서 반영] and when those who bore the ark had come to the Jordan, and the feet of the priests bearing the ark were dipped in the brink of the water (**the Jordan overflows all its banks throughout the time of harvest**),

[ESV] and as soon as those bearing the ark had come as far as the Jordan, and the feet of the priests bearing the ark were dipped in the brink of the water (**now the Jordan overflows all its banks throughout the time of harvest**),

[우리말성경] 드디어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 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NIV: 원문 무시] **Now the Jordan is at flood stage all during harvest.** Yet as soon as the priests who carried the ark reached the Jordan and their feet touched the water's edge,

[개역개정]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쉬운성경]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 강의 물이 가득 차는데, 그 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번역] 그 궤를 멘 사람들이 요단 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공동번역] 그 궤를 멘 사람들이 요르단 강에 이르렀다. **마침 추수절(! 추수철)이 되어 둑에까지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는데,** 궤를 멘 사제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마음으로 3:14 이하를 읽기 시작한다. 저자가 3:14-15b 에서 어떻게 절들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들을 추가하며 어떤 긴장의 지점 곧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지점까지 오는지에 대해 주의하라. 그때 당신을 의자의 가장자리에 있게 하며 그는 가장 미치게 하는 듯한 일을 한다. 그는 15c 에서 당신에게 봄철에 일어나는 요단강 상황을 약간 설명하는 자료를 준다. 이것의 효과는 1950 년대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결정적 키스를 하려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라이스 크리스피 광고에 의해 끊겨 버리는 것과 같다. 저자는 비록 짧을지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고대하는 절정을 늦춘다.⁷ 이 절정은 16a 곧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라는 진술에서 주어진다. 3:14-16a 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도입절, 14a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절정으로 나아가는 절들, 14b-15b

첫째절, 14b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둘째절, 15a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셋째절, 15b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

절정을 늦추는 삽입절, 15c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긴장해소/계속, 16a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자는 요단강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삽입하며 완벽하게 좋은 이야기를 망쳐도 좋다고 생각했는가? 그것은 강이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바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실제 요단 계곡은 너비에 있어서 3 마일에서 14 마일까지 다양하다. 이 계곡 안에 200 야드에서 1 마일에 이르는 넓이의 강의 물이 흐르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은 영킨 관목과 정글 초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강이라기보다는 건너기 어려운 정글과 같다. 요단의 개울들은 강을 통한 길만큼이나 많은 정글을 통한 길들이었다.”⁸ 그 당시에는 수로 자체가 있었는데 주후 19 세기 상황과 비슷하다면 90 에서 100 피트 정도의 너비와 어떤 개울들의 경우 3 피트 혹은 10 내지 12 피트의 깊이를 가졌을 것이다.

⁷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86-87 을 보라.

⁸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5.

물살은 고지에서 떨어지는 것(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마일당 40 피트이고 전체적으로 평균 마일당 9 피트)으로 인해 강했다.⁹

이것은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봄철의 요단강이 잔잔한 시내가 아니라 사납고 거칠게 흐르는 급류로서 아마도 1 마일 너비에 엉킨 관목과 정글 초목을 덮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15c 는 그렇게 말한다.

그러한 세부사항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던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한 해 가운데 정확하게 그러한 업적이 불가능해 보이고 불가능했던 시기였다. 성경의 하나님께서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때를 골라서 강을 건너는 것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것이 그분의 방식에 있어서 두드러진 경향이다. 분명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참고 7:2).

여호와의 방법에 기묘함이 있지만 그의 '미치신 듯함'에 방법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해 낸다면, 우리가 그것을 견딘다면, 우리가 압도당하여 씻겨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직 그의 은혜와 능력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킬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한 상황들, 그렇게 황량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데려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시 121:2)."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무능과 어찌할 수 없음을 가르치시는 그의 방식이 아닌가?

v.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기억 (4:1-10, 21-24 The Remembrance of Yahweh's Goodness)

다섯째로, 우리는 4 장에서 저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일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호수아 4 장은 열두 돌과 그것들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 것이 그것의 끝이 아니다. 당신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6-7 절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말 가운데서 그 주된 의도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 그들에게 '요단

⁹ George Adam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22d e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n.d.), 482-87, 그리고 W. M. Thomson, *The Land and the Book*, 2 vol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873), 2:446, 449, 452-56 을 보라. 두 정탐꾼(여호수아 2 장)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들, 어린이들, 가축, 그리고 소유를 가진 전 백성은 건널 수 없었다. 요단강의 상황에 대하여 대상 12:15 을 참고하라.

물이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서 끓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끓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하라.”

우리는 어떤 가정 곧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망각이라는 가정이 4:1-10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본다. 결혼 생활에서처럼 진짜 위협은 배신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망각의 과정 곧 상대방의 소중함을 점점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신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역설하고 “이 돌들이 기억을 돕는 시청각 보조 자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했다(4:7, 21-24). 그 열두 돌은 교육의 기회 곧 다음 세대에게 요단강에서의 여호와와 능하신 행위를 각인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도되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그려볼 수 있다. 요단강 도하 후 15년이 지난 때쯤 한 이스라엘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길갈 국립 공원을 걷고 있다. 그 아들이 돌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돌을 세며 12개인 것을 알고 “아빠, 이 돌들이 왜 여기에 있어요?”라고 외친다. 그 아들의 호기심은 이스라엘의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 곧 그분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위해 그의 능력을 행사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기회가 된다.

여기에 암시적인 것이 들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고집스럽게 이 날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면 그것은 이 사건이 특이하고 여호와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호와께서 다섯 번째 수요일마다 이같이 광대한 일을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요단강 도하의 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기적은 희귀한 것이 분명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충성을 존속시키는 표준적인 방법은 빈번하게 눈부실 정도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그 자신의 백성을 위한 돌보심을 드러내 보이셨던 특별한 행위들을 꾸준히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기억하는 일을 위한 패턴은 교회로 이어진다. 우리는 성만찬 의식에서 우리의 구원주의 정말로 특이하셨던 행위를 계속 기억한다. 우리 자녀들조차도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라고 우리 귀에 속삭인다. 그 때 거기서 우리는 그들에게 간단한 증언을 속삭여 줄 수 있다. 왜 이런 기념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그의 양떼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며 마신 목자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의 장식품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vi. 여호와와 손길의 증거 (4:18 The Evidence of Yahweh's Hand)

더 간략히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4:18 이 여호와와 손길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들어올려져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 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이러한 시간 조절 효과로 인해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와 사역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진다. 분명히 그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셨는지 모른다. 명백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멈춤이 어느 지점에서 일어났었는지를 알고 있었다(3:16). 요단강은 제방의 붕괴나 주변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흐름이 막힌 댐처럼 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1267 년, 1906 년, 그리고 1927 년에 일어났는데 처음 것은 약 10 시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것은 21 시간 이상 계속되었다.¹⁰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류에 있는 높은 제방이 굴처럼 파이는 것과 같은 이차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이 그분이 사용하셨던 수단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중요한 문제라도 되는가? 4:18 에 묘사된 요단강의 물이 원래대로 돌아간 정확한 타이밍은 우리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진 경이로운 일로 이해하도록 의도되었다.

vii. 여호와와 성실에 대한 날짜 (4:19 The Date of Yahweh's Fidelity)

마지막으로 4:19 은 여호와와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날짜에 대한 메모를 삽입한다. “첫째 달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길갈에 진을 쳤다. C. F. 카일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을 구별함으로써 출애굽할 준비를 시작하던 일이 바로 40 년전의 똑같은 달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출 12:2-3).¹¹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첫째 달로 삼은 달이 구속의 시작을 표시했다면 여호수아에서 그 첫째 달은 구속의 완성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와 그분이 시작하셨던 일을 완성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달력들의 다른 날짜에도 그의 신실하심을 기록해 오고 계시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노예였으나 지금은 상속자이다.

여호수아 3-4 장의 주제나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4:21-24 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설교는 주된 요점을 각인시킨다. 여호와께서 다시 기이한 일을 하셨다! 그는 믿음의 지도 위에 홍해와 함께 나란히 요단강을 놓으셨다. 이것은 이방인 관찰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¹⁰ John Gray, *Joshua, Judges and Ruth*, New Century Bible (Greenwood, S.C.: Attic, 1967), 63.

¹¹ Keil, *Joshua*, 51.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III.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요단강에 취한 열두 돌의 의미는 무엇인가?
2. 당신은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를 그렇게 장대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당신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늘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는가?
4. 하나님께서 최근에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는가?
5. 어디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가장 잘 알게 되는가? 언제 당신은 그분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가?

제 2 부

땅의 정복 (Taking the Land)

(수 5-12 장)

4. 성례의 거행 (수 5:1-12 Celebrating the Sacraments)

여호수아 5 장은 책의 한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는 장이다. 1 장이 서언을 제공하고 2-4 장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면 5-12 장은 땅을 취하는 것을 다룬다. 구조상의 문제들로 논의를 늦출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비슷한 표제를 갖는(곧 각각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위업에 대하여 '들은' 왕들이나 어떤 왕으로 시작하는) 5:1, 9:1-2, 10:1-2, and 11:1-3 이 주요 단락들을 구분하는 표시라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8 장이 하나의 온전한 단락을 이루고 있지만 좀 더 작은 단위들로 나누어 다루는 것이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5:1-12 의 교훈을 설명하기 전에 2-9 절 곧 현 세대의 할례에 대한 예비적인 관찰을 해야 한다. 4-7 절은 이 부분의 핵심을 이루며 할례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제공한다. 이 절들은 이스라엘의 현 세대가 할례를 받아야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는 설명하지만(4-5 절), 그들이 전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는 설명하지 않는다.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가장 엄밀한 단서는 6 절에 나온다. 광야 시기는 불신과 심판의 시기(민수기 14 장을 보라) 곧 구세대가 죽고 멸망한 시기였다. 출애굽 첫세대는 광야에서 40 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도록 되어 있었다(민 14:34-35).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광야 시기 동안 여호와와 진노의 표시로 할례의 표징이 (하나님께 의해) 취소되었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집행유예 아래 있었다고 추론한다.¹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일리가 있을지라도 본문을 조금 넘어서는 것이어서 우리는 할례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창 17:14 에 비추어 이렇게 할례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끓어졌다' (?)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줄 표징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결한 말이지만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¹ J. A. Motyer, 'Circumcision', *IBD*, 1:288-89, and Karl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3d ed. (Stuttgart: Calwer, 1965), 42 등을 보라. 할례의 신학을 위해 특별히 모티어(Motyer)의 강의들('Old Testament Covenant Theology', 6-8 [Theological Students' Fellowship; not a formal publication])을 참고하라.

I.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평가 (5:1-6a Criticism of God's People)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의 출애굽 세대에 대한 묘사에는 커다란 아이러니가 들어 있다. “그 나온 백성이 할례를 받았으나(5a)” 그들은 “여호와와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6 절).”² 그래서 그들은 “멸절하였다(6 절)” 이와 대조적으로 그들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나” 여호와와는 “그들을 일으키사” 대를 잇게 하셨다(7 절).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는 모든 외적 표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당신이 성례를 받지만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 바울의 말이 옳다. 당신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고도 불신앙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다(고전 10:1-5). 당신이 하나님의 양떼 가운데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목자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당신이 왕의 영토 안에 살면서 왕의 주권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II. 여호와와의 약속의 확실성 (5:6b Certainty of God's Promise)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확인해 준다. 6 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그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출애굽 세대는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셨다.”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² [민 14:22-24] 22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³ [역자주] 수 5:6b 에 두 번 나오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표현을 원문대로 명사 주어 ‘여호와’와 동사 ‘맹세하셨다’를 두 번 그대로 반영한 한글 성경은 없다. 잘 반영하는 ESV 와 그렇지 못한 한글 성경들을 비교해 보라.

[ESV] **the LORD swore** to them that he would not let them see the land that **the LORD had sworn** to their fathers to give to u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두 번째 ‘여호와’가 명시되지 않음]

[새번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두 번째 ‘여호와’가 명시되지 않음]

야곱에게 하셨던 맹세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 땅(=가나안 땅, 출 32:13)을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광야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맹세는 그들의 자손들 중의 한 세대가 그 땅을 얻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었다. 이 두 번째 맹세가 첫 번째 맹세를 무효로 하는가? 결코 아니다. 땅에 대한 여호와와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 세대 곧 출애굽 세대가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 약속에 들어있는 몫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성취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켰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불신앙은 언약의 약속이 주는 은택들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소년시절에 그의 동생과 함께 버터를 만들기 위해 휘젓는 일을 하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휘젓는 일을 하셨을 때 일상적인 절차는 번갈아 가며 교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적절하게 시간을 맞추어 어떤 자극을 주어 작은 아버지가 휘젓고 있는 동안 화가 나도록 하면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거절하고 혼자서 휘젓는 일을 전부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휘젓는 일을 할 때 누가 싸움을 걸려고 했는지를 추측해 보라. 그러나 싸움이 휘젓는 일을 취소시켰는가? 결코 아니다. 사이좋게 교대로 하던, 싸우며 하던, 휘젓는 일은 끝나쳐졌다. 화내는 일이 없던, 화내며 하던,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림잡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여기의 요점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거짓 신으로 여긴다.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길에 놓는 노상 장애물로 인해 틀림없이 그가 좌절하시고 이마에 주름이 잡히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문의 요점은 인간의 반역이 그런 종류의 강타를 먹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굴욕적인 소식은 인간의 죄와 반역의 본질적인 무력함이다.

[우리말성경] **여호와께서**는 전에 주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맹세하셨다’와 두 번째 ‘여호와’가 명시되지 않음]

[쉬운성경]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주’와 ‘여호와’로 일관성없이 번역하고 ‘맹세하셨다’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음]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 .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6 절).” 이것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원동력이다.⁴

III. 하나님의 공급의 계속성 (5:10-12 Continuity of God's Provision)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의 계속성에 대한 강조를 본다. 이제 애굽에서처럼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킨다. 거기서 그들이 구원의 시작을 기념했고 여기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을 기념한다. 사실 이제부터 새로운 시기가 시작된다.⁵ 애굽인들이 더 이상 히브리인들에 대한 농담들을 지킬일 수 없게 되었다(9 절).⁶ 그러나 주된 강조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는 사실에 있다. 저자는 11-12 절에서 이 사실을 세 번이나 언급한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즐기고 있다.

⁴ 다윗 언약의 약속에 대한 비슷한 접근을 보려면 Walter C. Kaiser,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156-57 을 참고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의 후계자들의 일부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존속된다.

⁵ 저자가 여기서 표시하려고 의도했던 새로운 시작에 관하여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102-3 을 보라.

⁶ 나는 수 5:9 의 “애굽의 비난”을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 퍼부었던(아니 적어도 퍼부을 수 있었던) 비난, 비꼼, 비웃음으로 간주하는데 있어서 C. F. Keil(*Joshua, Judges,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59)을 따른다. 칼빈은 이 견해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라고 간주하지만 ‘속격’ 구문에 ‘[헤르파] reproach, 수치, 치욕, 비난’을 사용한 것이 이를 지지한다. 민 14:13-14 을 참고하라.

[민 14:13-16] 13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14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15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16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역자주] 저자가 말하는 속격구문(genitive construction)은 의존형(construct state) 명사와 자립형(absolute state) 명사로 구성된 명명구(名名句 construct chain/constructive)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벵엘(창 28:19 בֵּית־אֵל, “떡[의] 집”을 뜻하는 베레레헴(룻 1:19 בֵּית לֶחֶם,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을 뜻하는 엔학고레(삿 15:19 עֵין הַקּוֹרָא 등도 모두 명명구이다. ‘애굽의 비난’으로 번역되는 원문 [헤르파트-미츠라임]은 의존형 명사 [헤르파트]와 자립형 명사 [미츠라임]으로 이루어진 명명구이다. 애굽인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향하여 출애굽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느냐고 하는 조롱, 비웃음, 비꼼, 비난이 길갈에 도착함으로써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만나가 그쳤다(12 절; 출 16 장 참고).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처럼(출 16:35 참고) 만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한 공급을 중단하셨다는 뜻인가? 아니다. “그들이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기 때문에(12b)” 만나가 그쳤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비상한 필요에 직면했고 비상한 필요들은 자주 (예를 들어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신기한 공급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 안에 있고 거기서 식물이 지면에서 자라고 있다. 따라서 양식이 하늘로부터 올 필요가 없다. 만나는 예외적인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이었다. 그러나 그 필요가 정상적인 것이므로 그의 공급은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이든, 가나안의 땅에서 자라는 곡식이든, 그것은 여전히 **그분의** 공급이다.

클래런스 매카트니는 이 점에 있어서 존 위더스푼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위더스푼은 독립선언서의 서명자이고 그 당시 뉴저지 대학의 학장이었다. 그는 대학에서 2, 3 마일 떨어진 록힐에 살았고 매일 마차를 타고 대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 출근했다. 어느 날 그의 이웃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그의 사무실로 급히 들어오더니 소리쳤다. “위더스푼 박사님,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해 저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로키힐로부터 마차를 몰고 오는데 말이 달아나고 마차가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렸지만 나는 하나도 다친 데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더스푼이 대답했다. “아이고, 저런. 제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섭리를 당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 백번 그 길을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이 달아난 적이 없고, 제 마차가 부서진 적도 없고, 제가 다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지진과 바람과 불 가운데만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만나는 하나님의 양식이고 곡식은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대부분은 현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수수한 갈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없이 안전하게 다니는 것, 자녀들이 건강한 것, 제 때에 봉급을 받는 것, 가족과 만찬을 나누는 것 등은 모두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일상적인 하루의 일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다.

I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하나님의 양떼 가운데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목자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2.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좌절시키는가 아니면 단지 연기시킬 뿐인가?

3.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먹은 것 사이에 차이점은 무엇인가?
4.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는가?
5.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비상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는가?

5. 여리고 전투는 여호수아가 싸운 것이 아니다 (수 5:13-6:27 Joshua Did Not Fight the Battle of Jericho)

한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 그 배경에 높은 성벽이 있는 도시(아마도 여리고)가 있고 그 전경에 전투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두 명의 고대 군인 장교들을 그린 만화가 실린 적이 있다. 한 장교가 다른 장교를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묻고 있었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정복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을 침략하여 저항하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라고 하신 명령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에 반대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은 편의상 그것을 규정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처럼 가혹하고 거슬리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정복에 대한 변증을 내놓을 열정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복에 대한 구약 자체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창 15:16 에서 여호와와 아브람에게 그의 자손들이 곧바로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4 대가 지나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시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고 설명하셨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땅의 주민들에 대하여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그들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브람의 자손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견해는 오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들의 거친 성적도착(레 18:24-25), 그들의 마술, 주술, 이와 유사한 모든 가증한 것들(신 18:12)에 대한 열정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모든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태도나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은 그들이 의롭고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것을 바로 이 민족들이 악함때문이다(신 9:4-5).” 정복은 땅에 굶주린 약탈자들이 그들의 심술궂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수백명의 무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린 일이 아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결코 더 의롭지 않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그들의 악행을 즐기는 한 민족에 대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것이 정복과 관련된 당신의 모든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지만 당신은 구약의 관점 곧 정복이 터무니없는 불의가

아니라 가장 높은(그리고 가장 참을성이 있는[창 15:16]) 정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¹ 우리는 나중에 정복의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적절한 경우에 문학적인 고려 사항들과 함께 이 부분의 교훈을 살필 차례이다.

I. 여호와와 군대 대장의 출현 (5:13-6:5 The Appearance of Yahweh's Help)

저자는 5:13-6:5 에서 여호와와 군대 대장의 출현을 묘사한다. 이 절들(5:13-6:5)은 5 장과 6 장의 장 구분을 무시하고 6:1 을 괄호 안에 넣고 삽입적인 말로 생각하고 하나의 단위로 간주해야 한다.² 그러므로 6:2 은 5:15 로부터 그 흐름을 이어간다. 이 견해에 따르면 6:2-5 은 여호와와 군대 대장의 지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사실 그 군대 대장은 여호와와 동일시되고 있다(6:2a).

여호수아를 찾아온 군대 대장의 출현에는 어울리는 면과 이상한 면이 동시에 있다. 그는 전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울린다. 이것은 그가 휘두르는 칼(5:13) 그리고 그가 밝히는 정체성(5:14 "여호와와 군대 대장")을 보면 분명해진다. 이것은 군사적 싸움을 수행하려는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틀림없이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궁극적인 책임이 여호수아의 어깨에 매달려 있지 않고, 열두 지파가 그들의 대의명분을 위해 싸우는 유일한 군대도 아니다.³

그러나 이 대장에 관한 이상한 측면도 있다. 그는 여호수아의 범주들의 어느 것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그의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을 때 그는 틀림없이 이 비인습적인 군사적 인물이 누구인지를 감지하기 시작한다.

이 만남의 의미를 따져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적어도 그것은 일차적인 기능은 구체적인 지시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외적 순종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열렬한 지지자(한 동아리)라기보다 주권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도하시는 분과의 바른 관계보다 특별한 인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가 쉽다."⁴

¹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Gustav Friedrich Oehl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8th ed. (New York and London: Funk and Wagnalls, 1883), 81-82 을 보라.

² C. F. Keil, *Joshua, Judges,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63-64. 이와 비슷한 삽입적 해설들의 예는 수 3:15b 와 샬 20:27b-28a 에서 볼 수 있다.

³ 여호와와 군대(수 5:14-15, 히브리어 [차바])는 왕상 22:19; 시 103:21; 148:2 에서처럼 십중팔구 그의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일 것이다.

⁴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 – 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6-7.

6:1 이 삽입적 해설이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드스트라는 “여리고는 그 문을 닫았고 이스라엘인들에게 매우 완벽하게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⁵ 번역했다. “이 절의 목적은 요구되는 전투(와 같은 종류의 싸움)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놓인 외견상 희망이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⁶ 이것은 “보라!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6:2).”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 더 놀랍고 고무적인 것으로 만든다. 여호와의 방법론은 자주 이와 같다. (6:1 에 비추어 6:2 을 보며) 우리가 여호와의 작정이 (결코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어떤 것보다도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백성 앞에 놓인 더 큰 장애물들은 그의 능하신 도움을 불러 일으킨다.

II. 여호와의 방법의 기이함 (6:6-15 The Strangeness of Yahweh's Method)

우리는 (무장한 남자들, 양각 나팔을 부는 일곱 제사장들, 언약궤, 후군, 여리고 주위를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번 도는 행렬 등과 같은) 여호와의 방법의 기이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요단강 도하에서처럼 중심 무대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궤이다. 6 장에서 여호와의 궤는 10 번 언급되고 그 중 9 번이 지금 다루고 있는 절들(6:6-15)에 나온다. 효과를 낼 것은 바로 백성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의 임재이다. 신호가 주어질 때까지 백성은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다(6:10). 그래서 이 작은 단락은 여호와의 임재가 얼마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수동적인지를 강조한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후속 전투와 소탕에 참여하긴 하지만[6:20-21]) 여리고 전복에 기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기 위해 고집스럽게 그의 백성의 행위를 무시해 버리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스라엘이 행군하고 소리만 지를 뿐이라면, 누가 여리고를 쳐서 무너뜨리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그의 정상적인 패턴은 그의 백성의 매개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흐리게 하고 그의 찬양을 흠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 우리의 기여를 제쳐 버리신다. 그 결과로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후 4:7)”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⁵ “Jericho had shut the gate and was so completely closed to the Israelites that no one could go out or in.”

⁶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108.

III. 여호와와 백성에게 주어진 요구 (6:16-21 The Demand on Yahweh's People)

우리가 기이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여호와와 백성에게 주어지는 요구도 관찰해야 한다. 먼저 이 부분(6:16-21)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이미 여호와와 지시(6:5)와 여호수아의 명령(6:10)을 통해 일곱째 날에, 그것도 분명한 명령을 받을 때만, 백성이 외쳐야 한다는 것을 안다. 10 절과 16 절 하반절 곧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고 말했다.”라는 말씀을 읽은 후 우리는 20 절에서처럼 백성이 외칠 것이란 기대를 한다. 사실, 10 절에 비추어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는 16 절 다음에 바로 20 절이 따라 나오는 것이다. 16 절에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했고 20 절에 백성이 외친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자는 16 절 하반절 다음에 그 결과를 듣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그러나 저자는 독자로 기다리게 한다. 저자는 여호수아의 외치라는 명령(16b)과 그 명령에 따른 백성의 반응(20 절) 사이에 여호수아의 지시와 경고(17-19 절)를 넣음으로써 절정이 지연되게 한다.⁷

10 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했을 때 백성이 외쳐야만 했다면, 16 절 하반절의 “외치라!”는 명령 이후에 백성이 조용히 자신들을 억제하고 주의깊게 여호수아의 계속되는 진멸의 법에 대한 설명,⁸ 라합과 그 가족을 대하는 절차, 그리고 여리고의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경고를 들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외치라!”는 명령을 지킬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순종하며 그들의 함성으로 여호수아의 설교를 잠재워버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무엇인가? 16c-19 절이 비역사적이라는 것인가? 여호수아가 그것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지시들을 정말로 내렸지만 아마도 그 이전에(즉 외치라는 명령을 주기 전에) 그것들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저자는 여호수아의 말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그것들을 “외치라!(16b)”는 명령 다음에 놓으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절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17-19 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20 절에 묘사된 여리고성의 벽이 무너져 내린 것보다

⁷ Woudstra, *The Book of Joshua*, 112.

⁸ “진멸 아래 두는 것(NASB: ‘under the ban’)” 혹은 “파멸을 위해 바쳐진 것(RSV: ‘devoted for destruction’)”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헤렘]은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사물이 진멸에 의해—혹은 어떤 물품의 경우 여호와와 귀중품 보관소에 줌으로써—여호와께만 “바쳐져야(cf. NIV: ‘devoted’)” 하므로 백성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D. J. Wiseman, ‘Ban’, *IBD*, 1:171; R. P. Gordon, ‘War’, *IBD*, 3:1629 그리고 Leon J. Wood, *TWOT*, 1:324-25 등을 보라. 진멸의 시행은 이 정복 전쟁이 일차적으로 종교적인 전쟁, 참된 거룩한 전쟁이지 이스라엘을 살찌게 하는 단순한 약탈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예적 방식을 통하여 저자는 승리 자체보다 여호와와 명령들에 대한 순종이 우선적인 일인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는 7 장(아간의 사건)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들에서조차도 그의 백성이 빠지기 쉬운 유혹들이 숨어 있었다.

이러한 관심사는 우리와도 상관이 있다. 제자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산꼭대기에서 겪은 좋은 체험을 보존하는데 더 골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는 내 아들이다. ...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권면하셔야만 한다(눅 9:35).

누군가 여호수아 6 장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는 여리고 성의 실제적인 공격의 자세한 장면들, 그 안에서 있었던 전투 장면들을 찍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러한 영화적 관심도 전혀 없고 이스라엘 용사들의 허장 성세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승리 자체에 대하여 단지 한절 반(20b-21)만을 할애하여 아주 간단한 언급, 곧 거의 사실적인 보고만 주고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저자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IV. 여호와와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 (6:22-25 The Salvation in Yahweh's Judgment)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로 여호와와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을 보기를 원한다(6:22-25). 여리고 성의 진멸에 대한 설명(21, 24 절) 사이에 구원과 구출의 이야기(22-23, 25 절)가 있다.⁹ 라합과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구출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¹⁰ 라합은 여호와와 (진멸) 위협을 두려워하여 그의 자비으로 피난하였다. 이 이방 여인과 그녀의 가족은 이제 선택받은 백성 안에 서 있다. 그렇다면 그녀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엡 2:13)” 하신다면 우리가 놀랄 이유가 없지 않은가?

⁹ 여리고에 대한 고고학적 문제에 대하여 John J. Bimson, *Redating the Exodus and Conques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Supplement Series 5 (Sheffield, 1978), 115-45 을 보라. 빔슨은 자기 자신의 제안을 위해 논의하지만 여리고에 대한 문제와 이전의 연구들에 대한 좋은 논평을 하고 있다. 정복의 방법과 문제들과 역사성에 대하여는 본서의 나중에 나오는 설명들을 참고하라.

¹⁰ 엘리슨(Ellison, *Joshua – 2 Samuel*, 7)은 “라합의 경우가 어느 가나안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과거를 거부함으로써 그의 목숨을 구출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진술한다.

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인가?
2. 당신은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어떻게 보아 왔는가?
3.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해 자주 '약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4. 당신의 삶에서도 승리가 유혹으로 인도한 적이 있는가?
5.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을 보고 당신은 '놀라워한' 적이 있는가? 부유하고 유명한 자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6.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교회 (수 7 장 The Church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약 일년 전에 나는 집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것은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비행기였지만 먹을 음식을 받을 때 나는 조금 당황하였다. 주된 요리의 일부로 감자들이 있었지만 쟁반의 왼쪽에 포장도 되지 않고 갈색 껍질이 그대로 있는 구운 감자가 하나 있었다. 비행기들은 항상 상당히 수준 높은 식사를 제공한다고 믿어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주된 요리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 비행기에서 그렇게 조잡한 감자들을 식사로 제공하는지를 곰곰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내게 주어진 구운 감자를 먹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보고 만지며 그것이 롤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나는 요리 조달자들이 감자를 포장하지도 않을 만큼 비위생적으로 보였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감자를 먹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겉보기와 실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여호수아 7 장으로 뛰어드는 것은 롤빵을 감자로 오인한 경험과 비슷할지 모른다. 처음 다섯 절을 읽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이 장이 우리에게 과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어떤이들이 추론하는 것처럼—어떻게 이 장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의 위험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부정적인 예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생각들은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여호수아 7 장의 문학적 구조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여러가지 문학적 기교들을 보여주지만¹ 나는 이 부분의 전반적인 문학적 구조에 국한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여호와와 (불타오르는) 분노, 1

이스라엘에게 미친 재앙—패배, 2-5

여호와 앞에 선 지도자들—당황, 6-9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10-12a

¹ 예를 들어 보면, 첫째로, 저자는 수 7:1 에서 독자에게 신실하지 못한 행위, 범죄자의 정체, 그리고 여호와와 분노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독자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서스펜스의 요소가 남아 있다. 둘째로, 어떻게 저자가 절정에 이를 때까지 어떤 사항들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의 일부가 훔쳐졌다는 것을 알려 주면서도 저자는 독자에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저자는 7:21 에 가서야 아간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말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은 이야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신선한 정보를 갖게 된다. 이것은 독자들이 흥미를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앙, 12b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13-15

여호와 앞에 선 이스라엘—명료/폭로, 16-23

아간에게 미친 **재앙**—사형, 24-26a

여호와의 (사라진) **분노**, 26b

내가 제시한 위와 같은 전체 구조가 여호수아 7 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나 말끔하다. 문예적 기교들이 구약 내러티브들에 퍼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말끔한 패턴을 찾을 수 있을만큼 구약 저자들이 항상 그들의 내러티브들을 정교하게 구성하지는 않았다고 믿는다. 나는 이 구조가 본문에 강요된 것이 아니고 본문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조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주제가 들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여호수아 7 장의 바른 해석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I. 여호와의 진노의 증거 (7:1-5 The Evidence of Yahweh's Wrath)

이러한 전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 장의 교훈을 찾아보자. 첫째로, 우리는 7:1-5 이 여호와의 진노의 증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본다. 많은 강해자들이 이 점을 역설하지 않고 대신 이 절들을 보며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대한 이유들을 찾는 것이 보통이다. 한 인기있는 강해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분명 과신이였다. 그 성은 여리고에 비하여 작은 도시에 불과했고 군대 전체가 공격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였다. 정탐했던 사람들은 이삼천 명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분명 기도의 부족이였다. 2 절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그는 길갈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 곧바로 그 지역의 다음 도시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 여리고에서 백성이 승리를 위해 외치던 때 그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지만 아이성 전투의 정복을 위해 그는 결코 겸손하게 땅에 엎드리지 않았다. 이러한 요점들이 명백하게 설교될 것이지만 그것들은 1 절과 26 절의 진술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사실, 다른 강해자가 2 절을 보고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정반대되는 요점을 찾는 것을 보면 그러한 강해적 추론들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여호수아는 잠시 쉬는 것도 마다하고 그 앞에 놓여있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정복한 다음 장소를 정탐할 사람들을 보냈다. 괄목할만한 승리를 거둔 후 그는 가만히 앉아서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거나 향연을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정책을 믿었다.

이렇게 한 강해자는 기도 없이 행동한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반면 다른 한 강해자는 서둘러 행동한 여호수아를 칭찬한다. 한 사람은 기도 없이 행동이 취해진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게으름없는 행동을 갖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1 절에 표현된 저자 자신의 의도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석학적으로 오리 무중인 상태에 있게 된다.

내러티브가 여호와와 진노하심으로 시작되고 마감되는(1 절, 26 절) 틀 구조는 여호수아 7 장의 주제와 주요 범주를 제공한다. 이것은 2-5 절이 1 절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2-5 절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들은 여호와와 진노때문에 패배하였다. 그들의 과신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패배하도록 역사하신 여호와와 진노의 결과이지 패배에 대한 이유가 아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잘 파악하였다.

삼천 명쯤 격퇴당했을 때 그것은 단지 그의 과신과 나태에 대한 정당한 댓가였다. 그러나 성령님은 수가 작은 것이 패배의 원인이 아니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신다. 참된 원인은 그의 진노의 표징을 보이도록 의도되었지만 손상이 덜 심하도록 수가 작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이었다.²

과신의 위험과 기도의 부족이 잘 설교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이 본문으로부터는 권위있게 설교될 수 없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말한다. 우리는 여호수아 7 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인 수수께끼를 다루며 푸는 것처럼 부적절한 반응을 가지고 이 요점을 시사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와 진노는 아주 가벼운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주제 앞에 떨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²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trans. Henry Beveridge, in vol. 4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81), 105. 정탐보고와 여호수아의 절차에 반영된 시각 상실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대적하심의 첫 작업이다(Karl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3d ed. [Stuttgart: Calwer, 1965], 62).”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왔거나 진노 아래 있는 유일한 회중이라고 생각하는가? “참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떠난다.”³

II. 여호와와 진노 아래 당혹스러움 (7:6-9 The Perplexity Under Yahweh's Wrath)

둘째로, 여호와와 진노 아래 당혹스러움에 유의하라. 이스라엘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7:4-5)는 충격이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은 “약속 위에 서 있어(3:10)” 왔고 지금 이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자신의 파멸을 예상하며(7:9) 그들 “마음이 녹은(7:5, 대조 2:11; 5:1)”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의 기도의 음조와 불평 때문에 때때로 여호수아는 강해의 총알로 수수께끼를 풀듯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값싼 발사들이 아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직 1 절의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저자가 서두에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갖고 있다 나는 이것을 독자의 우위라고 부른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러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다.

7 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불평도 조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배회하는 동안에 늘어놓았던 불신앙적 불평(민 14:1-3; 신 1:27-32)과 다르다. 여호수아의 말은 불신의 말이 아니라 실망의 말이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불평하였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불평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당혹스러운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의 기도에서 한 가지 기본적인 간구를 한다(9 절). 그의 논증에 이스라엘의 위험과 여호와와 영예가 포함되어 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우리의 이름”을 끊어 버릴 것인데 그러면 “당신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 당신님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라고 기도한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그것은 여호와와 명성에 영향을 미친다. 소위 품위있는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기도에서 그런 논증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움츠린다. 그건 매우 거친 것처럼 보인다고 그들은 말한다. (아니면 그것은 단지 너무 순진하고 어린애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어쨌든 매튜 헨리가 옳다. “우리는 이 보다 더 좋은 간구를 드릴 수 없다. ‘주님, 당신님은 당신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영광을

³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36.

받게 하라. 그리고 그의 뜻 전부를 환영하라.”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연대감을 느끼는 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시기들이 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수단 곧 신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위험과 그분의 명예를 동시에 호소하며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

III. 여호와와 진노의 대상들 (The Objects of Yahweh's Wrath)

셋째로, 우리는 여호와와 진노의 대상들을 고려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죄와 심판에 있어서 연대 책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1 절부터 바로 하나와 다수의 교차가 있는 것이 보인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 . .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1 절).” 다시, 11 절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정말로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⁵ 알려 주시는 반면 15 절에서 그는 “**그가** 여호와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자를 불사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신다. 더욱이, 24-25 절은 아간의 가족과 가족이 그의 형벌을 함께 받은 것을 분명하게 진술한다.⁶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믿는 20 세기 미국 개인주의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연히 우리는 불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더 좋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전체 백성으로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한 사람의 전 집안이 그의 형벌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죄에 대하여 가볍게

⁴ Ibid., 2:37.

⁵ [역자주] 한글 성경들의 경우 쉬운 성경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받는 두 번째 동사의 의미상 주어 “그들”을 밝히지 않았다.

[개역개정]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새번역]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우리말성경]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공동번역]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쉬운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렸다.

[NASB] **Israel** has sinned, and **they** have also transgressed My covenant which I commanded them.

⁶ 수 24:6-7 에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현 세대)” 사이의 변동에 주목하라.

생각하는 견해들을 갖고 있다.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죄의 힘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참고, 고전 5 장; 행 5:1-11)⁷

IV. 여호와와 진노의 경고 (7:12b The Threat of Yahweh's Wrath)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가 얼마나 중심적인 일인지를 본다. 본 장의 초두에 제시된 여호수아 7 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라. 누구나 거기서 7 장의 구조에 어떤 대칭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2 절 하반절은 전체 단락의 경첩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중심점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위협하시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와 임재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다(수 1:5, 9; 3:7, 10; 4:14; 6:27). 그것은 그들의 존재의 필수조건이었다(출 33:15-16 을 보라). 지금 그것이 사라지려고 한다(수 7:12b).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어지럽히는 것은 없다.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에서 여호와와 임재를 보유하는 것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들 중에서 멸해야만” 하는 값 비싼 일이 될 것이었다. 여호와와 임재가 지속되려면 파괴적인 심판이 일어나야 한다(“온전히 바친 것들” 혹은 “진멸”에 대하여 앞서 다룬 내용 곧 본서 5 장의 각주 8 번을 보라).

⁷ 어떤이들은 여전히 (그리고 올바르게도) 아간과 함께 그의 가족이 처형된 이유를 물을 것이다. 한 설명에 의하면 그들이 그의 범죄에 방조자들이라는 것이다. 틀림없이 그들은 아간이 그 훔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견해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R. J. Rushdoony, *The Institutes of Biblical Law* (Nutley, N. 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3), 269 에도 비슷한 설명이 있다. 그러나 본문은 명시적으로 이것을 밝히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견해는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이 함께 죽임을 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확실하게 그것들은 공범자가 아니었다. 다른 한 설명(R. P. Shedd, *Man in Community* [Grand Rapids: Eerdmans, 1964], 16.)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인격은 그의 전 집안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로 “아간의 죽음만으로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지는 일이 못되므로 그의 나머지 곧 그의 가족과 재산 또한 파멸되었다. . . 그들은 매우 친밀한 방식으로 그에게 속한 종속물이므로 그것들이 포함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신 24:16 과 아간의 형벌 사이에 마찰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C. F. Keil, *Joshua, Judges,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82-83 와 F. R. Fay, *the Book of Joshua*,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2, *Numbers-Ruth* (1870;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79 그리고 J. H. Hertz, *The Pentateuch and Haftorahs*, 2d ed. (London: Soncino, 1966), 852.등을 비교해 보라.

교회의 여러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부재가 교회의 권징의 값 비싼 시행을 통해 우리 가운데로부터 기꺼이 악을 청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인가? 어떤 교회들은 권징의 시행에 있어서 너무 강력하고, 너무 처벌적이고, 너무 지각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 교회는 권징의 느슨함을 보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웬일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참을성 있는 경고들(곧 계 2-3 장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들어 있는 경고들), 성령님의 파괴적인 힘(행 5:1-11), 그리고 사도들의 직접적인 명령들(고전 5:1-13; 살후 3:6-15)을 아주 쉽게 잊어버린다. 사실 교회는 신정 통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징을 시행하는 형식이 바뀌었다고 하여 권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관용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V. 여호와와 진노의 계시 (7:10-15 The Revelation of Yahweh's Wrath)

다섯째로, 우리는 진노하시는 중에도 여호와께서 자비를 기억하시는 것을 본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진노를 알리시는 일을 통해 그의 자비를 보여주셨다. 여호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의 노여움의 원인을 알려 주셨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 그들이 온전히 바친[(개역개정)//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새번역)//진멸시켜야 할(우리말성경)] 물건들의 일부를 취했다(11 절).” 그러한 달갑지 않은 폭로 배후에 그의 백성이 그의 호의를 얻도록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이 빛난다. 이 분이 나중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왕에게 나단을 보내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삼하 12:1). 왜 그러시는가? 그분은 그의 종이 그의 죄 가운데서 가책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의 종에게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 저지른 죄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밝히신다.

VI. 여호와와 진노의 가혹함 (7:16-26 The Severity of Yahweh's Wrath)

마지막으로, 여호와와 진노의 가혹함을 다시 상고할 필요가 있다. 아간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 식구들, 가축 그리고 소유물 전부가 극단적인 형벌에 처해졌다(24-25 절). 그러한 가혹함은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힐 것이지만 우리는 왜 그런 가혹한 형벌이 주어졌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와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15 절

개역개정)“ 이 절은 분명하게 죄가 심각한 것이므로 형벌 또한 심각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⁸ 심판의 가혹함은 죄의 극악함에 대한 지표이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여호와와 진노를 잘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출 32:25-29 혹은 민수기 25 장과 같은 단락들을 읽을 때 어리둥절해하는 이유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마 5:29-30) 그 분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가 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당혹스러운 것이다. 여호수아 7 장의 증언은 우리가 암을 비타민제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암은 근본적인 제거 수술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암과 같은 죄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를 변경시키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고의적인 반역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같은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쌓은 돌무더기가(26 절) 지속되는 기념물로 남아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 곧 아간의 이름과 언어 유희를 보여주며 괴로움을 뜻하는 아골이란 이름은 이 이야기를 상기시켜 줄 것이다(25-26 절). 구속사의 흐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도우심에 대한 기념물(4:1-10)도 보고 하나님의 파괴하시는 진노에 대한 기념물(7:25-26)도 본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들 두가지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아골(괴로움)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방법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호 2:14-15).

VII.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
2. 당신은 당신의 위험과 그분의 명예를 호소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무엇이 당신으로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게 했는가?

⁸ 저자는 NIV 가 “He who is caught with the devoted things shall be destroyed by fire, along with all that belongs to him. He has violated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has done a disgraceful thing in Israel!”라고 번역하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생략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흐리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역자주] NASB 는 “And it shall be that the one who is taken with the things under the ban shall be burned with fire, he and all that belongs to him, **because** he has transgressed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because** he has committed a disgraceful thing in Israel”라고 번역하며 이유의 접속사를 잘 반영하고 있다.

3. 아무도 고립되어 죄를 짓지 않는다. 당신의 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4.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것보다 죄를 용인하는가?
5.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7. 전투와 언약(수 8 장 Combat and Covenant)

좀 성가신 일들 즉 우리가 적어도 주목해야 하는 8 장의 쟁점이 되는 것들로부터 시작해 보자.

첫째로, 아이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이(Ai)를 현재의 옛-텔(et-Tell)과 동일시한다. 옛텔은 (성경에 나오는 베델로 생각되는) 현재의 베이틴(Beitin)에서 남서쪽으로 약 2 마일 떨어져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들은 주전 2200-1200 경에 옛텔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소위 출애굽의 '이른' 연대설을 따라) 주전 1400 년경에 가나안에 들어왔던, ('늦은' 연대설을 따라) 주전 1200 년경에 들어왔던, 어느 경우에도 아이가 옛텔이라면 정복할 아이가 없었다는 뜻이다. 초기 청동기 시대에 옛텔은 25 피트의 폭과 29 피트의 높이를 가진 거대한 돌벽이 있는 27 에이커에 달하는 도시였다. 그후 거주에 있어서 오랜 공백 기간이 있었다. 주전 1200 년경 이후 제 1 철기 시대에 3 에이커에 달하는 조그만 거주 지역이 있었다.

그러나 수 7:3 은 (정탐꾼들의 보고가 정확하다면) 아이의 백성이 "적다"고 말하는 반면 옛텔이 매우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이와 옛텔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옛텔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폐허 더미가 아니었는데 수 8:28 은 아이가 폐허 더미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옛텔은 성경이 아이에 대하여 주는 지리적인 정보(예를 들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산[창 12:8]에 대한 정보)와 맞지 않는다.¹ 우리가 성경의 아이(Ai)를 정확하게 밝히려면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된다.

두 번째 문제는 매복 군대와 관계가 있다. 여호수아가 하나의 매복을 하게 했는가 아니면 두 개의 매복을 하게 했는가(3-4 절, 12 절)? 어떤 이들은 3 절의 삼만 명을 동원된 군사의 전체 수를 명시한 것으로 보고 12 절의 오천 명을 실제 매복에 동원된 군사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선호한다.² 히브리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견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각각 삼만 명과 오천 명의 두 그룹의 복병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듯싶다. 여호수아는 한 그룹의 복병들로 아이를 불사르도록

¹ H. G. Stigers, *A Commentary on Genesis* (Grand Rapids: Zondervan, 1976), 140; Jehushua M. Grintz, "Ai Which Is Beside Beth-Aven," *Biblica* 42 (1961): 201-216, 그리고 John J. Bimson, *Redating the Exodus and Conques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Supplement Series 5 (Sheffield, 1978), 215-225 을 보라.

² 예로 George Bush, *Notes, Critical and Practical, on the Book of Joshua* (Chicago: Henry A. Sumner, 1881), 89-90 을 들 수 있다.

하고(8 절) 다른 그룹의 복병들로 베델로부터 올 더 이상의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던 것 같다(참고, 17 절). 이 견해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온 군대는 아이의 북쪽에 있었고 두 그룹의 복병들은 아이의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숨어 있었다.³

I.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 (8:1-2 The Definite Help of God)

이제 8 장의 교훈을 살펴보자.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을 (특히 1-2 절에서) 강조하는지를 주목하라. 이 요점은 다음과 같은 1-29 절의 구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호와께서 주신 재보증, 1-2

 매복에 대한 지침들, 3-9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올라감, 10-13

 아이의 언뜻 보이는 '성공', 14-17

여호와께서 주신 지시, 18

 매복의 실제 행위, 19-20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돌아옴, 21-23

 아이의 패배, 24-27

 (요약, 28-29)

이 절들의 구조는 매우 대칭적이다. 두 개의 주된 부분들의 선두에(1-2 절, 18 절) 아이성에 대한 공격을 위한 여호와와 재보증과 지시가 나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장 1 절의 재보증은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주어진 것(6:2)과 비슷하다. 여호와는 역습을 위한 정확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실(18 절) 만큼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다. 매복조차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신 지시들의 일부였다(2 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고후 4:7)'을 보여주려고 본문에 음모가 들어있다. 심지어 영리함도 그분의 것이다!

여호와와 도우심의 타이밍과 필요성을 염두에 두라. 그것은 죄가 다루어지고 심판이 시행된(7 장) 후에 왔다. (해설을 위해 사 59:1-2 을 보라.)⁴ (7:3 에 기록된 정탐꾼 보고가

³ (삼만 명과 같은) 큰 수치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는 William S. LaSor, David A. Hubbard, and Frederic W. Bush, *Old Testament Survey: The Message, Form, and Background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2), 166-170 에 있는 논의를 참고하라.

⁴ [역자주] 사 59:1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심지어 작은 아이성의 정복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만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큰 여리고가 정복될 수 있었고(6 장), 그분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심지어 가장 작은 구역도 파멸시킬 수 없었다.⁵ 어떠한 성공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얼마나 철저하게 의존해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이다.⁶

II. 하나님의 푸짐한 선물 (8:2, 27 The Generous Gifts of God)

둘째로, 이 단락은 우리로 하나님의 푸짐한 선물에 주목하게 한다. 여리고 에피소드(6:18, 21)와 대조적으로 여기서 여호와와 이스라엘로 아이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도록 허락하셨다(2 절). 이에 대한 전례가 있었다(신 2:34-35). 아간의 탐심은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던가(7:21)! 먼저 여호와께 구별될 것들이 바쳐짐으로써 그분의 최우선적임이 인정되고 충족된 후(6:18-19) 여호와와 그의 백성에게 푸짐하게 주셨다.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가난해지게 하지 않으셨다. 탐심이란 암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시각을 상실했을 때뿐이다. 사실 이것은 ‘뱀이 가졌던 신학’의 제일 원리들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유혹하던 뱀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한에 강조점을 둘만큼 예리했기 때문이다(창 3:1). 여호와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실함을 위한 선결조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 배교를 막는 해결책이다.

III.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 (8:29 The Solemn Judgment of God)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에 대한 매우 분명한 그림을 보게 된다. “그가[=여호수아]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개역개정, 수 8:29).”

⁵ Karl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3d ed. (Stuttgart: Calwer, 1965), 72 을 보라.

⁶ 우리는 여기(수 8: 18-19, 26)의 여호수아의 단창과 출 17 장의 모세의 지팡이 사이에 존재하는 병행을 볼 수 있다. 후자에 관하여 Willem Hendrik Gispen, *Exodus*, The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2), 166, 168-71 을 보라.

현대 성경 독자들은 이러한 묘사에 직면하여 자주 그런 ‘야만적’ 시대의 발상들을 보고 움츠린다. (실제로, 야만 행위를 일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대이다. 비교적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가 오히려 깨끗한 편이다.) 그러나 우리의 피상적 반응들이 우리로 본문이 엄숙하고 중요한 문제로 묘사하는 것에 눈이 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나무에 매다는 행위들은 후에도 일어날 것이고(10:26-27), 여리고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참고, 2 절). 나무에 달리는 것은 죽이는 수단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시행되는 것이었다. 10:26-27 을 보면 왕들은 죽임을 당한 후에 나무에 달렸다. 신 21:22-23 에 기록된 법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유익한 도움을 준다. 그 당시 죽을 죄를 범함으로써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범죄자를 나무나 기둥에 달아 놓는 것은 아마도 “사형에 처할 법들을 어긴 결과들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⁷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체는 밤이 되기 전에 내려 놓아야 했다. 이러한 규정들에 중요한 진술 곧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3)”는 진술이 들어 있다. 크레이기는 이 일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나무에 달려 있기 때문에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몸이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지 죽었기 때문에 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유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 때문에 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⁸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아 놓은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아이 왕과 그의 백성(사실,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엄중한 표징이 있다. 왜 그런가? 레 18:24-25 과 신 9:4-5 을 보라. 틀림없이 그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광경을 내려다 보셔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에서조차도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에 압도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주전 1400 년에 아이 왕에게 일어났던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심판에 대한 또 하나의 그림 곧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던(갈 3:13)” 유대인의 왕이 나무에 달리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⁷ 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6), 285.

⁸ Ibid.

우리는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이 단지 주후 30 년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IV. 하나님에 대한 예술적인 찬양 (The Artistic Praise of God)

30-35 절을 상고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자주 지적할 수 있었던 것 즉) 전체 장의 스타일에 관한 한 가지 관찰을 해야 한다. 이야기가 전해지는 방식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아이성 정복에 관한 이 이야기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가운데 전해진다. 우리가 성경 내러티브들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이 이야기는 시편 100 편에 못지 않게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선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대적들을 무찌르는데 있어서 능한 도우심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러나 이야기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잘 짜인 찬양이다. 전에 말한 것처럼 매복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리한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2 절에서 어떻게 매복이 언급되는지를 주목하라. 아무런 세부 사항이 없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만 언급되어 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3-9 절에서 세부 사항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아이성의 방어 병사들로 그들을 추격하며 성 밖으로 나오게 했을 때, 복병들은 그 성을 취하고 불사르도록 지시받는다(7-8 절).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20-26 절에 기록된 실제로 있었던 공격에 대한 보고에서 우리는 아이성 군사들이 복병들과 여호수아의 역습 군사들의 중간에 포위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접한다.

이것은 좋은 이야기 방식이다. 저자가 처음에 이 모든 정보를 알려 주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흥미진진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라. 여호와의 지시들 가운데 매복 자체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도시를 취하고 불사르는 것에 대한 것과 성으로부터 나와 아이성 군사들의 후미를 치는 것에 대한 지시들을 포함시켰더라면, 글썄,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서스펜스도 없고 호기심도 없었을 것이다.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러티브를 말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계속 흥미진진하도록 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우리가 살았던 주에 있는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 고속도로를 따라 잘 광고된 노상 과일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표지판의 일부가 “Larry’s Fruiet Stand 래리 과일상”이라고 되어 있었다. 당연히 나는 “fruiet”가 “fruit”와 동일한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나 좀더 비판적인 사람이라면 그 표지판을 보고 “글썄, 그들이 “fruit”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다면,

그건 저속한 과일상일거야!"라고 생각할 것이다. 래리가 품질 좋은 과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의 '포장'은 그의 과일을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어야 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8:1-29 에서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지만 세심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 있다. 우리의 공적 예배가 요란할 필요는 없지만 기쁨이 없고, 따분하고, 판에 박힌 듯 예측가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설교가 선정적이고 선풍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단조롭고 활기없고 무미 건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실제로 매혹시키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 매력과 경이가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에 관하여 말하는 방식에 흘러 넘쳐야 할 것이다.

V.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 (8:30-35 The Crucial Word of God)

마지막으로 우리는 30-35 절에 시간을 좀 할애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대한 말씀을 보기 때문이다.

8:30-35 에서 갑작스러운 전환이 일어난다. 8:29 에서 우리는 아이성의 왕이 저주를 받는 마지막 의식을 보며 그 성문에 서 있었다. 그런데 30 절에서 우리는 잽싸게 옮겨진듯 세겜 근처 에발산의 그늘 아래서 토라(율법)의 복과 저주가 낭송되는 것을 듣는다. 갑자기 우리는 아이성 북쪽으로 20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있게 된다. 이런 갑작스러운 전이로 인해 30-35 절이 실제로 8 장의 이야기에 속하는 것인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⁹ 알베르토 소긴은 30-35 절이 "그것들을 선행하는 것이나 뒤따른 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왜 8:30-35 이 현재의 문맥에 놓여져 있는지 결코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한다.¹⁰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견해이다. 첫째로, 다음과 같은 5-8 장의 전체 구조에 비추어 보면 8:30-35 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표제, 5:1 (참고, 9:1; 10:1; 11:1)

⁹ 칠십인역(주전 200 년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으로 통상 [70 을 나타내는 로마숫자] LXX 로 약칭되는 성경)은 8:30-35 을 9:2 뒤에 놓았다. 그러나 칠십인이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맛소라 본문=MT)이 의도하고 있는 9:1-2 의 왕들의 반응과 9:3 의 기브온 사람들의 반응 사이의 대조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 .)처럼 9:3 은 역접의 접속사로 번역을 시작해야 한다.

¹⁰ J. Alberto Soggin, *Joshua: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241.

준비: **언약** 의식, 5:2-12

공격

첫열매, 5:13-6:27 (성공); 여호와와의 전쟁

저주, 7:1-26 (실패); 여호와와의 진노

회복, 8:1-29 (성공); 여호와와의 도우심

결론: **언약** 말씀, 8:30-35

이런 전체 개관을 보면 우리는 8:30-35 이 5:2-12 에 상응하는 끝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을 더 길게 논의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수 5-8 장이 매우 주의깊게 짜인 큰 단락처럼 보인다는 것과 언약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8:30-35)이 언약의 표징들(할례와 유월절[5:2-12])에 의해 시작된 큰 단락을 적절하게 마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둘째로, 8:30-35 과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 사이에 분명한 주제적 연결이 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의 진노로 인한 저주와 여호와와의 도우심으로 인한 은혜를 막 체험한 후에 여호수아가 토라의 “복과 저주”를 낭독하는(34 절) 것보다 그 무엇이 더 적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8:30-35 이 우리에게 정말 문예적 충격을 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전략들과 전투들에 관한 상당히 계속되는 내러티브를 읽는 것에 익숙해져 가던 때에 갑자기 전쟁 영화가 끊어지고 예배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세계 비틀림을 당한 것처럼 정복으로부터 언약으로 옮겨진다.¹¹ 이 상황은 정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특별 뉴스 속보로 끊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 뉴스 속보는 정규 방송을 바꿀 만큼 충분히 중요하고 우선한다고 여겨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저자가 우리로 그의 문학적 폭력의 희생자가 되게 하는 이유이다. 이것은 언약적 순종이 군사적 승리보다 우선한다는(사실상, 7 장에서 보았듯이 언약적 순종이 군사적 승리의 기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언약 갱신 의식을 여기에 둠으로써 저자는 이스라엘의 성공이 일차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마치 저자는 “전투를 멈추고 하나님의 율법을

¹¹ 만일 8:30-35 이 둘러싸는 내러티브와 함께 정확한 연대순으로 배열되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아이성으로부터 세겜으로 이동한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둔(9:3) 후 이스라엘은 요단강 근처 길갈에 있는 진으로(9:6) 돌아왔기 때문이다.

청종하라. 이것이 바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모세가 이 의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한 신 11:29-32 과 27:1-14 을 보라.)

이 의식의 절정은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 것(혹은 선포하는 것)과 함께 온다(34-35 절). (33-35 절에 ‘모든’이란 단어를 5 번이나 사용함으로써)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본문의 방식에 주목하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류민들도,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역시, 이 말씀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 율법은 책 보관소에 저장할 어떤 공식적인 기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과 가정주부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의(35b) 삶을 형성하기 위한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모든 순종을 바쳐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최우선시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방금 세겜에서의 의식에 관하여 말한 것은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지적해야 한다. 이 언약 의식이 세겜에서 거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0 마일 떨어져 있다.) 여기서 아브람(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창 12:6-7). 여기서 야곱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떠나 오랜 망명 생활을 한 후에 여기로 안전하게 돌아왔다(창 33:18-20; 28:13).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8 장을 보면 땅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약속의 땅인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고 여기에 야곱의 자손들이 있다. 확실히 저자는 우리가 그 장소의 중요함에 유의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세월도 여호와의 약속들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저자가 말하는 방식이다.

VI.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당신 스스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배제해도 좋다고 유혹을 받게 한 “작은” 일들은 무엇인가?
2. 당신은 교회의 삶에 있어서 어떤 방식들 가운데서 ‘뱀이 가졌던 신학’을 보는가?
3.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나무’가 저주를 가져왔는가 아니면 ‘저주’가 나무를 가져왔는가?
4.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며 경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대신 지루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가?

5.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으로 '일'을 멈추고 그분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는가? 왜 그러한 갱신이 중요한가?

8. 상식으로 인한 걱정거리 (수 9 장 The Trouble with Common Sense)

여호수아 9 장은 이스라엘을 속여 조약을 맺게 한 기브온 사람들의 기만을 다룬다. 10 장을 논의할 때 기브온의 위치와 주변 성읍들 그리고 9-12 장의 문학적 구조에 주목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9:3-27 만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구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정복에 대한 기브온의 반응, 3-15

양식과 복장의 준비, 4-5

조약 체결의 요청, 6-8 (조심스러운 이스라엘)

여호와에 대한 '고백', 9-11

양식과 복장의 현시, 12-13

조약의 체결, 14-15 (속임 당한 이스라엘)

기브온의 기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16-27

기브온의 구원, 18-21

이스라엘 다루기: 맹세는 거룩하다

맹세와 백성의 불평, 18

맹세와 불평에 대한 응답, 19-21

기브온의 운명 Doom of Gibeon, 22-25

기브온 다루기: 저주는 영원하다

기만의 정죄, 22

저주의 선언, 23

기만에 대한 변명, 24

저주의 수용, 25

요약, 26-27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6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기브온의 사신들이 여리고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길갈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속임이 8:30-35 의 헌신 바로 다음에 나온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들의 소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계획들과 정책에 대한 어떤 지식들에 의해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고 멸절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십중팔구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24 절; 출 23:31-33; 34:12; 신 7:2 을 보라).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도록 허락받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신 20:10-18 을 보라). 틀림없이 이런 이유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먼 나라(6, 9 절)”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I.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부족 (9:3-15 The Lack of the Wisdom of God)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얼마나 곤경에 처했는가를 우리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런 지혜가 필요했던가!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4-5 절, 12-13 절). 모든 것 곧 곡식 부대들, 포도주 부대들, 신발들, 옷들이 낡아 헤어지고 찢어져 있었다. 그들의 빵은 마르고 딱딱해져 있었다. 이것은 마치 그것의 경쟁 약품보다 훨씬 더 많은 위산을 빨아들이는 어떤 주요 제산제에 대한 한 텔레비전 상업 광고와 많이 닮았다. 그 주장을 입증할 길이 없지만 그 약은 이런 실물 선전 때문에 확신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두 개의 큰 컵이 내 생각에 위액에 상응하는 액체로 가득차 있고 확실하게도 한 제산제는 그것이 다른 것보다도 현저하게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실제로 확신을 주는 증거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적이고 명확하고 소위 과학적인 실물 선전 때문에 그 제산제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확실한 증거라는 인상을 전해준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을 가지지 않고서 누가 그 명백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기브온 사람들은 또한 현실적인 보고를 한다(9-10 절). 그들에 의하면 그들을 감동시킨 것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과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쓸어버리신 일(민 21:21-35)을 들은 것이었다. 실제로 기브온을 감동시킨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것이었다(3 절). 그러나 그들은 약삭빠르게도(4 절)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아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심히 먼 나라(9 절)”에서 왔고 그래서 그들은 이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심히 먼 나라에서 그들이 아주 옛날 이야기를 아는 것이 기대될 수 있지만 가장 최근의 이야기들을 아는 것이 거의 기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단을 가장 그르치게 한 것은 아마도 그들이 제시한 영적인 증언이었을 것이다(9-11 절). 그들을 이끌어 길갈까지 오게 한 것은 바로 그의 능하신 행위들을 통해 얻으신 여호와와 명성이었다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말과 2:10-13 에 기록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부가 매우 영적이고 경건한 것으로 포장될 때 아부(기브온 사람들)와 믿음의 고백(라합)을 구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먼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의해 말해지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대부분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무엇이 항상 있기 때문에¹ 그것은 정말 아주 미묘하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혜를 필요로 했었는데 얼마나 그들이 지혜를 무시했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의 일부를 취했다."라고 하는] 14 절 상반절이 언약 식사에 참여한 것을 암시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나 여호와의 입을 그들이 구하지 않았다."라는 14 절 하반절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주된 관심사를 깨닫는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여호와의 입을"이란 목적어가 절의 선두에 오며 강조되어 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하여 여호와께 여쭙었어야만 했었다(민 27:21). 여호와의 지시는 받을 수 있었지만 무시되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그들은 바로 올바른 요점들을 지적하며 의심스러워했다(7-8 절).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사에 부주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에 있어서 그들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약 4:2).

이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절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우리는 우리가 의심할 때만 하나님의 지도를 필요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과 상의할 필요가 없어. 그것은 아주 분명하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없는가? "어떤 제안된 행동의 진로도 기독교인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시를 구할 의무로부터 면제해 줄 만큼 아주 분명한 것은 결코 없다."² 성경은 영원하신 팔안에서 풀이 죽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영원한 팔을 의지하는 것만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교묘한 불신을 경계해야 한다.

내가 8 살 혹은 10 살이었을 때 길 건너편에 사는 나이가 더 많은 선배 형의 뒷뜰에서 놀고 있었다. 그가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고 나는 그가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그의 뒷뜰에 남아 내 야구 방망이와 공을 가지고 놀았다. 내 어깨에는 방망이를 그리고 내 손에는 공을 갖고서 내가 그의 집을 향하여 섰을 때 그 가족의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 문에 창문이 하나

¹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 – 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10.

² George Bush, *Notes, Critical and Practical, on the Book of Joshua* (Chicago: Henry A. Summer, 1881), 105.

있었다. 갑자기 내가 100 피트나 떨어져 있는 데서 내 공을 쳐서 그 지하실 문에 있는 창문을 깬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느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 삼아 나는 내 공을 쳐서 그 창문을 깨보려고 했다. 글썄, 내가 옳았지만 나는 통제력을 잃었다. 나는 그 지하 창문을 깨뜨리지 못했지만 그 형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는 부엌의 창문을 박살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 행위 전에 가졌던 심리적인 느낌 곧 “내가 이것을 다룰 수 있어!”라는 느낌을 회상한다.

여호수아 9 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한 자만한 독립에 대하여 경고한다. 우리의 다양한 시도들의 맥락에서 우리는 그런 시도들과 상황들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아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용가능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약 1:5). 우리의 필요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와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적들을 압도할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묘한 적들을 간파할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불행하게도 교회는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열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해 버린다.

II. 하나님의 영예에 대한 관심 (9:16-21 The Concern over the Honour of God)

둘째로, 여호수아 9 장은 하나님의 영예에 대한 관심을 묘사한다. 조약을 맺은 후 얼마 안 되어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속임을 받아 조약을 맺으며 맹세를 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전체 딜레마는 “우리가 맹세했던(18, 19, 20 절)” 그 맹세에 집중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족장들을 원망하였다(18b). 아마도 백성들은 속임을 받아 한 맹세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참고, 19 절).³ 그러나 족장들은 다른 고려 사항들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 설령 속임 당해 맹세를 했더라도 언약 맹세를 깨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깨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이고 그 맹세를 깨는 것은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더럽힐 것이다(19-20 절).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러한 맹세를 깨는 것은 여호와가 신뢰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게

³ 많은 해석자들이 이에 동의한다. F. R. Fay, *The Book of Joshua*,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2, *Numbers-Ruth* (1870;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90-91 을 보라.

될 것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성소를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들이 되어야 했다(21 절).

서구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스라엘이 이 맹세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말에 대한 너무 낮은 관점과 진리에 대한 너무 빈약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시 15:4; 마 23:16-22).

이스라엘은 난처했다. 그들은 부당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맹세라고 할지라도 맹세를 깨서는 안 되었다. 무엇을 해야 했던가? 그 꼬인 상황 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신실하게 사는 것이었다.

이 요구는 기독교인의 경험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어리석음의 결과들 가운데 충실하게 살도록 부름받는다. 우리의 선호, 우리의 편의, 우리의 정당화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삼사 년 전에 우리 큰 아들이 6 학년 친구와 내셔널 리그 야구 준결승전에 대하여 내기를 했다. 내기돈은 3 불이었고 우리 아들이 졌다! 내 아들은 그가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내 견해로는 우연을 가정하는 내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암묵적 부인이다.) 그러나 그는 내기를 했고 졌다. 그가 했던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는 약속을 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가 내기돈을 그의 친구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가진 2 불 41 전과 내가 준 59 전을 합친 3 불을 학교로 가지고 가서 주었다. 다행하게도 친구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로 그 돈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당신은 자녀 교육에 대한 나의 시도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상세한 점들이 아니라 원리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잘못, 그리고 어리석음의 테두리 안에 붙들릴 수 있다. 분명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죄책의 근절이 죄의 모든 결과들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수의 바로 뒤에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그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엉망진창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해야 한다.

III. 하나님의 백성의 지배 아래서 갖는 소망 (9:22-27 The Hope Under the People of God)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9 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배 아래서 갖는 소망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본문을 넘어서 밀고 갈지 모르므로 독자들이 분별력을 사용하기를 부탁한다.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지만(참고, 24, 26 절) 저주 아래 살았다(23 절). 그들은 여호와의 성소를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들이 되었다(27 절). 심한 고역이 그들의 몫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구속적인 암시를 찾아낼 수 있다.

이로써 그들은 참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된 뜻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의 전의 뜰에 거하게 되었고, 성소의 봉사에 있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영예를 얻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이고 영원한 관심사들에 아주 호의적인 환경 가운데 놓였다.⁴

이런 제안은 본문으로부터 합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본문이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나는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문이 암시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슬픔으로부터 기쁨을, 저주로부터 은혜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I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증언”으로 인해 속임을 당한 적이 있는가? 어떻게 당신은 그것이 “비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2. 언제 당신은 지혜를 구하거나 기도하는 대신 당신 스스로 일들을 다루어 보려는 유혹을 가장 강하게 받는가?
3. 당신은 의심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가?
4. 이스라엘이 맹세를 지킨 것을 싫지만 마지못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싫거나 굴욕적인 일을 마지못해 했었는가?
5. 당신은 여기 기브온 사람들과 관련된 구속적인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은 보편적인 장소들에서 비신자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⁴ Bush, *Joshua*, 108. 독자는 이와 비슷한 견해를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55, 그리고 Hugh J. Blair, ‘Joshua’, in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Grand Rapids: Eerdmans, 1970), 243 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9. 가나안의 남부 전투 (수 10 장 In Canaan's Dixie)

여호수아 9-11장은 잘 짜인 구조를 보이는 단락이다. 이 단락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이스라엘, 9:1-27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10:1-11:15

남부 전투, 10:1-43

배경, 10:1-5

요약, 10:40-43

북부 전투, 11:1-15

배경, 11:1-5

요약, 11:12-15

요약, 11:16-23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부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10장 자체를 논의하기 전에 지리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브온 족속과 관련이 있는 '네 도시'(9:17)의 전략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아도니세텍의 낙담(10:1-2)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네 도시 즉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랴여아림은 기브온이 분명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동맹을 이루고 있었다. (만일 기브온이 엘지브라면)¹ 기브온은 예루살렘의 북쪽/북서쪽으로 6 마일 떨어져 있었고, (예루살렘과 [그 서쪽에 있는] 아얄론 사이의 중요한 길인) '벤허른의 길'의 동편 끝을 지키고 있었고, 지역의 길들이 만나는 곳에 있었다. 기브온에서 서쪽으로 5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던 그비라는 서쪽에서 기브온으로 통하는 길들을 내려다보는 고원 지대의 한 지맥에 있었다. 그비라에서 남쪽으로 2 마일, 기브온에서 남서쪽으로 6마일 떨어져 있었던 기랴여아림은 유다로부터 소렉골짜기에 있는 지역들인 벤허메스와 딘나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다. 브에롯의 위치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없다. 기브온(엘지브)에서 남쪽으로 약 2 마일 떨어진 기르벳 엘-부르지(Khirbet el-Burj) 근처가 아닐까 추측된다.²

아도니세텍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도 당황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미 동쪽으로 여리고와 아이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¹ 엘지브에서 발견된 '기브온'이라고 쓰여진 단지의 손잡이들이 반드시 엘지브가 성경의 기브온이란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J. Simons,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Texts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59), 176을 보라.

² 브에롯에 대하여는 Anson F. Rainey, 'Beeroth', *IDB/S*, 93 그리고 Trent C. Butler, *Joshua*,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103 을 보라.

중앙과 서쪽으로 기브온 동맹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된 직사각형의 네 개의 주요 지역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와 아이의 점령과 더불어, 이것은 이스라엘이 (후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는) 전략적 중앙 고원 지대의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중앙 지역을 가로지르는 넓은 길을 확보했다.³ 그는 북부와 남부 사이에 분할이 일어나게 했다.

I. 이스라엘을 위한 용사 (10:8-11 The Warrior of Israel)

여호수아 10장의 교훈을 살필 때, 첫째로, 우리는 8-11절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용사이신 여호와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된다. 아도니세텍은 그의 동맹국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에게 올라와서 자신이 기브온을 쳐부수는 일을 도우라고 말한다(3-5절).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와서 이 아모리 왕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다(6-7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깐 멈추며 8-9절을 통해 두 가지 교훈에 주목해 보자. 8절에서 여호와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이 단언의 후반부는 가나안 정복 이전인 1장 5절에서 이미 주어진 적이 있다. 이렇게 여호와는 가나안의 어떤 사람도 여호수아를 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재확신을 주시는 통상적 방식이다. 하나님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새로운 진리를 알려 주심으로써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을 재확인해 주심으로써 그것이 어쨌든 현재의 절박한 필요로 인해 특별한 힘을 띠도록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개 그들에게는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필요에 새롭게 적용되는 오래된 진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9절이 어떻게 신적인 재확언이 인간의 창의성(기습공격)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무시키는 것인지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종의 행동을 가라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 일으키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하라. 여호와는 승리를 약속하셨지만(8절), 그의 승리는 밤새도록 진행된 행군과 십중팔구 아직 어두웠을 때 감행된 기습 공격을 통해 이루어졌다(9절). 하나님의 주권이란 진리가 적절히 사용된다면 인간의 반응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킨다.

용사로서 여호와의 모습은 10-11절에 나타난다. 10절에 대하여 영어 성경들은 다양하게 번역한다. 10절에 4 개의 동사가 들어 있다. 첫 번째 동사(“[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다”)의 주어는 여호와가 확실하다. RSV, NIV, TEV 등은 이스라엘을 나머지 세 개의 동사의 주어로 삼아 번역했다. NEB는 여호수아를 나머지 세 동사의 주어로 삼아 번역했다. 그러나 ASV, NASB, JB 등은 첫 번째 동사처럼 나머지 세 개의 동사도 여호와를 주어로 삼아 번역했다.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은 네

³ 독자는 여호수아서의 지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일련의 지도들을 John Lilley, 'Joshua', in *The New Layman'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315-333 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사 모두 여호와를 주어로 삼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⁴ 이것이 저자가 의도하였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 적을 추격했다는 것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요점이다. 저자는 우리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저자는 우리로 여호와가 용사이시고 여호와가 적을 쳐부수시는 승리자이신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11절은 여호와를 강조되는 자리에 두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들(=적)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11절 하반절). 본문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천과 원인을 선언하고 있다. 여호와는 적을 무찌르시는 용사이시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라는 이 비전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은 것은 너무 안 된 일이다. 우리 중에 이 개념이 불충분하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러 이러한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감상적으로 새겨 놓은 상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여긴다. 하나님이 용사라는 이미지는 너무 폭력적이라고 간주된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 교재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으며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비슷한 생각을 한다. 예수님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는 마치 예수님이 손에 바른 크림 냄새를 풍기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그 분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 뿐만 아니라 매끄럽고 매우 깔끔하신 것이다. 그러 하신 예수님은 적에 의하여 매일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영혼을 굳세게 하실 수 없다. 우리는 시편 24편이 제시하는 질문과 대답을 듣고 배울 필요가 있다. 질문: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대답: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시 24:8).” 우리는 백마를 타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 곧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계 19:11-16)”에 대한 비전을 붙들어야 한다. 유순하신 하나님 혹은 부드러운 예수님은 그의 백성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우리가 혼란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리고 때때로 우리 없이도) 싸우시는 이스라엘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뿐이다.

II. 기도의 기적(10:12-14 The Miracle of Prayer)

둘째로, 우리는 기도의 기적을 만난다. 이 중심 요점에 유의하길 바란다. 그것은 본문에 들어있는 강조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심 취지에 집중하기 전에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나는 본문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구한 것은 무엇인가? 상당히 보편적인 견해는 그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를 거둘

⁴ 칠십인역은 여호와를 첫 두 동사의 주어로 간주하고 이스라엘을 나머지 두 동사의 주어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 있도록 일광의 연장을 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가 똑같은 이유에서 흑암의 연장을 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흑암의 연장을 주장하는 견해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흑암 견해의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상고해 보자.

흑암 견해는 번역과 문맥의 문제를 고려하면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기이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번역은 12절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로 “멈추어 서도록 (to stand still)” 명령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히브리어 동사 [다맘]의 의미는 “말없다, 침묵하다, 잠자코 있다, to be dumb, silent, or still”이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이다. 거의 던져지지 않는 질문은 여호수아가 해와 달의 어떤 활동(activity)을 금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것이 해와 달의 움직임(movement)이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해와 달의 빛남(shining)이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9절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것은 그가 여전히 어두울 때 공격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따라서 문맥상 해와 달의 움직임보다는 해와 달의 빛남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더 일리가 있다. 더욱이, 여호수아의 “해와 달에 대한 명령”은 해가 동쪽으로 기브온에 있었고 달이 서쪽으로 아얄론 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이른 아침에 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가 흑암이 연장되기를 구하는 적절한 때일 것이지만(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 군대가 작열하는 더위에 의해 약해지는 일이 없을 것이지만), 일광의 연장에 대하여 관심을 두기에는 조금 이른 때이었을 것이다.⁵

그러나 [다맘]이 “(빛남이) 멈추다”, “어둡다”는 것을 내포할 수 있다면, 13절 상반절에 달이 “서있다, stood” (“멈추었다, stopped”, NIV; “정지했다, halted” NEB)라고 말하고 13절 하반절이 해에 대하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매우 자주 사용되는 [아마드] (“서다, to stand”)이다. 그러나 다시 그 언급이 움직임(motion)인가 아니면 빛남(radiance)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아마드]가 의미하는 범위가 “한 위치에서 가만히 서 있다 to stand still in a position”보다 더 폭넓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녀의 출산이 멈춘 것(창 29:35; 30:9), 바다의 요동치는 것이 멈춘 것(욥 1:15), 궁수의 화살쏘는 것이 멈춘 것(왕하 13:18), 기름의 흐름이 멈춘 것(왕하 4:6)을 나타낼 수도 있다. 사실 하박국 3장 11절이 해와 달의 빛남이 멈춘 것에 대하여 [아마드]를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호와와 빛에 의하여 퇴색되고 분명 폭풍우에 의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⁶

⁵ 11 절에 묘사된 여호와와 큰 우박이 시간적으로 여호수아의 기도 후에 내린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어두컴컴하게 했을 것이다. 12 절 상반절의 “그 때 then”가 반드시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것을 암시하지는 않으므로 여호와와 큰 우박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외경 집회서가 취하는 입장이다.

⁶ 합 3:11(개역개정: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이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에 대하여 Carl E. Armerding, ‘Habukkuk’,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ed. Frank E. Gaebelein,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5), 7:529-30 그리고 A. B. Davidson and H. C. O.

그러나 13절의 마지막 부분이 흑암 견해에 대한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 이 마지막 부분은 “해가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월슨은 세심한 연구가 마지막 구를 “완전한(곧 일상적인) 날에 있었던 것처럼(as on a completed (i.e. ordinary) day)”이라고 번역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⁷ 해가 보이지 않았다면 이 마지막 부분은 그 상황이 지구 상에 있는 관찰자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해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가 “그의 길을 달리는(시 19:5-6)”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제안을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해석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일을 할 기회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견해를 밀어붙이며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13절의 마지막 부분이 흑암 견해에 좋지 않은 징조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흑암 견해가 문맥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⁸

해와 달의 멈춤의 문제는 이 정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끝내고 본문의 주된 강조점 곧 기도의 기적으로 돌아가자. 저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었다(14절).”라고 평하고 있다. 그 날이 독특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일광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인정하건데 그것은 정말 기도이었다! 그것이 여호와께 드러진 것이라고 할지라도(12절 상반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만 있는 천체를 향한 직접적인 명령이었다(12절 하반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나아오는 남자나 여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은가? 이러한 기도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큰 임금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주 보이는

Lanchester, *The Book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20), 93 을 보라. 그리고 또한 C. F. Keil, *The Twelve Minor Prophet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49), 2:108 을 참고하라.

⁷ R. D. Wilson, ‘Understanding “The Sun Stood Still”’, in *Classical Evangelical Essays in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ed. Walter C. Kaiser, Jr. (Grand Rapids: Baker, 1972), 62 (reprint from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16 [1918]: 46-54).

⁸ 12-14 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E. W. Maunder, ‘Beth-Horon, the Battle of’, *ISBE* (rev. ed.), 1:469-71 그리고 Bernard Ramm,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1954), 156-61 그리고 Hugh J. Blair, ‘Joshua’, in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Grand Rapids: Eerdmans, 1970), 244 등을 보라.

경박함과 단조로움을 책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숨을 가다듬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시 113:5) 하나님께서 몸을 구부리시며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의 입술에 그의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가 나에게 간구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시 91:15).” 누가 도대체 이와 같은 하나님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III. 승리의 표징 (10:16-27 The Sign of Victory)

셋째로, 16-27절은 승리의 표징에 집중한다. 16-27절은 벰호른 전투(1-15절)의 결과를 말하고 28-43절은 계속해서 전체 남부 전투의 중요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⁹

기브온을 공격했던 그 다섯 왕들은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었다. 이스라엘은 그 굴에 그들을 가두어 두고 그 굴을 지켰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벰호른에서 거둔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적들의 뒤를 따르며 그들을 거의 멸망시켰다. 그들이 막게다로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그 다섯 왕을 끌어내게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했다(24절).

이 행동은 야만 행위에 불과한 것도 아니고 기백있는 동작에 불과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성례이었다. 25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은 이 행동을 설명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싸우고 있는 모든 적들에게

⁹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 10 장에서 43 절을 마감하는 내용 곧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15 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사실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14 절 이후에 요단강 근처에 있는 길갈로 돌아 왔다가 16-43 절에 묘사된 전투를 위해 다시 남부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나는 성경 저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간략하게 말하면 나는 15 절을 이야기의 한 부분을 마감하는 결말로 간주한다. 이야기는 16 절에서 다시 전개되며 나머지 절들과 함께 42 절까지 가나안의 남부에서 있었던 초기 전투의 속행은 물론이고 확장된 전투의 요약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16-42 절을 마감하는 결말로 43 절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한 부분의 결말로써 6-14 절(남부 초기 전투)을 마감하는 15 절과 16-42 절(남부 후속 전투와 확장된 전투)을 마감하는 43 절은 병행되고 있다. 히브리 내러티브는 자주 사건의 요약으로 시작하고 그 사건을 보다 더 자세하게 확장하기도 하고, 중심 사건에 대한 다소 간단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그 사건의 결과를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한다. 나는 이것을 히브리 내러티브의 요약-확장의 형식이라고 부른다. 독자의 확인을 위해 들 수 있는 예들은 창 14:1-4/5-12; 21:22-24/25-32; 37:5/6-8; 출 14:1-4/5-30; 민 13:1-3/17-20; 수 21:4-7/8-40; 삿 4:12-16/17-22; 20:29-36a/36b-48; 삼상 14:6-23 (or, 20-23)/24-46; 삼하 2:12-17/18-32; 18:6-8/9-18 등이다. 그러므로 수 10:6-15(남부 초기 전투)과 10:16-43(남부 후속 전투와 확장된 전투)도 요약-확장이란 구조를 따른 것이므로 15 절에 대하여 머리를 써서 임시 변통의 어떤 설명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었드린 왕들의 목을 밟은 지휘관들의 발들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확실히 그들의 모든 적들을 그들의 발아래 두실 것에 대한 행동화된 비유요, 확신하게 하는 표징이었다. 이 상징적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뚜렷한 격려이었다.

물론 어떤 회의론자는 하나의 단순한 상징적 동작 안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동작이 믿음을 재보증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다고 인정해야 한다. 어떻게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가 노아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라고 느낄 수 있게 했는지(창 9:11-17) 혹은 어떻게 수많은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을 자손에 대한 아브람의 믿음을 불러 일으켰는지(Gen. 15:1-6)는 신비로 남아 있다. 성례는 회의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믿음을 위한 받침대로서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차가운 논리에 의해 우리를 확신시키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에 의해 우리를 양육하도록 의도되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하고 그의 도우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의도된 것이다. 어떻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탱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가를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밟은 이스라엘인들의 흠문은 발들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적들에게 행하실 일”이라는 새로운 격려를 제공한다.

이것에 대해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다. 25절에서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준 격려는 그가 전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에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1:9)”고 하였고 반복적으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1:6, 7, 9).”고 하셨다. 지금 여기서(10:25) 여호수아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격려를 물려주고 있다(cf. 고후 1:4).¹⁰

IV. 정복의 방식 (10:28-43 The Manner of Conquest)

마지막으로, 정복의 방식에 대하여 조금 주목해 보자.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거의 전적으로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28-39절에서 저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공격하고 멸망시킨 6개의 성읍을 선별하지만 40-41절에서 남부 전투의 지리적 경계들을 요약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복이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개별 지파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정복의 일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사사기 1장에 이르렀을 때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43절에 의하면 남부 전투를 마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과 이전의 여리고 근방에 있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한 행동은 여호수아가 그 시점에 남부 땅을 점유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승리의 현장들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그 지역들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갖지 못한다(다시 말하면 그들이 결국 거기에서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¹⁰ 이 요점에 대하여 나는 나의 제자 존 토스(John Toth)에게 빚지고 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세력의 중심을 꺾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42절의 [파암 에하트]라는 어구는 이 주장을 지지해 준다. 이 어구는 자주 “한 번에(‘at one time’ RSV, NASB)” 혹은 “한 전투에(‘in one campaign’ JB, NIV)”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제프리 니하우스는 [파암 에하트]의 용례를 세심하게 연구하여 그 어구가 구약의 관용어법에 따라 수 10:42에서 “한 번(once)” 곧 “한 번(one time)”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모두 한꺼번에 그 땅을 취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한 번 취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지역들을 다시 취하기 위해 나중의 전투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암시한다.¹¹ 그러한 경우 계속되는 지파의 노력들이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10 장의 강조점은 여호수아가 그 땅 혹은 성읍들을 “취했다(히브리어 [라카드])”는 사실에 있다. 그가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나카])” “그들을 진멸 아래 둔([하람])” 것이 확실하지만 전반적인 강조는 여호수아가 성읍들과 땅을 취했다는 것이다(28, 32, 35, 37, 39, 42 절). “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라카드]는 “소유하다, 추방하다, 쫓아내다”와 관련있는 어근 [야라시]와 세심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야라시]는 사사기 1 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지역의 효과적인 점유를 뜻한다. 정복에 대한 문제는 주로 이 두 동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구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라카드]된 것은 후에 다시 [라카드]될 필요가 있지만 [야라시]된 것은 최종적인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것을 원하는 독자들은 아래 각주를¹² 살펴보면 될 것이다. 취하는 것은 결코 미미한 성취가 아니며 이것도 역시 여호와와 선물이다(30, 32, 42 절).

¹¹ Jeffrey Niehaus, “*Pa’am ’Ehat* and the Israelite Conquest,” *Vetus Testamentum* 30 (1980): 238. 또한 존 브라이트(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108)가 후기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이집트의 가나안에 대한 정복들에 관하여 말한 것을 참고하라. “정복이 효과적인 조직화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스라엘도 동일한 필요에 직면하였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인가?

¹² 다음은 내가 이전에 연구한 것(“A Proposed Life-Setting for the Book of Judges,” University Microfilms [1978]: 94)을 약간 고친 것이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소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야라시]는 “취하다, 획득하다”는 의미의 동사 [라카드]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다른 뜻을 나타내므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두 책에서 성읍이나 지역을 취하는 것과 지역을 점유하거나 족속들을 추방하는 것을 언급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들의 통계 자료는 이렇다. [라카드]의 파알 어간은 여호수아서에서만 14 번, 사사기에서만 4 번, 그리고 병행 본문들에서 2 번 사용되었다. [야라시]의 파알 어간은 여호수아서에서 12 번, 사사기에서 8 번 사용되었다. [야라시]의 히프일 어간은 여호수아서에서만 10 번, 사사기에서만 11 번, 그리고 병행 본문들에서 5 번 사용되었다. 이러한 두 책의 두 동사의 사용 분포에 대한 연구는 [라카드]가 초기 정복을 포함하고 [야라시]가 계속적인 노력 혹은 영구적인 정착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왜 오늘날 용사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가?
2.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 그리스도는 자신을 용사로서 계시하시는가?
3.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실 때 당신은 놀라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어떻게 성례(세례와 성찬)가 당신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시키는가?
5.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승리를 볼 때 당신은 자주 다시 돌아가 같은 일에 대한 또 다른 승리를 해야 하는가? 그러한 '재승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 19:47 에 나오는 단 지파의 레셈(라이스)에 대한 공격의 경우 전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단 자손이 올라가서([알라]) 레셈과 싸워([라함]) 그것을 점령하여([라카드]) 칼날로 치고([나카]) 그것을 차지하여([야라시]) 거기 거주하고(야샤브) 그것을 단이라고 이름지었다(카라).”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의 순서는 [라함]과 [나카] 사이에 있는 [라카드]는 살륙의 시작과 관련이 있고 [야샤브]가 뒤따르는 [야라시]는 영구적인 거주와 관련이 있다. 다른 본문들(예: 수 13:1; 18:1-3; 23:4-5)을 문맥에 따라 세심하게 살피면 동일한 추론을 얻게 된다. 수 21:43 만 이런 구별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요약 진술로서 갖는 절의 성격으로 인해 정확한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사 1:18 의 전통적인 히브리 본문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사 1:18 과 사 1:19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일을 언급하기 때문에 두 절이 상충되지도 않는다. [라카드]와 [야라시]가 바르게 구별될 때 사 1:8 과 사 1:21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어려움도 없다.

10. 병거도 말도 없이 이긴 북부 전투 (수 11:1-15 Not by Chariots, Not by Horses)

이제 전투는 팔레스타인의 북부에서 일어난다.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결의한 연합 전선의 주모자이다. 하솔은 분명코 이 연합국들 중의 주도적인 파트너였다(참조, 10 절). 긴네롯(갈릴리) 바다의 북쪽으로 약 10 마일 떨어진 텔 엘-케다에 위치한 하솔은 중기 청동기의 전성기때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에 이르는 주요 도로인 비아 마리스의 주된 부분들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던 광범위한 지역으로 윗 도시는 약 30 에이커였고 아랫 도시는 약 175 에이커였고 추산되는 인구는 4 만명이었다.¹ 존 J. 빔슨은 여호수아가 주전 1430-1400 년경에 멸망시킨 것이 바로 이 중기 청동기(MB II C)의 하솔이었다고 주장했다.²

언급된 다른 지역들의 일부 곧 1 절의 마돈과 악삽과 같은 성읍은 확실하게 위치를 밝힐 수 없다. 그러나 (상 요단 계곡인) 긴네롯의 남쪽 아라바(2 절), 지중해 연안 갈멜산 근처 도르 지역(2 절), 대도시 시돈(8 절), 그리고 이전의 홀레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한 헤르몬 산(3 절)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주요 전투를 상 갈릴리와 하 갈릴리의 전체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게 한다(*The New Layman's Bible Commentary*, map 8, p. 322 을 보라).

I.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 (11:1-5 The Opponents of God's People)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을 묘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는지 살펴보자.

잠시동안 1-5 절에 대하여 주의깊게 생각하고 나서 다시 그것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라.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저자가 그렇게 많은 잉크를 사용하여 그렇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밝히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겨 본 적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는 여러 왕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장소들을 밝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종족 그룹을 지적하며 당신의 매우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는 그들이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그들의 말과 병거가 심히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저자는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그의 동맹국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불렀다.”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에게 휴식을 주고 당신의 성경을

¹ Yigael Yadin, ‘Hazor’, *Archaeology*, Israel Pocket Library (Jerusalem: Keter Books, 1974), 92.

² John J. Bimson, *Redating the Exodus and Conques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Supplement Series 5 (Sheffield, 1978), 185-200. 빔슨의 주장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Bichrome Ware and Ceramic Chronology 이색 (二色) 도기와 도자기 연대”에 관한 제 5 장(147-183 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더 가볍게 하는 간결성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저자가 그렇게 했다면 본문은 그것의 펀치(=큰 효과)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당신이 알다시피, 당신이 그 적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느끼기 시작하고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이스라엘이 직면한 거의 가망없는 상황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이 확장되고 자세하고 개별적으로 상술하는 묘사를 읽는데 있다. (우리는 성경이 자주 단지 우리의 두뇌에 정보를 주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열중에는 동기가 있다. 독자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대한 자원들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은 그들의 손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여호와와 능력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해 준다. 우리가 가나안의 숫적인 우세(4 절 전반절)와 기술적인 우세(4 절 후반절)를 분명하게 볼 때, 우리는 여호와와 강한 오른 손이 텅빈 메타포(은유)가 아님을 깨닫는다. “당신이 당신의 적들과 싸우러 나가서 당신의 것보다 더 큰 군대와 더불어 말들과 병거들을 볼 때, 당신은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애굽 땅으로부터 당신을 인도하여 내셨던 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신 20:1).”

II.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에너지 (11:6-7 The Energy in God's Sovereignty)

둘째로, 6-7 절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에너지에 대한 암시적인 인정을 담고 있다. 6 절과 7 절을 나란히 두고 보라. 6 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주권적 확신 즉 “내가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다. 7 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갑자기”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아마도 밤에) 기습 공격을 하며 적진으로 돌진한다. 나는 본문을 지나치게 과장하려는 뜻은 없다. 그렇지만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행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극시킨다(10:8-9 에 대한 해설을 보라).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확실히 일어날 것으로 정하셨다면 그것은 인간 편의 노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 그의 관점은 일이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모할 정도로 거리낌이 없는 지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노력을 불러 일으키는 확신을 준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현실이고, 질식시키는 구름이 아니라 생기를 북돋는 영약(靈藥) 같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영민함과 야빈의 지리적 상황에 대하여 조금만 살핀다면 이 전투를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메롬 물 가”에 있는(7 절) 야빈의 진영에 있는 군대를 공격했다. 우리의 목적상 메롬이 메리운(Meirun/Meiron)에 위치한 것인지 아니면 마룬 에르 라스(Maroun er Ras)에 위치한 것인지³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두 장소 모두 (하나는 남서쪽으로, 또 하나는 북서쪽으로) 하솔로부터 7-8 마일 떨어져 있다. 요점은 메롬이 해발 약 4 천 피트의 높이에 있고 병거를 움직이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 갈릴리에 있었다는 것이다.⁴ 메롬은 야빈의 군대를 위한 한 집결 장소에 불과하고 그들은 좀 멀리 떨어진 남쪽 곧 가나안의 병거들(오늘의 탱크들)이 실전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에스드랄론(Esdraelon)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교전하려고 했을까?⁵ 어쨌든 여호수아의 전격전은 병가들이나 말들이 줄 수 있는 전술상의 유리한 입장을 무력화시켰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하여(6 절) 사람의 두뇌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7 절).

III. 하나님의 도우심의 충분성 (11:6, 9 The Sufficiency of God's Help)

셋째로, 적들의 말들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버린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충분성을 강조한다(6, 9 절).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은 말이 더 이상 전투에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뒷다리들의 무릎 뒤의 큰 힘줄을 잘라버리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것이 그들이 가나안의 고급 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말들과 병거들을 사용할 줄 몰라

³ 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 and en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225-226 을 보라. 유익한 논의를 위해 메리운을 선호하는 Gus W. Van Beek, 'Merom, Waters of', *IDB*, 3:356 과 마룬 에르 라스를 선호하는 Anson F. Rainey, 'Merom, Waters of', *ZPED*, 4:192-193 을 보라.

⁴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191.

⁵ 존 그레이(John Gray, *Joshua, Judges and Ruth*, New Century Bible [Greenwood, S.C.: Attic, 1967], 119)는 “갈릴리의 산들과 같은 거친 땅에서 병거는 분해되고 적당한 지역에서 다시 조립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한 이집트 문헌(James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477)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나는 물자가 병거들을 사용하기에 보다 적절한 곳으로 수송 중인 때 여호수아가 공격을 감행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것들을 무력화시키고 파괴했다고 주장한다.⁶ 그러나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사른 것은 경계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 이스라엘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로 그러한 도움의 방식들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⁷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 20:7; 사 31:1-3 도 보라).” 인간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정상적인 수단을 금하심으로써 여호와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에게만 의지하도록 가르치셨다(시 121 편). 이 요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대리하는 인간의 능동적 행위를 가르치는) 6-7 절의 요점과 상반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주신 단언에 대한 믿음 가운데 행하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지만(7 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대용품으로 인간적 병거를 사용하는 것을 정말로 금하고 있다(6 절 하반기, 9 절).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어쨌든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그들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시 121:2)는 것을 인정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의지가 되는 것들을 부인하도록 하신다.

IV. 하나님의 종의 모델 (11:12, 15 The Model of God's Servant)

넷째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의 모델로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12 절은 암시를 하고 15 절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였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실행했다(15 절).” 이에 해당되는 명령은 출 34:11-16; 민 33:51-54; 신 20:16-18(참조, 민 27:18-23; 신 3:21-22; 31:7-8, 23) 등에 나온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가나안의 본토 족속들을 죽이고/죽이거나(수 11:10-12, 14 하반기) 추방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명령을 쓸데없이 부도덕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나안 전역에 퍼져있는 전염성이 강한 영적인 암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친절하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⁶ H. W. Lay, ‘Hamstring’, *ISBE* (rev. ed.), 2:608; cf. Yehezkel Kaufmann, *The Religion of Israel* (New York: Schocken, 1960), 252-253.

⁷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trans. Henry Beveridge, in vol. 4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81), 169 그리고 Woudstra, *Joshua*, 191 을 참고하라.

우리는 트렌트 C. 버틀러의 말에 동의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정복 내러티브들(2-11 장)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킨 것에 대한 기념비로 서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 지도자들을 위한 목표로 서 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율법을 제정하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율법을 받아들이는 자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다.”⁸ 수 11: 15 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종의 모델이 있다. 그의 주요한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자극이 없고 비위협적이고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들과 (개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지도자를 특징짓는 것이 그의 병거의 힘의 크기나 그의 왕궁에 있는 여인들의 수나 왕궁 동물원에 있는 공작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신실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로서 서 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적 성공이라는 그럴싸한 기준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는 요일 2:3 의 말씀이 여전히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신 예수님조차도 다른 표준이 없었고 “나는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한다(욥 8:29).”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우리의 산란한 의사 일정들로부터 수많은 이차적인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높은 표준과 자유롭게 하는 정화가 동시에 있다.

나는 정복의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평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1-15 절 안에 이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본문은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하솔을 불살랐고 하솔만 불살랐다고 설명한다. 이는 13 절이 “이스라엘이 산 위에 세운 모든 성읍들을 불사르지 않았다.”라고 단언하고 있는데서도 확인된다. 나는 여기 “모든 성읍들”이 북부 전투에서 정복한 성읍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하솔만 불태워졌고 나머지 성읍들은 불태워지지 않았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에서 정복을 실행한 것에 비추어 정복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을 할 수 있다.

첫째로, 불사르는 것과 관련하여 성경의 내러티브들이 비교적 침묵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리고(6:24), 아이(8:28), 그리고 하솔(11:11)은 구체적으로 불태워졌다고 언급되어 있다. 나는 다른 성읍들도 불태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하솔 이외에는 북부 성읍들의 어떤 것도 불사르지 않았다고 말해 준다(11:11, 13). 이것이 바로 전체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취한 패턴이 아니었을까? 물론 우리는 침묵으로부터 논증하는 것을

⁸ Trent C. Butler, *Joshua*,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129.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언급된 북부에서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화되지 않은 가정이 아니다.

정말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은 고고학에 근거하여 정복을 재구성하며 이스라엘의 관례가 정복된 성읍들을 불사르는 것이 틀림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발굴된 유적들은 베델, 드빌(의심스럽지만 이것이 텔 베이트 미르썸과 동일시된다면), 라기스, 에글론(이것이 텔 엘-헤씨이라면), 그리고 주전 1250-1220 년의 하솔의 불사름과 극도의 파괴를 보여준다. 어떤 그룹에서는 이 파괴를 이스라엘의 정복에 돌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⁹ 그러나 무슨 근거로 (성경 본문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세 성읍을 불살랐다고 하여 그들이 모든 성읍들을 혹은 대부분의 성읍들을 불살랐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특히 성경 본문이 예를 들어 드빌이나 라기스를 불살랐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가정할 수 있는가? 특히 본문이 분명하게 그들이 하솔 이외에는 어떤 다른 성읍도 불사르지 않았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전부 불살랐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설령 논쟁을 위해 우리가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정복된 성읍들을 불살랐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13 세기 후반의 파괴가 이스라엘의 것으로만 돌려질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한 불사름은 해양 민족의 침입이나, 가나안의 통제를 위한 애굽의 시도나, 도시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의 결과일 수도 있다.¹⁰ 우리는 불사르지 않음이 가나안이란 전자 레인지에 단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의 결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아무도 명함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 있는 (불사름의) 원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선동자이었다는 것을 확립하기는 어렵다.¹¹

둘째로, 이스라엘이 모든 성읍들을 불사르는 일을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그 땅에 정착할 것이라면 그들이 성읍들과 집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요단 동편의 정복 후에 그들이 실행한 것은 이것을 드러내고(민 21:25), 그들의 율법이 이것을 기대하고(신 6:10-12; 19:1), 북부 전투에서 불사름을 억제한 것이 이것을 가정하고(수 11:11, 13), 그들의 지도자가 이것을 선언한다(수 24:13).

⁹ 이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위해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130-132 을 보라.

¹⁰ Bimson, *Redating the Exodus and Conquest*, 53-56 을 보라.

¹¹ 이 논쟁에서 나는 정복의 역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을 재구성하고 있는 한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논쟁은 성경의 묘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의 늦은 연대설(주전 13 세기)에 대한 주요한 근거들의 하나를 잘라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물질 문명의 대대적인 파괴라는 관점에서 정복을 볼 수 있는 많은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성경의 증언은 확고하게 이 입장을 지지한다. 이스라엘이 모든 바알의 신전들과 아세라 사당들을 헐어버려야 했다고 할지라도(출 34:13-16)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의 집에서 잠자거나 가나안의 성문에서 법정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당신은 여호와와 강한 오른팔이 오늘의 문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의 적들에 대항하여 작용하는 것을 보는가?
2. 여호와와 주권은 당신으로 될 대로 되라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가 아니면 기회를 붙잡도록 하는가?
3. “당신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 to put feet to your prayers”이란 어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충분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당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4.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했던 지도자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여호수아가 성읍들의 전부를 불사르지 않았다면 이 세 성읍만이 불태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정복한 성읍들의 전부를 불사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11. 전쟁의 요약 (수 11:16-23 War Wrap-up)

이 단락(수 11:16-23)은 하나의 독립된 단위이다. 이것은 단락을 시작하는 16 절과 마감하는 23 절에 “이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단락은 전체 정복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16 절과 17 절에 “산지”와 네겟(남부)과 할락산(사해의 남서쪽)과 헤르몬산(북쪽)에 대한 언급은 여기 요약이 11:1-15의 북부 전투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단락의 중심 관심사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I. 여호와와 소명의 요구들 (11:18 The Demands of Yahweh's Call)

첫째로, “여호수아는 오랫동안(직역: 많은 날 동안) 이 모든 왕들과 싸웠다.”라고 말하는 18 절은 여호와와 소명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조지 부시의 다음 말은 정말 옳다.

저자가 여기에 이 진술을 한 것은 이 전쟁들에 대한 기록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행된 시간의 길이도 역시 짧았을 것이라는 인상을 독자들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¹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압축되어 있는가를 잘 깨닫지 못한다. (성경은 운반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야 했다.) 그래서 별 의심없이 읽는 독자는 (대부분 압축된 보고들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 10-11 장을 읽는데 20 분도 채 안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18 절은 정신적 교정제로서 역할을 감당한다. 정말로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싸웠다.”

그 당시 정복은 격렬하고 많은 것이 요구되고 오랜 과정이었다. 당연하게도 여호수아 2-11 장은 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는 그것이 한 뜨거운 여름 한철에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²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 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출 23:29-30; 참고, 신 7:22).”고

¹ George Bush, *Notes, Critical and Practical, on the Book of Joshua* (Chicago: Henry A. Sumner, 1881), 136.

² 정복하는데 5 년에서 7 년이 걸렸을 것이라는 계산에 대하여 주석들을 보라.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지만 그것은 그의 백성으로부터 인내와 끈질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

여기서 나는 안개 자욱한 영해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패턴들 중의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빠른 순간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참조, 빌 2:13). 그러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순전하고 영속적인 신실이 요구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날들은 여전히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수업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히 10:36)” 이유이다

II.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의 두려움 (11:19-20 The Fearfulness of Yahweh's Hardening)

둘째로, 19-20 절은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강조한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 유일한 자들이다.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마주쳤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저자는 기브온을 적절한 반응의 모델로서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기브온을 보편적인 반응에 대한 예외로서 언급한다.³ 본문이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왜 가나안의 성읍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마주치려는 열정에 사로잡혔는가를 설명하고 어떻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 자신의 파멸의 길로 들어갔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본문의 신학은 그 문제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여호와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파멸당하도록 하셨고 그들이 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하셨고⁴ 그들이 전멸되도록 하셨다.

20 절에서 우리는 때때로 천벌에 의해 완악하게 하는 것(judicial hardening)이라고 불리는 것을 갖고 있다. 가나안 족속의 은혜의 시대(창 15:16)는 지나가 버렸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고

³우리는 19 절 상반절을 가나안 성읍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를 기대하거나 심지어 이스라엘에 의해 먼저 평화 조약이 제안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절은 원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한 성읍이 평화를 추구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그 성읍을 살려 두도록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52 을 보라.

⁴ RSV(개역표준역)는 그들이 “자비를 받지 못하도록 should receive no mercy”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tehinnah*[트히나 תַּחֲנוּן]의 주요한 의미는 단순히 “은혜” 혹은 “자비”라기보다는 “은혜에 대한 탄원” 혹은 “은혜에 대한 간청”이다.

그들의 우상숭배적이고 성적으로 빗나간 예배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와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 그들이 그러한 반항 가운데 있음을 확실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파멸당하도록 인도하셨다. (출 4-14 장의 바로와 비교해 보고, 바울이 롬 1:24, 26, 28 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것과 비교해 보라.)

그러나 “그들을 전멸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본문의 완전한 대담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것이 평온을 어지럽히고, 불쾌하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누가 하나님께 그토록 주권적이 될 권리를 주었는가?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에 걸려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이 본문의 뚜렷함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당신이 신약으로 달려감으로써 이러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거기서도 당신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히 3:12-13). 당신은 그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III. 우리의 근심의 불필요함 (11:21-22 The Needlessness of Our Fears)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근심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를 본다. 당신이 어느 아낙 자손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아낙 자손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등골이 오싹해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자들이었다(민 13:28, 31-33; 신 1:26-28; 9:1-2). 40 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도 이 거대한 역센 자들을 대항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확신했다. 이스라엘의 사전에 아낙 자손은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존재이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1 장에서 아낙 자손들을 만나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멸절하였다’”는 것을 읽는 것이 그렇게 흥미로운 이유이다.⁵ 16-23 절이 전체 정복의 전반적인 요약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정복의 개관의 마지막 기재 사항이 아낙 자손들의 정복인 것을 보는 것은 흥미진진하다. 여기서 하나님은 민수기 13 장의 세대의 근심과 불신이 근거없는 것임을 폭로하신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근심의 대상들이 여호와의 능력의 지배 아래 있다.

나는 당신의 삶에 있는 거인들에 대하여 마음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본문을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또 이 본문이 적용되지 않은 채로 남겨

⁵ 수 11:21-22 의 수 15:13-19 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는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197-198 을 보라.

두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확실히 이 본문은 적어도 우리에게 여호와와 능력이 우리의 가장 무서운 근심의 대상을 대하는데 충분함을 확신시켜 준다.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다른 면도 있고 같은 면도 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상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충분하심은 똑같다.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에서 존 번연은 기독교가 머물기를 희망했던 아름다운 궁전에 대한 그의 접근을 묘사한다. 그는 토기장이의 오두막집으로 인도하는 매우 좁은 통로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그 때 그는 두 마리의 사자가 길에 있는 것을 보았다. 번연은 부가적으로 "사자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는 그 쇠사슬을 보지 못했다."라고 덧붙인다. 그것이 바로 자주 우리의 경우이다. 우리가 그 쇠사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엡 1:20-22) 사실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모든 세력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쇠사슬을 보지 못한다.

I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혹은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당신은 참을 수 있는가 아니면 참을 수 없는가?
2.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3.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은혜에 대한 간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가?
4.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 두려움의 대상들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5. 두려움이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움이 당신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2.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시도다 (수 12 Great Is Thy Faithfulness)

당신은 내가 12 장에 대한 해설을 하지 않고 지나감으로써 독자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12 장은 정말 따분한 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호르마 왕, 하나; 아랏 왕, 하나; 립나 왕, 하나; 아둘람 왕, 하나”와 같은 14-15 절과 같은 목록이 독자를 경건한 열정에 몰입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그러한 목록이 당신에게 사무실이나 견인차에서 보낼 하루를 준비시켜 줄 수 있겠는가?

1-6 절로부터 시작해 보자. 요단 동쪽을 다스리던 이 두 왕들의 망령을 되살아 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혼의 영토는 대략 요단 동편의 절반인 남쪽을 차지하였고, 거인이었던(참조, 신 3:11) 옥의 영토는 나머지 절반인 북쪽을 차지하였다. 이들에 대한 정복 기사는 민 21:21-35 에 나온다. 이 정복에 대한 모세의 해설은 신 2:26-3:11 에 나온다.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영원한 자리를 차지한 것과 똑같이 시혼과 옥은 이스라엘의 찬양과 기도에 나온다(시 135:11; 136:19-20; 느 9:22; 참조, 신 31:4). 그러나 여기서 그들을 무덤에서 파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죽은 왕들이 그대로 누워 있도록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I. 여호와와 백성의 통일성을 지키라 (12:1-6 Guard the Unity of Yahweh's People)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은 저자가 여호와와 백성의 통일성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이다.¹ (1:12-18 에 대한 해설을 보라.)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은 그들이 서쪽 지파들에 의해 비이스라엘인으로 간주되고 가나안 본토에 정착한 대부분의 지파들이 그들을 여호와와 백성으로부터 배제할 날이 오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22:21-29).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정복된 왕들의 개관에 시혼과 옥의 정복에 대한 기사를 포함시켰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단 동편에서도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도 살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회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교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같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기껏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류 양들(Christ's subflock)로 강등시키는 고전적인 어려움이 항상 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카리스마주의자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¹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200.

이런 일은 한 지역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 가운데서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이 그 교제 가운데 속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거나 그런 인상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일은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들(참조, 약 2:1-9) 때문에 비롯되거나 그들이 인성이나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비롯되었을지 모른다. 그들이 명랑하고 활기차고 낙천적이고 중산층이고 삶에 자신만만한 분위기를 풍겨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이 이혼했거나 별거 중에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들이 내부 그룹에 있는 사람만큼 성경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실패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만한 고린도교인들에게 그들 자신을 똑바로 보라고 말했던 이유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 . .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택하셨고 . . .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낮고 천한 것을 선택하셨다(고전 1:27-28).”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옛적의 시혼과 옥이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

II. 여호와와 약속의 정확함을 변호하라 (12:7-24 Vindicate the Fidelity of Yahweh's Promise)

둘째로, 여호수아 12 장은 여호와와 약속의 정확함을 변호할 의도를 갖고 있다. 그 대부분이 정복된 31 명의 왕들을 열거하고 있는 7-24 절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그 목록은 단조롭게 보일 뿐이지만 그것에 대하여 존 칼빈은 바르게 평가했다.

그러나 비록 여기 요약적으로 언급된 것들이 각각 이전에 보다 상세하게 묘사되었을지라도, 여기 우리 눈 앞에 그것을 놓은 것에 대한 매우 좋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생한 그림으로서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창 12:15; 18:15; 20:18).”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완전한 비준과 성취를 증명하고 있다.²

여호수아 12:7-24 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오래된 약속(창 15:18-21)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셨던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롬 4:21).” 이 절들은 단조로움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흥분으로 들먹들먹하고 있다. “답부아 왕, 하나; 헤벨 왕, 하나(17 절)”—이 단어들은 따분한 옛 기록에서 발췌한 것이 아니고 한 노래의 가사들이다! 7-

²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trans. Henry Beveridge, in vol. 4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81), 178.

24 절은 "Great Is Thy Faithfulness(당신님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라는 찬송[=찬송가 393 장, 오 신실하신 주]의 이스라엘판(版) 가사들을 형성하고 있다. 여호와와 옛 말씀이 신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III. 여호와와 선하심의 명세화를 준비하라 (Provide an Itemisation of Yahweh's Goodness)

또 하나의 다른 요점은 우리의 두 번째 관찰과 관련이 있다. 정복된 왕들의 상세한 목록은 여호와와 선하심의 명세를 밝히는 일을 하고 있다. (위에 인용된 칼빈의 말을 보라.) 우리가 말해 온 바와 같이 이것은 단조로움이 아니고 감사이고, 일반화가 아니고 구체화이고 상세화이다. 정복된 각각의 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각 항목은 여호와와 능력의 표징이고 이스라엘의 찬양의 원인이다. H. L. 엘리슨은 이것에 대하여 잘 말하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하여 기꺼이 감사드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교회가 기꺼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감사를 마음껏 드리려고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행동별로 그리고 항목별로 인식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했다면 우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더 높이 생각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많은 낙심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셨는가를 보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다.³

여호와와 선하심을 항목화하는 것은 항상 성경적 믿음의 방법이다(시 105 편, 135 편, 136 편을 보라). 믿음이 자라고, 고무되고, 더 많은 자비를 기대하는 새로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믿음이 세부적으로 감사들을 드리는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 "많고, 많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와 같은 시시한 표현들을 제거해야 한다. 대신에 그런 복들의 하나나 둘을 지적하라. 왜 우리가 그러한 일반적인 말버릇을 우리의 기도에 가지고 있는가(그리고, 더욱 더 나쁘게도,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가)?

³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 – 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13.

IV. 여호와와 승리의 도래를 기대하라 (Foreshadow the Coming of Yahweh's Victory)

여호수아 12 장이 그 당시의 정복을 요약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그것이 정복의 요약으로서 여호와와 승리의 도래를 예표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⁴ 여호와께서 시혼과 옥과 가나안 왕들에 대하여 거두신 승리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실(계 11:15)” 그 때에 대한 예고이고 보증이다.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적들을 물리치신 승리 하나 하나마다 그가 역사의 종말에 그의 모든 적들에 대하여 거두실 궁극적인 승리의 부분적인 묘사이다.⁵ 이것은 그의 고난당하는 백성이 그 웅대한 종국을 열망할 때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어떻게 교회는 몸된 교회 안의 통일성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가?
2.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 왜 이스라엘은 그러한 지속적인 확신을 필요로 하는가?
3.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의 신실하심을 확신시켜 주시는가?
4. “너의 복들을 세어 보라. 그것들을 하나 하나 말해 보라.”고 하는 찬송[= 찬 429 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이 있다. 당신이 받은 복들을 그렇게 항목별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암시하는가?
5. 구약에서 승리들을 보는 것은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마지막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는가?

⁴ Woudstra, *Joshua*, 200; Karl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3d ed. (Stuttgart: Calwer, 1965), 101.

⁵ 사사기 5 장 31 절—[(개역개정)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이 그것의 선행하는 문맥에 비추어 어떻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주목하라.

제 3 부

땅의 분배 (Possessing the Land)

(수 13-21 장)

13. 우리의 기업을 받는 것 (수 13 장 Receiving Our Inheritance)

우리는 13 장부터 여호수아서의 또 하나의 큰 단락인 제 3 부에 들어서게 된다. 제 3 부는 21 장까지 계속된다. 지금까지 다룬 것과 앞으로 다룰 것은 다음과 같이 3 부로 되어 있다.

1 부: 땅의 입성, 1-4 장

2 부: 땅의 정복, 5-12 장

3 부: 땅의 분배, 13-21 장

여호수아서의 가장 결연한 독자라도 13-21 장에 들어서면 무너지기 시작하고 꾸벅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쟁 영화를 보는 것이 땅의 측량에 참여하는 것보다 항상 더 흥미진진한 경향이 있다. 마른 땅같이 된 강바닥이나 무너져 내리는 벽에 대한 설명들을 읽으면 잠이 오지 않고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쨌든, 산지로부터 한 가나안 사람을 추격하는 것은 촌락들을 세고 경계들을 추적하면서 그의 이전 땅 위로 터벅터벅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땅의 분배를 보았을 것처럼 그것을 보아야 한다.

나의 서재에서 나는 오래된 나무 의자를 사용한다. 오래 전에 앉은 부분이 허물어져 그 부분의 틀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 견고한 메소나이트로 바꾸었다. 오래된 널판지 덩어리가 앉은 부분을 받칠 수 있도록 그 아래에 덧붙여졌다. 필요한 곳에 추가로 철망도 달았다. 누구나 별로 힘들이지 않고 부목(splinter)을 치울 수 있다. 지금 나의 서재가 당신의 서재라면 당신이 할 일들 중의 하나는 아마도 이 오래된 나무 의자를 없애버리고 '어울리는' 의자를 사는 일일 것이다. 왜 그런가? 그건 그 의자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건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손수 고치신 그의 의자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나에게 물려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에 흥미를 갖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바대로 나의 유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의자를 보듯이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다르게 보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런 각도에서 우리 스스로 여호수아 13-21 장을 보도록 해야만 한다. 당신에게 이 목록들과 묘사가 매우 따분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자료는 그들의 유산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들의 유산에 대해 무엇이 그렇게 따분할 것인가? 여호와와 "너희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 이제 (몇 세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를 눈으로 확인하며 시내들로 걸어 들어가고 성읍들을 셀 수 있었다.

13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3 장의 첫째 부분인 1-7 절은 13-21 장 전체의 서론이고, 둘째 부분인 8-33 절은 모세에 의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이미 주어진 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나의 강해는 이 구조적 차이를 무시하고 13 장을 하나로 묶어 전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I. 충분한 약속 (13:1-7 A Sufficient Promise)

첫째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충분한 약속을 받고 있는지를 주목하라(1-7 절, 특히 6 절 하반절).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얻을 땅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은 앞에 놓인 과업에 충분하셨다. 여호수아는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점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들의 특정 기업들을 배당하는 일만 하면 되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는 1 절을 읽고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얼마나 많은 일이 완수되었는지를 잊어버리기 쉽다. 남은 땅을 자세히 살피면 가나안 남서쪽으로 블레셋 해안 지대(2-4 상반절)와 북쪽으로 폭이 50 마일쯤되는 띠 모양의 지역(4-6 상반절) 곧 그 북쪽 끝이 다메섹 북쪽 거의 50 마일 되는 하맛에 이르는 지역이다.¹ 이 모든 땅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자리에 있다. 남아 있는 땅이 그렇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 부분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런 우위는 전면적인 것이 아니지만 상당한 것이었다. 분명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수행한 정복들은 힘의 공백을 야기시켜 이스라엘이 들어설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잇따라 정복을 계속 해야 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가 된 것이다(6 상반절-7 절).

그리고 지파들은 그들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그 과업을 하도록 내버려진 것이 아니고 “내가[강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6 절 하반절)”는 여호와와 그의 보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약속은 지도에 비추어 보면 좀 무모한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로 시돈의 북쪽으로 나아가 하맛까지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² 그러나 아브라함과 소수의 다른 사람들이 입증할 수 있었듯이 그 당시 여호와와 그의 약속들은 자주 무모한

¹ 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 and en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233-239 그리고 Yohanan Aharoni and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rev. ed. (New York: Macmillan, 1977), 50-51 을 보라.

² 민수기 34 장과 여호수아 13 장에 묘사된 북쪽 경계는 주전 14-13 세기 동안 이집트가 장악했던 가나안 지역의 경계이었다. Aharoni, *Land of the Bible*, 74-75, and *Macmillan Bible Atlas*, 41 을 보라.

듯이 보였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의지의 범위를 고려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의 한계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 1 장에서 여호와와 약속은 모세의 죽음을 앞에 놓고 주어졌고 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을 앞에 놓고 주어졌다. 여호수아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출입을 할” 수 없었다. 여호수아는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여호와와는 계속해서 충분하실 것이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 내가 그들을 쫓아 낼 것이다(1 절, 6 절).” 그의 종들의 죽을 운명은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력하게 하지 못한다.

II. 위험한 징후 (13:8-13 A Dangerous Sign)

둘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약해져가는 경계심 곧 위험한 징후에 주목해야 한다(13 절). 우리는 8-13 절에서 요단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에 의해 점유된 땅의 경계들에 대한 개괄적인 묘사를 보는데 13 절은 예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개역개정).” 그술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이고 마아갓은 그술의 북쪽이다. 우리는 나중에 이와 같은 진술을 더 많이 들을 것이지만(수 15-17 장; 사 1 장), 이것은 내가 초기 정복을 잇따라 수행하지 않은 지파의 실패를 비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련의 진술들 중의 첫 번째 것이다. 한 지역을 침략하여 정복하는 것과 지파에게 할당된 전지역을 점유하기 위해 상당 기간 꾸준히 힘쓰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13 절은 그저 평범해 보인다. 사실 불완전한 순종은 늘상 그래 보인다. 그것은 즉각적인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의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언이 있다. 우리는 자주 이상하리만큼 믿음의 큰 위기에서 신실하고, 심한 폭풍우 가운데 견실하고, 가장 심한 공격들의 자극을 즐기조차 하지만 믿음 생활의 지루한 일들에서 자주 요구되는 끈질김, 끈덕진 인내, 참을성있는 꾸준함이 부족하다. 자주 우리는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충실하기를 싫어한다.

III. 반복되는 격려 (13:8-33 Repeated Encouragement)

셋째로, 우리는 8-33 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격려의 말을 간파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는대로, 8-13 절은 요단 동편 땅의 경계들에 대한 개괄적인 묘사를 담고 있고, 나머지 절들은 보다 자세하게 르우벤 지파의 기업(15-23 절), 갓 지파의 기업(24-28 절),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29-31 절)을 묘사하고 있다. 대충 말하면, 르우벤 지파의 기업은 최남단에 위치하며 아르논 강에서 북쪽으로 헤스본까지 뻗어 있고, 갓 지파의 기업은 헤스본으로부터 위로

마하나임 곧 갈릴리 바다(긴네렛)까지 이르는 가늘고 긴 땅을 갖고 있는 (압복강 근처 혹은 강변의) 마하나임까지 뻗어 있고,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은 마하나임으로부터 위로 바산까지 뻗어 있고 바산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땅은 수많은 호수들, 강들, 계곡들, 평야들, 그리고 성읍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발람(22 절, 참조, 민 22-25 장; 민 31:8)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잘 알게 된 시혼과 옥에 대하여 거둔 승리들에 대한 반복적인 암시들(10, 12, 21, 27, 30-31 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 모든 지리적이고 지형적인 묘사를 하는 동안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승리들에 대한 계속적인 암시들이 있다는 뜻이다. 그 암시들은 이스라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어느 동시대의 적들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그의 인자하심이 현재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도 역시 지속되고 있음에(시 135:14; 136:19 하, 20 하) 대한 확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시혼과 옥을 다루셨는지를(시 135:10-12; 136:17-22) 기억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성경적 묘사이다. 여호와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신실하신 행위들을 암송하고 매우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은 견고함과 기대감을 찾게 된다.

IV. 참된 기업 (The True Inheritance)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참된 기업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레위인들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 같은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오히려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14 절)”(즉 “음식 제물” 혹은 “선물”?)³ 혹은 (매우 분명하게 언급된 것처럼) 여호와 자신(33 절)이다.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인이자라면 누구라도 무엇보다도 여호와 자신이 그의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의 분깃(시 142:5)”이고 정말로 그의 “영원한 분깃(시 73:26)”이라고 인식하며 이 레위인의 기업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참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인은 그의 토지 유산을 아주 하찮은 쓰레기로 간주하였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³ 보통 “화제물 offerings by fire”로 번역된 용어 [이세 'ishsheh תִּשְׁשֶׁה]에 대하여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9), 56 그리고 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6), 258-259 를 참조하라.

⁴ 여기 “분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הללק הללק]는 “기업”으로 번역된 [נחלה נחל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히려 믿음은 항상 토지를 여호와와 선물로 귀중히 여긴다(시 37:3, 9, 11, 22, 29, 34). 그러나 건전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은 그 기업(토지) 너머로 그것을 주신 분을 보며 여호와 자신보다 여호와와 선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므로 레위인 뿐만 아니라 보통 이스라엘인도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깃이십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설령 토지가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와 여전히 기업과 분깃으로 남아 계신다(애 3:24).

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당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하도록 유혹을 받게 하는 가능한 ‘한계들’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나이 많음, 가난한 장소, 등등)
2. 당신의 삶에 ‘작은 것들’이 억제되지 않은 채로 남겨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그것이 결국 당신에게 해가 될 것인가?
3. 우리가 죄와 사탄에 대하여 우리의 방어를 내려놓는 일이 바로 위기가 지나간 때에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4.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신실하신 행위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당신을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5. 신자로서 당신은 기업을 받았다. 당신은 구원을 주신 분보다 구원이란 선물을 더 많이 보고 있는가?

14. 기업 차지의 본보기 (수 14 장 For Example)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예를 들면, for example”이란 의미의 작은 라틴어 약자 *e.g.(exempli gratia)* 엑셈플리 그라티아 = ð:dʒi:[이지], fəˈrɪgzæmp[퍼리그잼플])를 만난다. 여호수아 14 장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e.g.[이지]인 것처럼 보인다. 이 장은 갈렙을 본보기로 들며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어떻게 초기 정복을 확장해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여러 지파들의 분깃을 확고부동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14 장은 가나안 땅(곧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다루는 부분을 시작하는 장이다. 이 가나안 땅의 분배는 14:1 에서 시작하여 19:51 에서 끝난다. 이 부분은 두 명의 신실했던 정탐꾼(민 13-14 장), 곧 갈렙과 여호수아가 각각 기업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갈렙이 그의 기업을 받는 것은 14:6-15 에 나오고 여호수아가 그의 기업을 받는 것은 19:49-50 에 나온다.¹ 그러나 14-17 장도 하나의 정해진 단락을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14:6-15 에 기록된 갈렙의 모험적인 믿음은 17:14-18 에 기록된 요셉 지파들의 망설이는 조심과 교묘하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갈렙 부분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1-5 절에 있는 서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4 절은 왜 9 지파 반만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받은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레위 지파는 거주할 성들만 받고 그러한 기업은 받지 못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 실제로 두 몫을 받았다. 12 지파에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빼고(-2½), 레위 지파를 빼고(-1), 두 몫을 받은 요셉 지파 하나를 더하면(+1) 9 지파 반이 되고 이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는다.) 2 절과 5 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민 26:55)” 행하며 9 지파 반이 기업을 나누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흥미롭지 못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순종에 대한 논평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더 일상적인 의무들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는 보다 더 걱정적이고 역동적인 사건들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유익한 정정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다. 여호와의 명령은 어느 하나라도 사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순종도 모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

¹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296.

I. 믿음의 헌신 (14:7-8 The Devotion of Faith)

이제 저자가 갈렙의 이상적인 믿음의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는 6-15 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믿음의 헌신을 본다.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열 두 정탐꾼들을 보냈던 일(민 13-14 장의 에피소드들)을 회상한다. 정탐꾼 대다수(10 명)의 보고는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다(8 절).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의 성읍들은 매우 견고하고 그들의 군사력은 막강하였다. 글썄, 이스라엘은 달라스 카우보이 프로 축구팀과 경기를 하는 중학교 축구팀에 불과하였다(민 13:31-33). 그러나 그 때 갈렙은 대담하게도 그 대세에 역행하는 발언을 했었다. 그 때 일을 회상하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러나 나는[강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말한다.² 이 단락에서 이 사실은 세 번이나 언급되고 있다(8, 9, 14 절). 그것은 믿음의 헌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그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을지라도 용감하게도 홀로 서서 소수의 보고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거대한 유령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것이 갈렙의 보고였다.

이러므로 믿음의 헌신은 용기와 기꺼이 홀로 서서 대세에 대항하려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믿음의 헌신은 믿음의 고독으로 인도하였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기 마련이다. 기독교 청소년들은 그들이 고등학교 문화의 도덕적-윤리적 흐름에 역행하여야만 할 때 그것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회사의 주말 방문객들을 위한 성접대 준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의 상사에게 그가 사직해야겠다고 말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말하는 기독교인 이사—이와 같은 사람은 이러한 고독을 알고 있다. 목사들조차도 이러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부모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교인의 손자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당신이 다른 장로들과 함께 대담하게도 어떤 교인을 교회의 권징을 받게 하지 않는가? 당신이 주님을 온전히 좇으려고 할 때 그와 동시에 교인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신된 믿음은 자주 고독한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내가 처음

² [역자 주] 히브리어 אַחֲרָיָהּ[밀레 아하레]는 “온전히/전심으로 좇다/따르다, to follow wholly[BDB]”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개역 개정은 8 절과 9 절에서는 “충성하였다”라고 번역하고 14 절에서는 “온전히 좇았다”라고 번역하고, 민 14:24 에서는 “온전히 따랐다”라고 번역하였다. NIV 는 수 14:8, 9, 14 와 민 14:24 에서 똑같이 “follow wholeheartedly”라고 번역하였다. NASB 는 수 14:8, 9, 14 와 민 14:24 에서 똑같이 “follow fully”라고 번역하였다. ESV 는 수 14:8, 9, 14 에서는 “follow wholly”라고 번역하고 민 14:24 에서는 “follow fully”라고 번역하였다.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덧붙였다(딤후 4:16-17).

그러나 나로 다시 당신을 잡아당겨 기원전 시대로 돌아가게 하라. 갈렙의 외로운 믿음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직후에 그들에게 강력하게 설교되었을 것이다(참조, 사 2:6-23). 점점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자연 숭배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 여호와와 명령들보다 바알의 성적 흥분들을 더 좋아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께 헌신된 남은 자들은 순응하고 타협하고 혼합주의의 길을 걸으라고 끌어당기는 힘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전혀 근간의 종교적 믿음과 생활의 예리한 우위에 있지 못했다. 그들은 홀로 서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갈렙을 기억할 수 있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일에 겁을 내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인간적 유리함으로부터 그를 고립시켰을지라도 말이다. 어떻게 이 갈렙 전승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많은 시점들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믿음을 자주 강화시켰을 것인가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II. 믿음의 닻 (The Anchor of Faith)

이 단락 내내 갈렙은 믿음의 닻을 언급한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까이 나왔을 때 그는 그의 요구가 그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6 절)”에 근거한 것임을 말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것을 회상하며 말했다. 10 절 상반절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와 10 절 하반절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와 12 절 상반절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과 12 절 하반절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9 절 상반절의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 . .”를 보라. 이렇게 다섯 번이나 갈렙은 이 점을 명심시킨다. 그의 요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에 대한 일이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근거하여 간청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린다. 믿음에 대한 다른 기반은 결코 없다.

전에 나의 새 신자반에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있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내기라도 하는 듯이) 나는 1 달러 지폐를 들고서 특별히 그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1 달러 지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나의 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줄 것인지 물어보았다. 내가 회상하는 바로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어떤이들은 내가 정말 그 진짜 지폐를 줄 것인지 물었다. 다른 이들은 누구나 나아가서 그 지폐를 받음으로써 믿음을 보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몸을 돌이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지폐를 주어야만 했다.

마침내 한 소년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걸어 올라와 그 지폐를 움켜 쥐었다. 나의 말에 의지하여 행동한 것—이것이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그것이 갈렙의 믿음이고 성경적 믿음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쉽게 실수들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감정들에 기초를 두려고 한다. 만일 그럴 경우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불신자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 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충분한 믿음을 갖게 되면 폭풍우를 뚫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만큼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는다(눅 17:5-6). 자명한 일이지만 [굳이 말을 해야 한다면] 믿음의 대상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³ 갈렙의 믿음은 성경적 귀감이다. 우리가 갈렙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며 간청할 것이다.⁴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들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시 130:5).” 우리는 우리가 매우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으로부터 나온 것을 신뢰해야 한다.

III. 믿음의 시각 (14:10-11 The Perspective of Faith)

갈렙은 10-11 절에서 믿음의 시각을 드러낸다. “이제, 보소서 . . .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개역개정).” 이것이 성경적 믿음의 방식이다—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갈렙은 12 절에 나오는 결정적인 요구를 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억한다. 여호와는 지난 45 년 동안 내내 그를 생존하게 하셨다(참조, 시 33:18-19).⁵ 이것은 전쟁을 치르고 광야를 지나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³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74), 256.

⁴ 나는 이 표현이 알렉 모티어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의 어느 작품에서 보았는지 기억할 수 없어 유감이다.

⁵ (개역 개정 시 33:18-19):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작은 보상이 아니다. 그리고 여호와와는 그가 늙었을지라도 여전히 그에게 복을 주시며 힘과 정력을 주셨다. 이것이 믿음이 사물들을 보는 방식이다. 믿음은 항상 과거를 보며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것을 현재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곰곰히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찬양하며 힘 위에 힘을 얻고 계속 나아간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여겨 보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다음 소명을 위한 은혜를 구한다.

IV. 믿음의 힘 (14:12 The Energy of Faith)

넷째로, 갈렙은 믿음의 힘을 드러낸다. 이제 그는 그의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 날에 들은 것처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⁶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주었다.

이 나이 많은 이스라엘 시민에게 있는 이러한 정력과 기대감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과거에 보여주신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갈렙의 생생한 기억은 그의 현재의 담대함을 설명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10-11 절). 그러나 12 절 자신이 갈렙의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그 과업의 극단적인 어려움이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이 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보고를 하던 그날에 당신과 내가 들었던 조롱들을 당신은 기억할 것이요. 크고 견고한

⁶ [개역개정]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새번역] “**이제** 주님께서 그 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NASB] “**Now then**, give me this hill country about which the LORD spoke on that day, for you heard on that day that Anakim were there, with great fortified cities; **perhaps** the LORD will be with me, and I will drive them out as the LORD has spoken.”

[저자의 번역] “**And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which Yahweh promised on that day, for *you* heard on that day how the Anakim were there and how there were large, fortified cities; **perhaps** Yahweh will be with me and I shall drive them out (or, dispossess) as Yahweh promised.” 저자는 갈렙의 말 가운데 14 절의 “and now”라는 표현이 두 번 사용된 10 절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오는 절정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성읍들과 거대하고 으스스대며 걷는 아낙사람들에 대하여 무서워하며 흐느껴 울던 것을 기억할 것이오. 그 당시 그들 모두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기업을 원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거기엔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실제로 살아 있는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민수기 13 장에서 이스라엘을 정복의 과업으로부터 물러서도록 했던 바로 그것이 갈렙에게 그것을 감당할 열정을 주었던 것이다.

나는 몇년 전에 *Presbyterian Journal* (장로교 잡지)에서 케네디 스마트가 말한 이야기를 읽었던 것을 기억한다. 한 미국 신발 회사가 한 판매원을 한 외국 나라로 보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귀국할 수 있는 돈을 보내달라고 전보를 쳤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그를 불러들이고 또 다른 판매원을 보냈다. 얼마 안 되어 그는 전보를 쳤다. “생산해 낼 수 있는 모든 신발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시장은 정말 무한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업이 오히려 갈렙을 자극하여 여호수아에게 그 과업의 성취를 위한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 13 장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주의자이었던 반면에 갈렙이 낙천주의자였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자가 되기를 거부하였던 반면에 갈렙은 신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하나의 다른 요인이 갈렙의 믿음을 부추겼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추측할 수 없는 호의였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12 절 하반절).”라는 갈렙의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갈렙의 “혹시”는 의심의 목소리가 아니고 기대감의 목소리이다.⁷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부사절은 그 결과가 확실한 것을 보여준다. 갈렙이 적을 쫓아내는데 있어서 여호와의 도구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참으로 요점에서

⁷ [역자 주] 14:12 하반절의 번역은 원문의 “[올라이] 혹시”라는 단어를 살리고 있는 개역이 이유없이 빼버린 개역개정보다 더 좋다. “마침내, 결국에는”이란 뜻을 갖는 개역의 “*פֶּלֶא*”은 원문에는 없다. 다음을 비교해 보라.

[원문] *וְהָיָה אוֹתִי הַיּוֹרְשִׁים כְּאִשֶּׁר דִּבֶּר יְהוָה* [올라이 아도나이 오티 브호라시팀 카아세르 디베를 아도나이]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개역]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פלע*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갈렙의 “혹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갈렙은 여호와를 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그의 심부름하는 종으로 보지 않고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유하시고 주권적이신 주님으로 보았다(시 135:6). 그러나 갈렙은 (예를 들어, 출 23:29-30 과 같은) 여호와와의 약속 때문에 여호와께서 적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교만한 것은 아니다. 성경적 믿음은 항상 이러한 긴장을 유지한다. 그것은 주권적이신 하나님께 구술하거나 자신을 위한 글을 써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해 주시면”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라는 그 문제에 대한 아주 분명한 약속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12 절의 갈렙의 말은 기대감이 넘쳐난다. “혹시 . . . 아마도 . . . 누가 알아 . . . 만일 내가 내 자신을 이 상황에 던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실지!” 계산기에서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기계적인 믿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나는 가정한다. 그리고 그 때 그의 백성을 그의 선하심으로 놀라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곧 그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험하기를 좋아하는 믿음이 있다.

V. 믿음의 모델 (The Model of Faith)

우리가 다루고 있는 14 장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17 장을 잠깐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17 장은 14:6-15 곧 갈렙이 믿음의 모델로 제시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기로 하자. 14-17 장은 유다 지파(14:6-15:63)와 요셉 지파들(16:1-17:18)이 기업으로 받은 요단 서편의 땅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여기에 저자가 아주 중요한 서론(14:6-15)과 마무리 부분(17:14-18)으로 둘러 싸는 큰 단락(14:6-17:18)이 있다. 서론은 갈렙의 확신을 말하고, 마무리 부분은 땅의 분배와 관련된 요셉 자손들의 불평을 말한다. 나는 이 두 부분이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대조라고 생각한다. 믿음의 주도권(14:6-15)이 두려움으로 인한 망설임(17:14-18)과 대비되어 있다.⁸

갈렙의 말(14:6-12)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혹은 모세가 말한 것에 대한 반복되는 언급(6, 9, 10 [2 번], 12 [2 번])을 듣고, 우리는 그것이 인기가 없을 때조차도 갈렙이

⁸ 우드스트라(Woudstra, *Joshua*, 267)는 대조되는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는가를 기억하고(8, 9, 14 절), 우리는 갈렙이 여호와와 도우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장애물들을 대면하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힘을 느낀다(11-12 절).

갈렙의 이러한 태도는 요셉 지파들의 불평(17:14-18)과 얼마나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여기에 큰 무리를 이루고 있지만(14 절) 열정이 부족한 지파들이 있다(15 절). 이와 대조적으로 갈렙은 늙었지만(14:10-11) 전쟁을 열망한다. 요셉 자손들을 겁먹게 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적 저항은 갈렙을 자극하여 전쟁을 하게 할 뿐이다(14:12). 한 큰 무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다른 한 사람에게는 자극이다.

그렇다면 14-17 장에 있어서 얼마나 정밀하게 14:6-15 이 긍정적인 선두를 이루고 17:14-18 이 부정적인 결미를 이루고 있는지를 주목하라. 저자는 두려움에서 야기되는 경계, 불평, 그리고 망설임과 대조하며 믿음의 이상적 반응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문제는 시급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땅을 점유하는 일의 도전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요셉 자손들의 망설이는 태도는 군사적 무기력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삿 1:27-36 을 보라) 이것은 결국 종교적 배교를 위한 여건들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삿 2:6-3:6 을 보라). 갈렙과 에브라임-므낫세 지파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인들에게 모델들과 양자 택일의 길들을 제시한다.⁹ 그것은 충성과 배교의 차이,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차이를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14-17 장을 지루한 고대의 지리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처럼 읽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14-17 장에는 그것들을 관통하는 기류 곧 신앙 혹은 불신앙의 위기가 들어 있다. 저자는 그가 열거하는 모든 성읍과 그가 추적하는 모든 경계선 배후에서 갈렙의 제자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VI.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좀 더 작은 명령이 간음하지 말라는 좀 더 큰 계명들보다 지키기에 더 어렵다는 것을 아는가?
2. 당신은 갈렙과 같이 고독한 믿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시간에 무엇이 당신을 지탱해 주었는가?

⁹ 여기서 나는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자손의 다음 세대(곧 사사기 세대)에게 설교 역할을 하였다고 대담하게 가정하고 있다. 이것의 정당함을 나는 여호수아서가 요시아 왕 때에 설교되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있다.

3. 때때로 성경적 믿음의 능력에 대한 혼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의 감정에 근거한 믿음, 믿음 자체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사이에 혼란이 있는가?
4. 당신의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여겨 보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다음 소명을 위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을 당신은 아는가?
5. 당신은 어떻게 여호와에 대한 성경적 믿음과 “적극적 사고의 능력”을 구별하는가?

15. 약속대로 받은 기업의 지도 (수 15 장 Promise Geography)

한 구약 신학자는 그가 약속 신학(promise theology)이라고 부르는 것을¹ 구약의 핵심과 정수로 본다. 좀 느슨한 유추를 해 본다면 여호수아 15 장은 약속 지리학(promise geography)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여호수아 15 장을 죽 읽어 내려갈 때 조금 지루한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고 시인한다. 그것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다루며 애정을 가지고 유다의 경계선들을 추적하고(1-12 절), 헤브론과 드빌에서 거둔 갈렙의 승리를 보고하고(13-20 절), 유다에 속한 여러 성읍들을 분류해서 열거하고(21-62 절), 무능력 혹은 실패에 대한 논평을 포함시킨다(63 절). 틀림없이 “마온과 갈멜과 십과 웃다(55 절)”와 같은 본문이 설교의 활력을 불어넣거나 마음이 훈훈해지는 경건의 사색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울 사도가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가 농담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확신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5 장은 유익한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영해적 첨가제를 가지고 그것에 양념을 치지 않아도 그것은 있는 그대로 유익한 것임이 틀림없다.²

여호수아 15 장의 메시지는 창세기 22 장이나 열왕기상 18 장의 메시지보다 풍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유익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I. 하나님의 약속의 세목 (15:1-12 The Details of God's Promise)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15 장이 하나님의 약속의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여호수아 15 장은 창세기 12 장과 15 장의 나무에 달린 꽃봉오리들 중의 하나이다. 땅에 대한 약속은 오래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창 12:6-7; 15:7-21), 자주 재확인되었고, 여호수아 1 장에서 다시 부상된다. 15 장에서 우리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의 일부분을 보고 있다. 독자는 15 장과 뒤따른 장들이 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성읍 이름과 경계 지점이 흥분으로 고동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결코 지루하게 할 리

¹ Walter C. Kaiser,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² 매튜 헨리(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71)가 13 장 서두에서 한 다음 해설을 참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딱딱한 이름들이 나오는 이 장들을 건너뛰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쓰신 부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얻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마도 현대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유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던 때는 화요일 아침이었다. 두드러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나의 두 아들은 그들의 아침 식사를 했다. 그것은 마 6:26의 성취라는 것이외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날은 또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날이었다. 우리에게 평소보다 많은 3개의 봉지가 있었지만 큰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이미 초조하게 만드는 만우절 농담을 했을지라도, 그녀 자신은 여호와의 언약적 약속(잠 19:14)의 살아 있는 성취이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상상력을 자극시키지는 않지만 유다의 경계선들과 성읍들처럼 그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작은 화신들이고 그러므로 결코 지루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II. 힘찬 믿음의 본보기 (15:13-19 A Paradigm of Vigorous Faith)

둘째로, 13-19 절은 우리에게 힘찬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갈렙은 그의 분깃을 받았다(13 절). 우리는 이미 14:6-14에서 갈렙이 그의 모험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14:6-14은 우리에게 갈렙이 헤브론을 접근할 때 그가 어떻게 해나갔는지 말해 주지 않았다.³ 여기 15:13-19은 그 부족한 설명을 보충해 주고 있다. 갈렙은 말로 믿음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따라 행동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공을 주셨다. 아낙 사람들에 대한 나의 11:21-22 강해 부분을 보면 이것이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갈렙은 이들을 쫓아내었고 헤브론을 그의 족속을 위한 기업을 되게 하였다. 그가 드빌을 취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한 사실(16 절)은 그 일이 정말 해내기 어려운 과업임을 암시한다.⁴ 그것은 특별히 어려운 과업에 대한 특별한 포상이었다. 나중에 다윗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매력적인 포상을 제시하였다(대상 11:5-6). 어쨌든 웃니엘은 드빌을 취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다.⁵ 갈렙이

³ 수 15:13-19은 삿 1:10-15과 유사하다. 헤브론과 드빌에 대한 다양한 공격들을 평가하는 것은 때때로 어렵다. 10:36-39에 묘사된 공격들은 아마도 갈렙의 공격보다 더 앞선 것일 것이다. 그러나 11:21-22에서 여호수아의 공으로 돌리는 성취는 실제로 갈렙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11:21-22과 같은 요약 진술들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반드시 엄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⁴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trans. Henry Beveridge, in vol. 4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81), 206.

⁵ 웃니엘은 갈렙의 아우이거나 조카인 것으로 보인다. C. F. Keil, *Joshua, Judges,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157 그리고 Leon J. Wood, 'Othniel', *ZPEB*, 4:552-553을 보라. 드빌은 전에 주장되었던 텔 베이트 미르섬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행동으로 보인 믿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 여기에 초기 정복이 계속 이어져야 할 방식이 있다. 그것은 두려운 과제였음이 틀림없다. 무엇이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와 그들의 족속과 전투하는 것보다도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과업일 수 있겠는가? 아낙(Anak)과 무적(invincible 無敵)은 동의어라고 생각되던 시대였음을 감안해 보라. 그러나 한 족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했을 때 안전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셨는지를 보라(출 23:30; 신 7:22-23).

III. 하나님의 현실주의의 패턴 (15:20-63 The Pattern of God's Realism)

첫 번째 요점과 약간 비슷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 15 장이 하나님의 현실주의의 패턴을 반영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 구트브로트는 이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유익한 소견을 말했다. 내레이터는 세속적인 역사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예배 공동체에게 전할 말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로서 글을 썼다. 어려운 문제는 이러한 목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을 그의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가? 어쩌면 성경적 현실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 해답이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있는 그대로의, 순전히 영적이고, 내적인 추상 관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구체적인 경우가 많으시고 그의 선물들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때가 많다. 그가 주시는 기업은 관념이 아니라 경계선들이고 생각이 아니라 성읍들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토지(실재의 부동산)이다.

여호와와 늘 이런 식으로 실재적이지하다. 그의 성육신은 이 사실에 대한 위대한 증언이다(요 1:1, 14).⁶ 우리 서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꼭 붙들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성(earthiness)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장엄한 행위를 즐기는 일조차도 어떤 영적인 창공에서 신호음을 내는 영혼으로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참조, 사 65-66 장; 계 21-22 장).

남서쪽으로 7.5 마일 떨어진 키르벳 라부드와 동일시되어야 할 것이다. Moshe Kochavi, 'Debir (City)', *IDB/S*, 222 을 보고, 보다 자세한 것을 위해 Anson F. Rainey, 'Debir', *ISBE* (rev. ed.), 1:901-904 을 보라.

⁶ Karl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3d ed. (Stuttgart: Calwer, 1965), 115-116 에 있는 논의를 보라.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기업이⁷ 우리 자신의 기업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온전한 소유는 땅도 없고 육체도 없는 허공에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 우리의 온전한 기대는 흔히 말하듯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의 언어는 믿는 자들이 죽을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한다(고후 5:8; 빌 1:23; 눅 23:43). 그러나 신약은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 올리고, 우리 소망의 온전함 곧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 있을 우리의 몸의 구속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롬 8:23; 빌 3:20-21; 살전 4:16-17; 고전 15 장).

⁷ 여호수아 15 장은 유다 지파의 탁월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이 주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후에 사사기에서 다루고자 한다. 63 절의 실패에 대한 논평도 여기서 다루지 않고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그러나 나는 21-62 절의 성읍들의 목록에 대한, 특히 그것의 연대와 관련하여, 해설 하나를 정말로 추가하고 싶다.

유다의 성읍들은 4 개의 주요 지리적 구분 아래 열거되어 있다. 첫째는 21-32 절의 네게브(남쪽 땅)이고, 둘째는 33-47 절의 세벨라(서쪽으로 평지)이고, 셋째는 48-60 절의 산지이고, 넷째는 61-62 절의 (동쪽으로) 광야이다. 어떤 이들은 21-62 절의 목록에서 각각 대개 “___ 성읍과 그 마을들”로 끝나는 12 개의 지역이 있음을 본다. 12 개 지역이란 계산은 단위 수가 생략된 45-47 절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고 칠십인역을 따라서 59 절 끝에 하나의 지역(‘Tekoa, Ephrathah, that is, Bethlehem, Peor, Etam, Culom, Tatam, Sores, Carem, Gallim, Baither, and Manach: 11 cities in all with their hamlets’, NEB) “드고아, 에브랏 곧 베들레헴, 브울, 에담, 쿨롬, 타탐, 쏘레스, 카렘, 갈림, 바이테르, 그리고 마나크, 총 11 성읍과 그 마을들”)을 삽입한 것이다.

이 목록이 훨씬 늦은 시대(예를 들어, 여호사밧 왕 시대 혹은 요시아 왕 시대)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Otto Kais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Minneapolis: Augsburg, 1975), 139-140 을 보라. 그러나 이 목록을 늦은 연대의 것으로 가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45-47 절에 열거된 블레셋 도시들은 이 목록이 (훨씬 더 늦은 시대에 유래하였다고 보는 것보다) 정복 시대와 가까운 때에 유래하였다고 보면 더 일리가 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 블레셋 도시들을 통제하지 못한 채 수백년이 흐른 후에 후기 편집자가 그것들이 마치 유다의 도시인 것처럼 성읍 목록에 포함하며 무슨 꿈을 꾸었을 것인가? 크로스(Frank M. Cross)나 라이트(George Ernest Wright)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참조, Trent C. Butler, *Joshua*,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189). 그러나 그것이 후대에 현실들이 역사적으로 구체화되기 전인 정복 시대로부터 유래되었다면 사람들이 유다의 예정된 영토에 대한 그런 순진한 견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여부스 족속이 아직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함께 “오늘까지(63 절)”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장 자연스럽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주전 1000 년 경보다 앞선 시대인 것을 암시한다. 적어도 63 절의 이 논평이 시사하는 것은 그렇다. 나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고 다만 성읍 목록의 대부분이 꽤 이른 시기의 것이고 후에 조금 편집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또한 Kenneth A. Kitchen, ‘The Old Testament in Its Context: 3 from Joshua to Solomon’, *TSF Bulletin* 61 (Autumn 1971): 7 도 보라.

I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어떻게 성읍들과 경계선들을 열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성취를 입증하는가?
2.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의 승리가 어려운 것이 되도록 하셨는가? 왜 더 쉬운 정복을 주지 않으셨는가?
3. 당신은 당신의 더 강한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는 어떤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장애들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4. 어떻게 성육신이 하나님의 "현실주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5. 어떻게 가나안에서 주어진 이스라엘의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기업이 우리 자신의 기업의 예표인가?

16. 기업 차지의 비극적 경향 (수 16-17 장 Tragic Trends)

여호수아 16-17 장은 요셉의 자손들 곧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16:1, 4) 땅을 분배받은 것을 묘사한다. 몇몇 장소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남쪽 경계(특히 에브라임의 남쪽 경계)는 대략 동쪽으로 여리고로부터 벳엘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아래 벳호른과 게셀을 지나 지중해까지 이른다(16:2-3). 세겜 근처에 있는 믹므다(Michmethah)는 에브라임의 북쪽 경계선의 고정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16:6-8) 거기로부터 경계는 “각 방향으로 예리한 대각선으로 내려가며 남서쪽으로 여리고, 서쪽으로 야르콘(Yarkon)으로 흘러가는 가나 시내(Wadi Qanah)에 이른다.”¹ 므낫세의 땅은 에브라임의 북쪽에 있었다. 여기에 에브라임의 북쪽 경계와 므낫세의 남쪽 경계가 일치한다(17:7-9). 므낫세의 북쪽 경계들은 뚜렷하게 말하기 힘들다. 그것들은 북쪽으로 아셀의 기업과 마주하고 있고 동쪽으로 잇사갈의 기업과 마주하고 있다.²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또 하나의 세심한 토지 측량이 아니다. 이 장들에 있는 어떤 해설들, 일화들, 그리고 되풀이되는 것들은 주의를 요한다. 이것들 중의 어떤 것들은 이스라엘의 장래에 있어서 나쁜 징조이다.

I. 여호와와 의 방식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16:1-4 A Reminder of Yahweh's Ways)

여호수아 16 장의 처음 네 절에는 여호와와 의 방식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 수 16:1-4 는 요셉 자손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4 절에서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언급된다. 이것은 출생의 순서였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서 장자였다. 그러나 저자가 기업을 묘사할 때 므낫세의 땅보다 먼저 에브라임의 땅을 묘사한다. “그때(5 절) 저자는 분명 암시적으로 에브라임에게 우선권을 주셨던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대하여 독자의 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³

¹ 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 and en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257. 그리고 Yohanan Aharoni and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rev. ed. (New York: Macmillan, 1977), 52, 혹은 *The New Layman'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329 도 보라.

²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에 대한 읽기 쉽고 유익한 묘사를 위해 George Adam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22d e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n.d.), chapter 16 을 보라.

³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259.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미묘하다는 이유로 반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창세기 48 장이 여호수아 16-17 장의 배경이 되는 예비 지식임을 깨닫는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48 장에서 매우 미묘하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러하다. 요셉은 그의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 앞으로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갔다. (창 48:1 에는 출생의 순서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온다.) 그러나 야곱이 그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할 때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48:5)”고 맹세한다. 이것은 미묘한 변경이지만 의도적인 것이다. 그것은 요셉이 야곱의 축복을 받으러 아들들을 제시할 때 그는 큰 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맞은편에 두고 자연스럽게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 맞은편에 두었기 때문이다(14 절). 그러나 눈 멀고 나이 많은 야곱은 그의 팔들을 교차시켜서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얹으며 에브라임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요셉은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그의 아버지의 어긋난 팔을 똑바로 하려고 애썼다(17-18 절).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그의 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확신시켰다(19 절). 야곱은 “이스라엘에서 축복이 선언될 때 사람들은 너희의 이름을 사용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20 절, NEB 의 번역)”고 축복했다. 야곱의 축복 다음에 저자는 “이렇게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다.”라는 논평을 덧붙인다.

여호수아 16-17 장도 순서를 바꾸어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그들의 출생 순서를 알고(16:4) 있지만 므낫세(17:1-13)보다 에브라임(16:5-10)을 앞세운다. 그가 그것에 관한 반응들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생각나게 하는 것 곧 여호와와 기묘한 방식들에 대한 또 하나의 암시이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들의 관습들을 파기하고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인간의 규범을 뒤엎어 버리는가!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격려가 되시고 우리로 기운이 나게 하시는 이유이다. 그는 타락한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의 포로가 아니시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표준들을 전도시키시며 우리로 감탄하고 환호하게 하신다. 우리의 예의범절을 무시해 버리시는 이러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6-29, 개역개정)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약 2:5, 개역개정)

동일한 동기에 의하여 또한 유다 지파의 기업 (15 장)이 다른 지파들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기업보다 먼저 언급된다. 그것은 창 49:8-12 에서 야곱이 예언한 것, 특별히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주님께서 비틀어 놓으신 것들 중의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유다는 장자도 아니고(창 29:31-35) 장자의 몫을 받은 것도 아니다(대상 5:1-2). 당신이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한 것(창 43:8-10; 44:16-34) 때문에 그에 대한 후한 점수를 준다면 당신은 유다가 (그가 아는 한에서는) 가나안의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창 38 장)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다가 왕적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은 출생이나 편애나 미덕 때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회의 규칙(Roberts' Rules of Order)이나 우리의 규칙에 의해 구금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을 깊이 숭배할 이유이다.

II. 여호와와의 말씀의 변호 (17:3-6 A Pleading of Yahweh's Word)

둘째, 슬로브핫의 딸들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여호와와의 말씀의 변호를 본다. 이 일에 대한 배경은 민 27:1-11(과 36:1-12)에서 찾을 수 있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의 다섯 딸들이 모세에게 사연을 아뢰며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으로 남아있을 것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려지지 않기를 청하고 (관례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⁴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이 딸들인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청하였다. 모세는 이 일을 여호와께 여쭙어 보았고 여호와는 모세에게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대로 하라고 대답하셨다. 이 요구를 통해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들의 믿음을 선언하였다.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이 그때 바로 기업을 소유하기 위해 요청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확실한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기업 상속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들의 적이 정복된 것도 아니었지만 모세의 증언에

⁴ Gordon J. Wenham, *Number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1), 191-193 을 보라.

의지하여 그들의 권리의 평화로운 소유가 바로 그날 그들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것처럼 그들은 강력하게 요청하였다.⁵

여기 여호수아 17 장에 나오는 그들의 후속 이야기는 동일한 종류의 절대적 신앙을 암시하고 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던” 것을 상기시켰다. 갈렙의 경우처럼(14:6-12) 여호와께서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요구하는 담대함, 여호와와의 이전의 말씀을 기탄없이 변호하는 솔직함이 있다.

마홀라와 그녀의 자매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학교 여선생님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점에 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들을 붙잡는 담대함과 자신감과 확신 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상점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모아 두고 그 순간에 금전 등록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것을 찾지 못한 사람들과 같다. 그러나 카운터에 초인종이 있고 “필요하신 분은 초인종을 올려주십시오.”라는 표시가 있다. 우리는 자주 온갖 종류의 어리석은 이유들로 인해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주저한다. 그런 이유들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그들은 내가 성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너무 고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한다. 내가 점원이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점원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될지 모른다.” 웬일인지 우리는 상점 주인이 실제로 그의 고객으로 초인종을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초인종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확히 히브리서 저자가 주고자 했던 요점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위대하시고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 우리는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히 4:16).” 시험을 받으셨던 분인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필코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공급들을 붙잡는 것을 수줍어하며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주고 있음을 잊지 말라.

⁵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trans. Charles William Bingham, in vol. 3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81), 4:256.

III. 여호와와 계획으로부터의 일탈 (17:7-13 A Deviation from Yahweh's Program)

우리는 정복과 관련된 실패의 한 단면을 듣기 위해 사사기 1 장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여호수아서에 그런 실패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장들은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에게 정복과 관련된 여호와와 계획으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한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논평으로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가 15 장을 포함하기 위해 16-17 장을 잠시 벗어나 15 장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기업들에 대한 설명의 끝에 각각 한 번씩 나오는 실패에 대한 세 번의 논평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15:63 개역개정]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were not able to dispossess 쫓아낼 수 없었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10 개역개정]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did not dispossess the Canaanites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12-13 개역개정]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were not able to possess these cities 그 성읍들을 점령할 수 없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독자는 이 논평들에서 비난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은 유다의 무능력이 언급되고, 그 다음은 에브라임의 한 성읍에 대한 실패가 언급되며 명백히 가나안 족속을 추방하기보다는 노역하는 종으로 삼은 것이 언급되고, 마지막으로 므낫세의 많은 전략적 지역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커다란 무능력 혹은 실패가 언급되며 (그들이 강해졌을 때조차도)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거나 추방하여 정복된 원수로 만드는 대신 함께 살며 노역하는 종들로 만든 것이 언급된다.

그러한 타협과 방종은 명백하게 여호와와 분명하신 명령들(출 23:23-33; 34:11-16; 신 7:1-6)과 상반되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네 땅에 머물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출 23:33).”고 말씀하셨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신 7:2)고 명령하셨었다. (신 7:6 의 문맥을 고려하면) 영적인 긴급 상황은 [수단이] 폭력적인 거룩함을 요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바알 숭배라는 암은 가장 근원적인

수술을 통해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분명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출 23:32-33; 신 7:4). 가나안의 신앙에는 불가사의한 매력적인 것이 있어서 사람들은 여호와와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바알(과 그의 제자들)의 성적인 역량에 의해서 감동되었다.

사실상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정복의 과정에 점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었다.

[출 23:29-30] 29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됴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 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신 7:22-24] 2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2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24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나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의 타협으로 인해 이미 이 비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인다(16:10; 17:12-13).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논평들은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기간을 지나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강성해진 때가 왔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좇아 그들을 추방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붙잡아 두는 쪽을 선택했다. 칼빈이 본 대로

그러나 이스라엘이 쉽게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망시킬 힘을 가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나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득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진멸을 선고하신 그들을 살려 두었을 때 훨씬 더 용서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범죄가 저질러졌던 것이다.⁶

여기에 여호와와 계획으로부터의 일탈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기독교인이 돌을 들어 먼저 치는 일을 서두르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도 자주 이스라엘의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분명코 이스라엘은 정복의 초기 공격 즉 여호수아의 지도아래 일치된 공격에 있어서 꽤 잘해냈다. 주된 위기가 사라지고 지파들이 여호와와 점진적인 가나안 족속 추방에 신실하게 동참하며

⁶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trans. Henry Beveridge, in vol. 4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81), 217.

정복을 완수해야 할 때가 왔다(출 23:30). 어쨌든 우리는 영웅적 행위에 대한 소명을 좋아하지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명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작은 일에 신실하는 것을 만족해하기보다는 귀찮은 것으로 여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그 분에 대하여 매우 기뻐 날뛰는 사람들이 단지 “잠깐 견딜” 수 있는 자들에 불과할 수 있음을 경고하신다(막 4:16-17). 기독교인의 신앙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에서 드러나는 그의 용기에 의해 증명되기보다는 일상적인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의 신실함에 의해 증명된다. (여호수아 13 장에서 내가 지적한 두 번째 요점을 보라.)

여호수아 16-17 장에 묘사된 에브라임과 므낫세 실패는 어떤 즉각적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보려면 우리는 사사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면 단순한 순종의 문제로만 묘사되어 있다.

IV. 여호와와 선물에 대한 불만 (17:14-18 A Discontent with Yahweh's Gift)

마지막으로, 17:14-18 에는 여호와와 선물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⁷ 이 단락에 좀 불분명한 세부사항들이 있을지라도 주된 요점은 분명하다. 요셉 자손들(에브라임과 므낫세)은 그들이 “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제비, 한 분깃”만 받았다고 불평하였다. (“큰 민족”이란 어구는 이 절들에서 요셉 자손들에 의해 한 번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여호수아에 의해 두 번 곧 총 세 번 나온다.) 당연히 그들은 경건하게 그들의 숫적인 힘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14 절).”는 사실에 돌리고 있다.⁸

여호수아의 첫 번째 응답(15 절)은 그들에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인 삼림 지역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지시였다.⁹ 그것은 너희가 말한대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너희에게 너무 좁을진대 그리고 너희가 말한대로 너희가 큰 민족일진대 어떤 것도 너희가 적의 영토에서 더 많은 삶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요셉 자손들의 반응은 그들의 진정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그 산지가 더 개간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직역: “그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못할 것이다 it

⁷ 나는 이미 14:6-15 과 관련지어 이 단락의 기능을 논의했다. 14:6-15 에 대한 해설을 보라.

⁸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에(민 13:8) 그가 년지시 암시된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이다.

⁹ 나는 삼림 지역이 “에브라임의 산지” 안에 덜 개간된 부분을 의미한다고 가정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16 절에서 요셉 자손들은 그들이 그 안에서 추가적인 지역을 개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산지가 넉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will not be found for us.”)라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을 이런 식으로 간주한다.¹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의해 점령되지 못할 것이다(점령될 수 없을 것이다) it will (can-) not be acquired by us.”라는 번역도 가능하다.¹¹ 그렇다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가 돌아다니며 순찰하는 평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산지에 대한 광범위한 장악에 대하여 절망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18 절의 여호수아의 대꾸는 이 후자의 견해와 더 잘 부합된다. “왜냐하면 그 산지는 너희들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삼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개척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넉넉하지 못하다”에 대해서라기 보다 “할 수 없다”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은 에스드랄론 골짜기로 밀치고 들어가 북쪽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보병들에 불과한 그들에 대항하여 철병거(오늘의 탱크)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큰 민족이었고 한 제비로는 충분하지 못했다(14 절). 그래서 여호와와 선물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17-18 절에 있는 여호수아의 대답이 피상적인 격려의 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가나안 족속들이 에스드랄론(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철병거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상관없다. 그것과 맞서서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를 오해한 것이다.

17-18 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을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18 절에 히브리어 단어 [키]가 5 번 나오고 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두 군데 구어적 변조가 허락된다면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는 큰 힘을 갖고 있다. 너희는 (단지) 한 제비만 갖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산지는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사실 그것은 삼림이다—너희는 그것을 개척할 것이고 그것의 경계들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사실,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사실,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다. 사실, 그들은 강하다.” 여호수아의 대답은 하나님의

¹⁰ 그 예로 NASB, RSV, NEB, NIV; C. F. Keil, *Joshua, Judges,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184; Francis Brown, Samuel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ed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1907), 594 등을 들 수 있다.

¹¹ *Gesenius' Hebrew and Chaldean Lexicon*, trans. S. P. Tregelles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49), 499 그리고 George Bush, *Notes, Critical and Practical, on the Book of Joshua* (Chicago: Henry A. Sumner, 1881), 170 을 보라.

백성이 직면해 있는 장애물들을 바로 보거나 동감하는 것을 거부하는 신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미 언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신학이다.

[신 7:17-22 개역개정] 17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18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2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21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2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신 20:1 개역개정]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불평은 여호와의 선물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단락은 더 깊은 문제 즉 여호와의 충분하심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다. 신명기 7장과 20장은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셨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기억해야만 했었다! 그는 애굽 땅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여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를 때려 눕혀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이시요, 너희 가운데 계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셨다. 너희가 여호와를 보자마자 브리스 족속의 칼과 가나안 족속의 병거가 주는 무서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단지 두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이다. 우리의 고백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거의 초자연주의자들이 아니다. 거듭거듭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적 승산의 포로가 아니시고 그의 약속들이 적어도 가나안 병거에 입혀진 철만큼 실재적이지만 우리가 모험적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약속 안에서 행할 만큼 그것을 신뢰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신다.

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하나님이 그의 길들에 있어서 관습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신다. 이것으로 인해 당신은 그를 더 깊이 흠모하는가 아니면 그의 길들에 대해 의심하는가?

2. 당신이 그의 약속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더 깊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당신의 기도의 삶이 강화될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기도들에 있어서 담대한가?
3.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즉각적인 위기가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그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가?
4. 당신은 "주님, 그렇습니다만 . .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5.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어렵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17. 많은 기업들 (수 18-19 장 Lots of Lots)

여호수아 18-19장은 세부 사항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이 장들의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요가 도움이 될 것이다.

18:1-10 실로에서 모임

18:1 기회: "정복된" 땅

18:2-3 위기: "태만한" 백성

18:4-7 계획: "그려진" 땅

18:8-10 실행: "분배된" 땅

18:11-19:48 지파들을 위한 제비뽑기

18:11-28 베냐민의 기업

18:11-20 경계들

18:21-28 성읍들

19:1-9 시므온의 기업

19:10-16 스불론의 기업

19:17-23 잇사갈의 기업

19:24-31 아셀의 기업

19:32-39 납달리의 기업

19:40-48 단의 기업

19:49-51 지도자(여호수아)에 대한 상급

다시 말하지만 현대 기독교인 독자는 여호수아 18-19장을 읽으며 그는 제비뽑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고백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다시 모든 성경이 유익하고 이 장들에서도 교훈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I. 새로운 날 (18:1 A New Day)

첫째로,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운 일은 새로운 날이 도래한 것을 암시한다. 실로는 베엘에서 북동쪽으로 10 마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 마일 떨어져 있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다. 실로는 왕정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인다(수 18:1; 21:2, 22:9, 12; 사 18:31; 21:12, 19; 삼상 1-2 장). 이것은 새로운 상황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실 땅 가운데서 그분이 경배되고 제사들이 드려지고 식사의 교제가 이루어질 한 장소를 택하실 것이라고 말했었다(신 12:1-15).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때 광야 시대의 불안정이 끝날 것이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신실하게(그들 주위에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의 성소들을 버리고 이 한 예배 중심 장소로 나와서), 즐겁게(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그리고 안전하게(여호와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주신 안식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게 하시려는 실로에 여호와의 거처가 세워졌다(참조, 렘 7:12). “광야는 약속하신 땅에서의 정착된 삶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공하지 못했다.”¹ 여호와의 의도는 그의 백성이 그를 신실함과 즐거움과 안전함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었다.

실로가 그러한 새로운 날을 표시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새로운 날이 아니었다. 스가라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 분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평생토록 그 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눅 1:74-75).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그분을 신실하게,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얼핏 보았다.

II. 변함없는 관심사 (18:5-7 A Constant Concern)

둘째로, 저자는 온 이스라엘 곧 열 두 지파 전체가 그들 각자의 몫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강조하려고 변함없는 관심사를 드러낸다(18:5-7). 우드스트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라 12 지파의 구조와 이스라엘의 통일성에 대한 저자의 주제적 관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에 동등하게 참여했고(참고, 1:12-18) 약속의 땅을 동등하게 분배받아야 마땅했기 때문이다.²

우리는 마지막으로 13 장에서 본 바 있는 온 이스라엘에 대한 세심한 열정이 여기에 다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를 지파에 대한 수치 계산으로 인도한다. 그는 “이제 유다(한 지파)는 이미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한 지파 반)은 북쪽 자기 지역에 있으므로 이제 남은 7 지파들을 위해 땅이 7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한다(18:5). 레위(한 지파)는 땅 대신 제사장직을 기업으로 받았고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18:7).”고 말한다. 이러한

¹ 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6), 218. 나는 신명기 12 장에 대한 언급이 비평적 별레들의 통을 연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들이 지금도 막 기어 돌아다닐 수 있다.

²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270-271.

강조는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 나온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저자가 주고 싶어하는 강조이다(참조, 22 장).

기독교 신자들은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선민이라기 보다는 엘리트라고 생각하거나, 결국 우리 자신만의 특별한 기독교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도 더 화려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신자들이 같은 하늘 아버지의 부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못 보고 놓쳐 버리는 유혹에 직면한다. 신약은 이 점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다. “그분의 충만하심(참고, 요 1:14)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요 1:16),” “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가** 마실 한 성령을 받았다(고전 12:13).”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어졌다(엡 4:7).”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속물근성을 거부하고 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에게 중요하고 각자가 그분의 상속자이다.

III. 위험스러운 태만함 (A Dangerous Laxity)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가 땅을 점유하는 과업에 대하여 위험스러운 태만함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질책할 때 18-19 장의 주안점을 듣는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18:3)?” “지체함”을 표현하는 동사의 형은 분사이므로 계속적인 동작이나 태도를 암시한다. 18:3 의 분사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1:5 에 사용된 동사와 같은 어근이다.³ 같은 어근에 유의하여 설명하면 18:3 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선물인 땅을 점유할 소명을 놓아버리거나 단념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 이 매우 중요한 때였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다(18:1).” 여기에 그들의 기회가 있었다. 땅이 정복되었지만(히브리어 [카바시]) 그들은 계속 밀어부치며 그것을 점유해야만(히브리어 [야라시]) 했다. 가나안의 저항의 주된 힘이 부수어졌기 때문에 이 지파들은 이 유리한 국면을 따라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일 즉 그것을 영구히 점유하는 일을 수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³ [역자주] 18:3 의 מְרַחֵם[미트라핌]과 1:5 의 אֶרַח[아르프하]의 어근은 רָחַם[라파]이다. 저자는 1:5 을 “I will not let go of you. 내가 너를 놓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혹은 “I will not drop you. 내가 너를 버리지/단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한 7 지파로부터 각각 세 사람이 선정되었다. 이 21 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야 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7 지파들을 위한 제비 뽑기를 통해 그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분배해 줄 것이었다(18:3-7). 아마도 여호수아의 이런 조치는 그들의 태만함으로부터 그들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여호수아 18 장 3 절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현대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의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여호와와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은 점유되어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와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여호와와 약속들은 진정제가 아니라 자극제로 의도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약속들을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벧후 1:3 이하에서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신학적 논리이다. 베드로는 “그분의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다.”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는 “이제 또한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NASB: *Now also, for this very reason*) 모든 부지런함을 동원하며(NASB: *applying all diligence*, 참고, 개역개정: 더욱 힘써/새번역: 열성을 다하여) 당신들의 믿음에 미덕을 더하고, 당신들의 미덕에 지식을 더하고 . . . ”라고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의 선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시켜 행동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것이다.

엘리슨이 이스라엘의 태만함을 바르게 평가하였다고 생각된다.

여호수아가 질책하는(3 절) 태만함은 기꺼이 정착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약속된 땅”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실은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고된 일에 종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의 실망스러운 측면이다. 그것들은 항상 우리가 더욱 더 잘 섬기도록 주어진다. 그분이 주시는 쉽조차도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마 11:28-30).⁴

⁴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 – 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17. 블레이크(William Blaikie, *The Book of Joshua*,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n.d.], 315)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일종의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무관심하게 그럭저럭 해나가는 것에 만족하고 흔히 그러듯이 생활의 필요한 것들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에 만족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굶픈 태도는 꽤심한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매우 다르다는 것과 각 지파가 그 자신의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각 지파의 경계선을 정하기

적용을 위해 바로 앞에서 다룬 제 16 장의 세 번째 부분인 여호와의 계획으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나의 해설을 보라

IV. 필요한 권위 (A Necessary Authority)

넷째로, 우리는 얼마나 주의 깊게 여호수아가 땅의 분배 문제를 필요한 권위 아래 두었는지를 볼 수 있다. 우리는 21 명의 사람들이 땅을 그려 가지고 온 후에 7 지파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곧 실로에 있는 회막의 여호와의 면전에서 제비 뽑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세 번(18:6, 8, 10) 읽게 된다

기업 분배의 일은 엄숙한 것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지파들이 그의 기업들을 신적 권위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었다.⁵

이것이 우리에게 겉치레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그들의 몫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 즉 그들의 땅이 여호와의 결정에 의해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지파들의 불평, 말다툼 혹은 불만족은 끝없이 계속될 수도 있었다. 설령 그것이 부동산과 관계가 거의 없을지라도 문제의 핵심은 기독교인에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 내가 (시 31: 13 에서 보듯 대적들이 시인을 치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을 때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시 31:15).”는 것과 “여호와께서 실제로 나의 몫을 지켜주신다(참고, 시 16:5).”는 것을 확신할 때만 나는 비참함과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상야릇한 불가사의이지만 나의 현재의 몫이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도한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때 묘하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

V. 완료된 분배 (A Completed Allotment)

다섯째로, 여호수아 18-19 장은 우리에게 완료된 분배를 보여준다. 이 일곱 지파가 그의 태만함에서 벗어나 그들의 현재의 유리함을 밀고 나가며 그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점유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다양한 몫을 배분함으로써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였다.

위해 조처들이 즉각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아무런 절차들을 밟지 않고 있었고 그들은 사회적 무질서에 만족했다.”

⁵ George Bush, *Notes, Critical and Practical, on the Book of Joshua* (Chicago: Henry A. Sumner, 1881), 174.

우리는 지리적-지형적 세부사항들을 면밀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 그러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독자는 다른 곳에서⁶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파들의 기업의 일반적인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냐민이 받은 것은 에브라임의 남쪽과 유다의 북쪽에 있는(18:11) 산지인데 동서로 26 마일되고 남북으로 12 마일 되는 땅이었다.⁷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베냐민의 기업에 대한 묘사(18:11-28)는 나머지 6 지파의 어느 지파의 것보다 2 배쯤 길다.

시므온(19:1-9)은 그의 기업이 유다의 땅의 남서 부분 안에 있는 성읍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스블론(19:10-16)의 기업은 남부 갈릴리에 있었고, 그 북서쪽으로 아셀, 그 북동쪽으로 납달리, 그 남동쪽으로 잇사갈, 그리고 그 남서쪽으로 므낫세가 있었고, 기손강이 그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⁸ 잇사갈(19:17-23)은 이스라엘(에스드랄론) 평지의 동쪽 끝에 있었고 남쪽으로 길보아 산맥이 있고 북쪽으로 하 갈릴리(Lower Galilee)의 산지들이 있었다.⁹

아셀(19:24-31)의 땅은 남쪽에 있는 갈멜산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시돈의 남쪽까지 뻗어 있었고 서쪽에 있는 지중해로부터 동쪽에 있는 갈릴리 산지의 서쪽 봉우리들까지 뻗어 있었다. 납달리(19:32-39)의 기업은 추적하기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남쪽에 있는 다불산 지역과 북쪽에 있는 리타니 강 사이에 놓여 있었고 동쪽으로 요단강 상류와 접해 있었으므로 갈릴리 동부와 중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¹⁰ 단의 원래 영토(19:40-48)는 (북쪽으로 에브라임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 유다와 접해 있는) 베냐민의 서쪽에 있었다.

여호수아 18-19 장의 연대에 대하여 한 마디 하려고 한다(여호수아 15 장의 논의도 또한 보라). 이 성읍들의 목록들과 경계의 묘사들은 정복 시기보다 더 늦은 시대의 것들이고 (실제는 여호사밧, 요시아, 혹은 포로기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들이 마치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⁶ 지도를 위해 *The New Layman'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330-333 을 보라. 지명의 위치를 위해 Woudstra, *Joshua*, 276-296 와 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 and en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248-262 를 보라.

⁷ Fred E. Young, 'Benjamin', *Wycliffe Bible Encyclopedia*, 2 vols. (Chicago: Moody, 1975), 1:218.

⁸ Arthur E. Cundall, 'Zebulun', *IBD*, 3:1677.

⁹ Arthur E. Cundall, 'Issachar', *IBD*, 2:720.

¹⁰ Aapeli A. Saarisalo, 'Naphtali', *ISBE* (rev. ed.), 3:490, and Arthur E. Cundall, 'Naphtali', *IBD*, 2:1053.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편집자(들)에 의해 여기에 놓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자들의 암호말이 되었다.¹¹

그러나 이 목록들이 이른 시기 즉 정복과 정착 시대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보여주는 암시들이 있다. 추가적으로 옛날 지명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예, 18:13, 28)은 원래의 문서가(문서들이) 아주 오래된 것임을 넉넉히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목록들이 보다 늦은 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반영하고 있다면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이 (일시적으로 점령당한 것[삿 1:18]이외에) 정복되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에그론이 단 지파에게 배정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¹² (후대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후대의 저자도 아셀의 땅을 시돈까지 확장하는 것에 꿈을 꾸지 않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시돈은 항상 이스라엘의 정복의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셀이 시돈을 점령하였을 것이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진함은 이스라엘이 온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지기 전인 이른 시대와 완전히 어울릴 것이다. 나는 이 목록들 안에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15, 30, 38 에 나오는 성읍들을 일괄하는 계산 수치들은 각각의 목록들에 언급된 성읍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안으로 집어넣은 후대의 구성물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VI. 웅변적인 증언 (19:49-50 An Eloquent Witness)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9 장의 끝부분에 들어야 할 웅변적인 증언이 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증언이란 49-50 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한 논평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와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개역개정).”

칼 구트브로트는 14-19 장을 훑듯 되돌아보며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단 서편 지파들의 땅에 대한 묘사는 현저한 틀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은 갈렙에게 기업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것으로 끝난다.¹³

¹¹ 도움이 되는 연구의 개관을 위해 Trent C. Butler, *Joshua*,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142-144 을 보라.

¹² Woudstra, *Joshua*, 294 n.

¹³ Karl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3d ed. (Stuttgart: Calwer, 1965), 126. 구트브로트의 49-50 절의 논의는 유익하다. 그리고 Woudstra, *Joshua*, 296 도 보라.

그러므로 요단 서편 지파들을 위한 땅 분배의 전체 설명은 함께 모아져야 한다. 18-19 장의 시작(18:1)과 마지막(19:51)에 나오는 실로에 대한 언급이 특별히 18-19 장을 함께 묶지만¹⁴ 이것이 14-19 장이 더 큰 단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이 각각 언급되고 있는 14:1 과 19:51 상반절을 비교해 보라). 정말로 우리는 이제 14-19 장에 있는 전반적인 배열을 추적해 볼 수 있다. 나는 이미 14:6-17:18 의 처음과 끝에 각각 나오는 갈렙과 요셉 지파 사이의 대조를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또한 18-19 장의 처음(18:3 이하)과 끝(19:49-50)에 각각 나오는 일곱 지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여호수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의 대조도 볼 수 있다.

이런 사실들에 유의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드러난다.

갈렙, 14:6-15	긍정적
요셉 지파들, 17:14-18	부정적
일곱 지파들, 18:1-10	부정적
여호수아, 19:49-50	긍정적

갈렙과 여호수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조들과 전반적인 구조는 우리를 민수기 13-14 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게 한다. 거기에서 열두 정탐꾼들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을 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신한 약속에 기꺼이 목숨을 건 모험을 하였다(민 13:30; 14:6-9). 불행하게도 대다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 번져 나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 사라질 것이지만 그 두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의 남은 자가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Num. 14:24, 30, 38).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을 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수 14:6 의 갈렙의 말 가운데 나오는 “당신과 나에 관하여”라는 어구를 보라).¹⁵ 그러므로 갈렙의 기업에 못지 않게 여호수아의 기업도 “여호와의 권위(19:50)”에 근거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14:6)”과 완전 일치한다.

그러므로 19:49-50 은 결코 불필요한 꼬리 부분이 아니다. 본문에 음조들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정말 음악이다. 그것은 다만 다른 장조의 “당신님의 신실하심은 위대하십니다(애 3:23).”이다. 그것은 대다수가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¹⁴ C. F. Keil, *Joshua, Judges,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208.

¹⁵ Bush, *Joshua*, 181.

사실(민 13-14 장)에 대한 영속적인 증언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낙 사람들과 병거와 높이 너울거리는 강물로부터 그의 신실한 두 사람을 보호해야만 하셨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약속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다.

여호수아 14-19 장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 그것들은 갈렙으로 시작하여 여호수아로 끝난다. 이것은 민수기 13-14 장의 완전한 성취가 아닌가! 헤브론과 딘 세라에는 우리가 보통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학이 들어 있다.

VII.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당신은 우리 21 세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경배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2. 당신은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적 속물 근성을 보는가?
3. 청교도들은 믿는 자의 죄악된 영적 게으름(sinful spiritual laziness)을 묘사하는 데 "나태(sloth)"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어떻게 그러한 나태가 믿는 자의 삶과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4. 당신은 당신의 삶의 분복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5.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기업 분배가 이스라엘에게 격려가 되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당신에게 격려가 되는가?

18. 마지막 분배: 레위인의 기업들 (수 20-21 장 Final Provisions)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의 일은 거의 완결되었지만, 저자에게는 여러 가지 마지막 손질할 것이 있었다. 여호수아 20-21 장도 역시 세속적 문제들과 지루한 세부 사항들에 치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장들의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자, 이제 들어보기로 하자.

I. 여호와와 공의 (20:1-9 Yahweh's Justice)

i. 여호와와 공의의 정당성 (The Justice of Yahweh's Justice)

여호와는 주도권을 가지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들을 따로 만드는 일에 관하여 모세에게 주셨던 지시들(민 35:9-34; 신 4:41-43; 19:1-13)을 이행하라고 명령하셨다. 도피성들은 (우리의 용어로) 비고의적 살인(unintentional manslaughter)을 한 사람들을 위한 일시적인 그리고/혹은 지속적인 피난의 장소였다. 도피성들은 “고의가 아니고 뜻하지 않게(20:3)” 사람의 목숨을 죽인 사람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할 때 한 사람의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 사람은 악의나 고의나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의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었다(신 19:5-6).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이런 경우에 동기와 의도를 중요하게 본다.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던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자가 받아 마땅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이것을 위해 민 35:30-31; 신 19:11-13 을 보라.).¹

ii. 여호와와 공의의 쉬운 접근 가능성 (The Accessibility of Yahweh's Justice)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위험스러운 일은 “피의 보복자(수 20:3, 5)” 곧 가족의 권리들을 보존할 책임이 있는 죽은 자의 가까운 친척이 순간적 감정에 치우쳐 그 사건의 사실들이 알려지고 적절하게 처리되기 전에 그 살인자를 죽여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적법한 보응보다 오히려

¹ 이것은 살인자는 누구나 도피성으로 가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었다고 주장하고 집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된 후에 그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20:6, 9). 이 회중이 도피성 안이나 그 근처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는지 혹은 어쩌면 그 살인자의 고향에서 온 관리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참조, 민 35:24-25). 그러나 그 살인자가 고의적으로나 증오나 원한에 의해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정에서 확인된 후에만 그에게 도피성에서의 지속적인 체류가 승인되었다. 도피성들은 오늘날 흔히 일어나는 것처럼 공의를 피하는 법적 수단이 결코 아니었다.

원한에 사무친 보복이 기선을 잡고 불공평이 비극에 더해질 수도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와 공의의 쉬운 접근 가능성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6 개의 도피성들이 선택되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3 개씩 선택되었고, 그것들이 하나는 북부에, 하나는 중부에, 그리고 하나는 남부에 위치하도록 선택되었다. 요단 서편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볼 때 게데스, 세겜, 그리고 헤브론이 선택되었고, 요단 동편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볼 때 골란, 라못-길르앗, 그리고 베셀이 선택되었다(20:7-8). 도피성들로 가는 길들이 닦여지고(신 19:3) 도피성들이 전략적인 곳에 있었으므로,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오살자)을 위한 안전 보장은 가까이에 있었다. 오살자는 이 여섯 도피성들 중의 한 곳에 있으면 그 사건이 적법하게 판결될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즉각적인 분노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그 도피성들의 숫자와 위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접근하기 쉽도록 되어있고 그분의 방식들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iii. 여호와와 공의의 가치 (The Values of Yahweh's Justice)

도피성들의 제공은 또한 여호와와 공의의 가치를 반영한다. 여호수아 20 장은 오살자이든 희생자이든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엄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 도피성들의 관심사가 비고의적인 살인자의 생명의 고귀함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죽임을 당한 사람의 생명 또한 신성하다고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오살자를 위한 안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망명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는 보호를 받지만 벌도 받는다. 진상이 그에게 유리하게 밝혀졌다고 해도(20:6a) 곧바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다시 살 수는 없었다. 그는 현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20:6b). 그는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그는 죽임당한 사람의 친척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었다(민 35:26-28). 트렌트 버틀러가 말한 것처럼, 도피성은 “도피처인 동시에 감옥”이었다.² 인강의 생명을 파괴한 대가는 그렇게 비싼 것이고, 설령 생명이 비고의적으로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한 결과들은 감수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항상 매우 신성하게 보존되어야 한다(창 9:6).³

² Trent C. Butler, *Joshua*,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3), 216.

³ Walter C. Kaiser, Jr., *Toward Old Testament Eth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165-68.

iv. 여호와와 공의의 충족 (The Satisfaction of Yahweh's Justice)

비고의적이지만 목숨을 빼앗는 일은 매우 심각한 일이어서 정해진 기간 안에는 곧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20:6)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다. 해석학적 기반이 두텁지는 않지만, 나는 오살자가 대제사장의 죽음 후에 도피성에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와 공의가 충족되었음을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하여 민수기 35 장(특히 31-34 절)은 상당히 축약된 여호수아 20 장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형이 형벌이었던 어떤 범죄들의 경우에 생명의 속전을 내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도피성으로 피한 오살자에게는 속전을 내고 풀려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민 35:31). 그 이유는 피가 땅을 더럽히고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만이 그 땅을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납되는 유일한 속전은 그 살인자 자신의 생명이고 그것만이 오염을 제거하고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것이 바로 공의의 충족이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규정이 비고의적인 살인자의 경우에 적용되었다. 고의적 살인에 의해서든 비고의적 살인에 의해서든 피가 흘러지면 그 피는 결국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민 35:32).”는 규정이 주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고든 웬햄은 다음과 같이 추론했다.

고살과 오살 모두 피를 흘린 죄책이 있고 땅을 더럽힌다. 둘 모두 속죄를 필요로 하는데

고살은 고살자의 처형으로 속죄되고 오살은 대제사장의 사망을 통해 속죄되었다.⁴

모든 해석자들이 이 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오살자를 위한 유일한 속전이었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어떤 면에서 흘려진 피를 속하고 공의의 요구들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오살자를 유배로부터 해방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히 2:17)”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에 대한 주목할만한 그림이다.

v. 여호와와 공의의 범위 (The Circle of Yahweh's Justice)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와 공의의 범위가 어떻게 이스라엘 본토인뿐만 아니라 거류민까지 포함하는지 유의해야 한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⁴ Gordon J. Wenham, *Number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1), 238; Gustav Friedrich Oehl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8th ed. (New York and London: Funk and Wagnalls, 1883), 237-38; C. F. Keil and Franz Delitzsch, *The Pentateu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n.d.), 3:264-66.

선정된 성읍들이다(20:9).” 9 절은 20 장의 요약 해설이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 거류민을 포함하시기 때문에(신 10:18) 그분의 공의에도 거류민을 포함하시는 하나님으신 여호와와 성품에 대한 전형적인 요약이다.⁵ 하나님의 자비에는 광대하심이 있다. 여기 여호수아서에 벌써 우리는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을(엡 2:13)”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요약 진술들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뽐내 앞드려 경배하도록 깨우친다.

II. 여호와와 거류민들 (21:1-42 Yahweh's Sojourners)

둘째로, 21:1-42 에 나오는 레위인 성읍들의 분배는 여호와와 거류민들을 보게 한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을 받지 않았다(13:14, 33). 그 대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그들에게 지정된 어떤 성읍들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었다(14:3-4).⁶

21:1-42 의 구조는 분명하고 추적하기 쉽다. 대체적으로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믿음으로 주장된 레위인 성읍들 (1-3 절)
2.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된 레위인 성읍들 (4-8 절)
3. 이름으로 열거된 레위인 성읍들 (9-40 절)

제비뽑기의 요약(4-8 절)과 이름 목록(9-40 절)에서 우리는 잘 정돈된 순서 곧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인 그핫 자손들(열세 성읍), 나머지 그핫 자손들(열 성읍), 게르손 자손들(열세 성읍), 므라리 자손들(열두 성읍)의 순서를 본다.

i. 레위인들이 주장하는 권위 (The Authority They Claim)

수 21:1-3 에서 레위인들이 주장하는 권위에 주목하라.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과 그들의 가축을 위한 그 성읍들 주변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민 35:1-8). 레위인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대로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⁵ Merrill F. Unger and William White, Jr., eds., *Nelson's Expository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Nashville: Thomas Nelson, 1980), 387. “거류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르]는 “한 때 다른 나라의 시민이었으나 어떤 위난 중에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새로운 거처를 얻게 된 영주권자”였다. [게르]에 대한 뛰어난 요약을 위해 L. L. Walker, ‘Sojourner’, *ZPEB*, 5:468-69 을 보라.

⁶ 명백히, 레위인들은 지정된 성읍들의 유일한 거주인들이 아니었고 거기에 사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cf. 21:11-12).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미 갈렙(14:6ff.)과 슬로브핫의 딸들(17:3-6)은 이와 비슷한 유형의 요구를 했었다. 여호수아서의 세 번째 주요 부분(13-21 장)의 처음과 끝 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요구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곧 갈렙과 레위인들)을 본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기도—“여호와께서 . . .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던(21:2)” 것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대한 통상적인 패턴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갖도록 승인하신 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내 것이다.”라고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경박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존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매우 가치있는 이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한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한 형식을 규정하셨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는 위로의 큰 열매를 얻는다. 그것은 우리가 거의 그분 자신의 말씀대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하거나 이상하거나 부적당한 어떤 것도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위로이다.⁷

아니면 약 1:5 의 문맥을 생각해 보라.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며 행동할 것인지 아는 지혜가 부족하면(1:2-4),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하며, 항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1:5)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한 약속은 다시 언급될 수 있고 기도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임하기를 구하면서 매우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공급, 우리 죄의 용서, 우리의 유혹자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께 들려질 것이라는 매우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레위인들과 그들의 성읍들조차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다.

ii. 레위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급 (The Provision They Need)

레위인들이 그들의 성읍들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필요한 공급만을 구하고 있었다. 확실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사역,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돌보고

⁷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3.20.34.

지키는 것과 같은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다(민 3-4 장).⁸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도 살 집들과 가축을 보존할 목초지들과 같은 매우 일상적인 필요들을 갖고 있었다.⁹

모든 삶에는 주어진 세속적인 것이 있다. 이것은 때때로 준 전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내가 알기에 그들의 사역에서 즐거움과 이익, 아니 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목회자들, 전도자들, 다양한 기독교인 사역자들이 있다. 그리고 분명코 돈에 의해 휘둘리지는 않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청지기들과 분별없는 소비자들인 사역자들도 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육신적 필요들을 이상하게 아니 편리하게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가 그들의 목회자에게 적은 생활비를 주고 그 목회자 역시 의료 보험, 퇴직 연금, (그의 자녀들이 금년에 새로운 테니스 신발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방안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 아니면 교회가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한 기독교 사역자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사역자와 그의 젊은 아내만 있다. 그리고 사람은 빵 만으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그로 성경을 먹고 살도록 하지만, 샌드위치나 스파게티를 먹고 살도록 하지 않으며 스테이크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한다.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선교사가 새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살 필요가 결코 없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 (당신은 교회의 선교 자금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여자 선교사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우리가 탈선하지 않게 한다. 여호수아 21 장에 암시되어 있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9 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iii. 레위인들이 삶을 통해 보여주는 비유 (The Parable They Live)

더 나아가, 레위인들은 그들이 사는 삶을 통해 보여주는 비유를 우리로 생각하게 해 준다. 레위인들은 기업으로 땅을 받지 않고 거주할 성읍들만 받기(13:14, 33; 14:3-4)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거류민과 같은 신분으로 사는 것 같았다.¹⁰ 정말로 신 18:6 은 이스라엘의 성읍들 중 어느 하나에 레위인이 거주하는 것을 묘사할 때 명사 [게르] (“거류민, sojourner”)와 어근이 같은 동사 [구르] (“거주하다, 체재하다, to sojourn”)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⁸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David A. Hubbard, ‘Priests and Levites’, *IDB*, 2:1266-73 을 참고하라.

⁹ 이 점은 Karl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3d ed. (Stuttgart: Calwer, 1965), 133 에 잘 다루어져 있다.

¹⁰ 거류민에 대하여 20:9 에서 내가 한 말을 보라.

어떤 의미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인들의 삶이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인의 삶에 대한 비유임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조차도 모든 사람의 삶처럼 어떤 의미에서 뿌리가 없음을 느꼈다. 예를 들면, 다윗은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당신님 앞에서 거류민[게림]과 임시 거주자[토사브]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대상 29:15).”라고 말했다. 시 39:12 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며 그 이유로 “저는 제 조상들처럼 당신님과 함께 하는 거류민[게르]이고 임시 거주자[토사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¹¹

그러므로 레위인은 우리가 보고 들을 비유로서 우리의 덧없고 임시적이고 뿌리없는 삶에 대한 일종의 시청각 보조 자료와 같다. 레위인은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약 4:15).”라고 말해야 함을 생각나게 하는 암시이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롬 8:23).”는 말씀을 환기시켜 주는 신호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러한 레위인적인 관점은 우리를 실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 준다. 그것은 우리로 겸손함을 갖게 하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계 1:17-18) 살아 계시는 분에 대한 소망을 두도록 이끈다.

¹¹ [역자 주] *ISBE* “Stranger And Sojourner (in the Old Testament)”

I. The Ger: This word with its kindred verb is applied with slightly varying meanings to anyone who resides in a country or a town of which he is not a full native land-owning citizen; e.g., the word is used of the patriarchs in Palestine, the Israelites in Egypt, the Levites dwelling among the Israelites (Deuteronomy 18:6; Judges 17:7, etc.), the Ephraimite in Gibeah (Judges 19:16). It is also particularly used of free aliens residing among the Israelites . . .

II. The Tshabh: Of the *tōshābh* we know very little. It is possible that the word is practically synonymous with *gēr*, but perhaps it is used of less permanent sojourning. Thus in Leviticus 22:10 it appears to cover anybody residing with a priest. A *tōshābh* could not eat the Passover or the “holy” things of a priest (Exodus 12:45; Leviticus 22:10). His children could be purchased as perpetual slaves, and the law of the Jubilee did not apply to them as to Israelites (Leviticus 25:45). He is expressly mentioned in the law of homicide (Numbers 35:15), but otherwise we have no information as to his legal position. Probably it was similar to that of the *gēr*.

iv. 레위인들이 갖는 소명 (The Calling They Have)

레위들과 그들의 성읍들에 대한 논의를 끝내기 전에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소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그들의 성읍에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이 단락은 그 대답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해 주었다.

레위인들은 모든 지역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임명받았다. 그들이 모든 지역에서 거류민처럼 산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로서 행하며 지역 주민들이 불경건에 빠지는 것을 막는 매우 근엄한 사역을 담당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각 지파로부터 얻은 성읍들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지역에서 경계하며 신성한 예식들의 순전함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게 하였다.¹²

칼빈의 견해는 날카로운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레위 지파는 제단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조력자들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다(신 33:10).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는 것을 본다(대하 17:7-9; 35:3; 느 8:7-9; 말 2:4-7).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분배하는 목적은 12 지파들 가운데 거주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특별한 언약적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레위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며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역의 기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다.¹³

신약 교회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의 동일한 긴급성을 알고 있었다(골 1:28).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고 지시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언약적 정신을 지키게 할 필요가 항상 있다. 이에 대한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가 복음의 초대는 설교하지만 복음의 깊은 진리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수를 세는 것은 사랑하지만 양을 먹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있다.

¹²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trans. Henry Beveridge, in vol. 4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81), 246.

¹³ G. P. Hugenberger, ‘Levitical Cities’, *ISBE*, rev. ed., 3:109.

얏딜, 에스드모아, 홀론과 같은 지명의 언급(21:14-15)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오늘의 기독교인은 없을지 모르지만 레위인들과 그들의 성읍들은 오늘의 기독교인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

III. 여호와와 신실하심 (21:43-45 Yahweh's Fidelity)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와 신실하심에 대한 위대한 증언을 보아야 한다. 수 21:43-45 은 여호수아서의 신학적 핵심이다. 이 단락은 1:1-9(특히 1:2-3, 5-6)의 관심사들을 의도적으로 반향하고 구조적으로 그 이전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선을 긋는다. 여기에 여호수아서의 경정맥(급소)이 있다. 그러나 최근 20 년 사이에 출판된 두 권의 중요한 주석들은 이 부분에 단지 9 줄과 5 줄을 할애했는데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실수이다.

칼 구트브로트는 (이스라엘이 사는 온 땅을 말하는) 21:43 은 13-21 장을 적절하게 요약하고, (이스라엘의 적들의 패배를 말하는) 21:44 은 1-12 장을 요약하고, 21:45 은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러티브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¹⁴ 저자는 깊이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바로 이 지점에 21:43-45 을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문제점들을 발견한다. 이 진술들은 매우 결정적이고 결론적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진술들 곧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13:1 과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적들이 있다는 16:10; 17:12-13 등의 진술과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저자(아니면, 어떤 이가 선호하는 대로, 최종 편집자)가 이 다른 요인들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만일 그것들이 21:43-45 과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임을 (아마도 그 문제를 직접 언급하였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분명 성경 저자는 여기서 어떤 참기 어려운 장애를 느끼지 않았다. (성경 비평주의의 너무 흔한 잘못된 성경 저자들이 적어도 우리와 같은 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틀림없이 상충하는 것들과 불일치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온 땅을 주셨다(43a)—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43b)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 그들에게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cf. 출 23:30)는 사실이 이것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13:1 에 대한 이전의 해설에서 지적한 대로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매우 실질적인 지배가 실제로 그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44a; 22:4). 이것은 그들의 승리들에 대한 기록에 의해 증명된다(44b;

¹⁴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137.

1-12 장). 싸울 전투와 시작할 공격이 더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그때까지 주셨던 안식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i.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 (Praise to Yahweh)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말씀의 어려운 문제들을 설명하는 편보다 그 말씀을 듣는 편이 훨씬 더 좋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듣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21:43-45 은 찬양 곧 그분의 약속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하고 지속적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으로 묘사될 수 있을 뿐이다. 21:43-45 이 지금까지의 여호수아 전체를 종합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이 점에 있어서 수 21:43-45 는 바울의 로마서 이전 장들과 관련하여 롬 11:33-36 이 담당하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크고 신비하고 집요하신 자비를 보며 바울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신지요!"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여호수아 저자는 21:43-45 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어찌 그리 견고하고 견고한지요!"라고 찬양하고 있다.

저자는 내가 해머 신학(sledgehammer theology)이라고 부르곤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요점을 주입시키고 있다. 강조적인 반복을 통해 그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우리 의식 속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다. "그분이 맹세하셨던 것"(43 절), "그가 맹세하셨던 대로"(44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약속"(45 절)에 대한 언급들에 주목하라. 모든 경우에 여호와는 그분이 맹세하신 것을 주셨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땅에 떨어져 버린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21:43-45 은 신학적 진술이지만 경배하게 하는 진술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진술이다. 신학은 송영을 포함할 때 항상 최고조에 달하고, 신학은 동시에 경배함이 없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을 찬양할 이유를 제공하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선행하는 구원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더 밝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예: 창 12:7; 13:14-17; 15:7)은 성취될 전망이 전혀 없는 것(이것이 창 12:6b 의 실제적인 요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얻은 유일한 땅이 있다면 그것은 사라의 묘지(창 23 장)였고 그것도 사야만 했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여호와의 땅에 대한 약속과 씨름을 해야 했다(창 15:8-16). 여호와는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사백 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창 15:13)."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은 "약속된 것"(히 11:39)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성취는 오랜 기간 동안 미루어졌었다. 시간의 흐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위축시킨다.

참으로 오래 오래 전에 주어진 한 약속의 기한이 다 되어 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종살이를 견디어야만 했다(출 1-15 장). 바로의 이 종들은 결코 여호와와 상속자들같이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그들은 가나안의 무화과를 먹으며 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다가 죽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들을 내리시며 바로가 손을 들게 만드셨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게 그의 백성을 그분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도록 하셨다. 그 때 시간의 흐름과 종살이의 압제도 충분하지 않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친 백성은 그분의 약속을 좌절시키려고 공모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민 13-14 장). 그래서 광야에서 배회하는 40 년의 세월이 소비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쳐부셔 버린 장벽들을 우리가 볼 때에만, 그분의 약속이 그 앞에 놓인 모든 명백한 장애들을 짓밟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만, 정말 그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다. 나의 사춘기 시절에 한 번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일이 있다. 아버지는 내가 우리 가족이 쓰는 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오후에 목회적인 일을 잠시 멈추고 집으로 황급히 오셨다는 것이다. 사실을 말하면,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통해 아버지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비록 가족이 쓰는 차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여호와와 신실하심에서 우리가 보는 멈추시게 할 수 없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ii. 우리를 위한 약속 (A Promise for Us)

이 단락은 찬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 외에 우리를 위한 약속도 포함하고 있다. 21:44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은 주로 그들의 적들에 대한 승리에 있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얻은 안식은 이스라엘의 적들의 패배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였다.”¹⁵ (출 23:22 을 보라.) 이것은 항상 그렇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적대가 제거되지 않으면 안식이나 평강은 없다. 이 패턴은 신약에서도 동일하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6-9 개역개정).

이 말씀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영구적인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적들이 결정적으로 패망하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감상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우리가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때, 분명코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만장일치의 유엔(국제연합) 결의의 결과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오히려, 시편 2 편을 보라). 그러한 안식과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그분과 우리의 모든 적들을 정복하실 때만 영구적으로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21 장의 약속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적들을 멸망시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것은 성경적 패턴이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다시 살후 1:7-10 을 보라)와 우리의 안식에 대한 예표 역할을 한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마귀와 그의 종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더 이상 밤에 공포도 없고 낮에 날으는 화살도 없을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자기 포도 나무나 무화과 나무 아래 아주 안전하게 앉을 것이다(미 4:4).

I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도피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가?
2. 당신은 도피성들이 도피처인 동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당신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오살자에 대한 속죄의 예표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복역의 충분한 기간에 대한 그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가?

¹⁵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315.

4. 하나님께서 도피성들에 대한 그분의 조건들 안에 거류민을 포함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5. 당신에 대한 여호와와 신실하심은 당신으로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는가 아니면 당신은 단지 그분의 신실하심만 기대하고 있는가?

제 4 부

땅의 보존 (Retaining the Land)

(수 22-24 장)

19 제단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수 22 장 What Can an Altar Alter?)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주요 부분에 들어서게 되었다. 여호수아서는 다음과 같이 4 부분으로 구분된다.

- 1 부: 땅의 입성, 1-4 장
- 2 부: 땅의 정복, 5-12 장
- 3 부: 땅의 분배, 13-21 장
- 4 부: 땅의 보유, 22-24 장

우리는 22 장 자체에만 집중하여 논의하기 전에 22-24 장의 역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마지막 세 개의 장들은 각각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혹은 그 일부분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시작한다(22:1; 23:2; 24:1).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모임으로 끝나고 있다. 이 모든 모임이 21:43-45 곧 그분의 약속에 대한 여호와와 신실하심을 매우 강조하는 묵중한 신학적 본문에 바로 뒤 이어 나오는 것을 기억하라. 22-24 장은 21:43-45 과 대조적으로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실함이란 주제로 가득차 있다(22:5, 16, 18, 19, 25, 29, 31; 23:6, 8, 11; 24:14-15, 16, 18, 21, 23, 24).¹ 그러므로 이 마지막 세 개의 장들은 저자의 주된 적용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확고한 신실하심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은 다만 그들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반응일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다룬 로마서 1-11 장에 이어서 나오는 12:1 의 “그러므로”의 논리이다. 원리적으로 그것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혼, 내 삶, 내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마지막 세 개의 장들은 이스라엘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자는 세 개의 장을 할애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바른 길을 그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반응은 너무 너무 중요할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땅을 보존하는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23:12-13, 15-16; 24:20). 저자 혹은 편집자는 나쁜 징조가 되는 조그만 구름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24:31).

¹ 그렇지만 이 장들 안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의 신실함은 일관되게 여호와와 선행하시는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다(예: 23:5, 9-10, 14; 24:2-13, 17-18).

여기서 여호수아서의 가능성 있는 삶의 정황 혹은 여호수아의 특별한 청중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다. 여호수아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² 대부분이 남아 있는 가나안인들을 몰아내는(삿 1:27-2:5; cf. 수 16:10; 17:12-18; 18:3) 일에 태만하므로 매우 예측 가능하게 일어날 배교 분위기를 조성했던(삿 2:11-3:6; cf. 수 23:6-7, 11-13)³ 사사기 세대에게 주는 설득력 있는 설교 자료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제안한다. 여호와와 그의 신실한 제자는 제 2 세대가 서서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잃고 배교를 향해 미끄러져가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삿 2:10) 일을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원래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자세히 말하고(1-12 장) 그 기록물을 권면과 권고로 감싸기조차 했다(14:6-15; 17:14-18; 18:3). 그런 뒤에 삼중의 적용을 통해 이스라엘이 항상 여호와와 그의 종이 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켰다(22-24 장). 여호수아서가 훨씬 더 늦은 세대들과 상황들에게 말해 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매우 적절한 청중을 찾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삼 사 십년을 더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⁴

² 나는 후대의 편집이란 개념을 싫어하지 않는다.

³ 많은 성경 비평가들은 삿 2:11-3:6 을 정확한 역사적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문시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거기서 후대 신명기 사가의 손에 의한 편집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삿 2-3 장에 대한 신명기 사가의 손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의 시볼레스(시험해 보는 말)이다. 본문의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증명된 신명기 사가의 영향이 거의 없음이 드러난다. 나는 나의 논문 'A Proposed Life-Setting for the Book of Judges' (University Microfilms, 1978), 137-42, 157-69 에서 이 문제를, 지루하고 따분할지 모르지만, 상세하게 설명했다.

⁴ 많은 성경 비평가들은 이런 순진한 제안을 비웃을 것이다.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이른 시기에 쓰여진 통일된 작품으로 보는 것은 신빙성은 말할 것도 없고 쉽사리 믿는 경향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들에게 이 가설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이른 시대설이다. 그러나 이른 저작 시대설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 666-73; Kenneth A. Kitchen, 'The Old Testament in Its Context: 3 from Joshua to Solomon', *TSF Bulletin* 61 (Autumn 1971): 6-7 (나의 삶의 정황에 대한 제안은 키친을 따르고 있다); and B. K. Waltke, 'Joshua, Book of', *ISBE*, rev. ed., 2:1134-38 등을 보라. 나의 책에서 단순성은 하나의 장점이다. 비평적 이론의 설명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것이 옳다는 주장의 개연성은 점점 더 줄어든다. 그 이유는 추가되는 요소마다 그 문제에 새로운(흔히 검토가 불가능한) 변수들이 생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한 이론에 변수들을 늘리는 것은 그들이 묘사하는 사태의 진전의 불확실성을 늘리는 것이다. 한 책이든 한 장이든, 통례적인 비평적 제안들은 순진한 제안보다 그것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린다. 22 장의 경우에 어떤 이는 우리가 길갈 전승과 실로 전승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이것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당연히, 한 신명기적 편집자가 그의 자료를 기고하고, 한 제사장적 편집자가 가필하고, 또 한 포로후기 편집자가 손을

이제 22 장을 다루며 처음부터 바른 해석학적 입장을 개진해 보자. 22 장의 기조는 널리 퍼져있는,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위한 열정이다(예: 5, 19, 29, 31 절).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이보다 적은 어떤 것 즉 소문의 위험, 오해의 비극, 문제를 합리적으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도덕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훌륭한 관심사일 수 있지만 22 장의 중심 요점은 아니다.

I. 정중한 칭찬 (22:1-8 A Gracious Commendation)

우리는 수 22:1-8 에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정중하게 칭찬하는 것을 본다. 여호수아의 칭찬은(22:1-4) 신실함에 대한 권면(22:5)과 관대한 행위에 대한 지시(22: 6, 7b-8)를 앞서고 있다.

이 단락은 중단되었던 1:12-18 의 대화를 다시 하고 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의 용사들을 가나안으로 보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그들의 형제들을 도우라고 명령했다(1:14-15). 그들은 순종했었고 이제 여기서 칭찬을 받고 있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21:2-3).”

그러한 순종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이란 실제로 살아있는 선택임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요일 2:1). 하나님의 성도들처럼 죄의 역셈을 아는 사람은 없다. 때때로 우리는 죄와 싸우며 지쳐서 우리가 그 싸움에 질 운명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은혜라는 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롬 6:14)”라는 바른 시각을 필요로 한다.

대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22 장에 대한 그레이와 소킨의 주석들을 참고하라). 어떤 이들은 다르게 추측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조 표준들이 없다. 그것은 완전히 어림짐작의 설이다. 더욱이 그것은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물음표를 단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냉혹한 추측의 진짜 문제는 그렇게 추측한 사람들이 추측하고 난 후에 이상하게도 그들이 기괴하게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하나님의 양떼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우리에게 애써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류의 대부분의 주석들의 문제점은 결단코 그것들이 교회를 양육하여 경건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언어학적, 고고학적인 도움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은 가슴을 파스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문학 작품에 불과하다. 그들은 교회가 그들의 (골치 아프고 전송 센터에 고정된) 활동이 거의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에 신경쓰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을 칭찬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중요한 어떤 것도 들어 있다. 진지하게 행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칭찬하는 일은 적극 권장할만한 것이다. 사실 그것은 아주 추천할만하다.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의와 능력에 의한 것이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형제들을 돕고 칼과 활을 형제들을 위해 사용한 그들에게 합당한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찬양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도구들이 전적으로 무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⁵

목회자들과 다른 기독교 사역자들은 이런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 흠담에 있는 대부분의 구멍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볼 수 있고, 가장 시끄러운 성도들이 누구인지 알고, 교회의 옷에 얼마나 많은 지우지 않은 점과 찢이지 않은 주름이 있는지 의식하며,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려깊게 청중을 예배로 인도하거나, 양떼의 복지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장로가 있다. 그녀의 동료와 학생들 사이에 한결같은 증언을 듣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다.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신자들을 심방하는 부부가 있다. 이러한 주님의 종들이 사랑으로 행한 그들의 수고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목회자나 친구로부터 격려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것을 보며 우리는 종종 놀라기도 한다.

여호수아의 말이 주는 부담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강조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라고 권면하는 5 절에 나온다.

“오직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⁶

여호수아가 명령하기 전에 먼저 칭찬한 것이 나오는 문맥은 교훈적이다. 그는 실리를 추구하거나 책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적 패턴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데 3 장을 할애한(살전 1-3 장) 후에 그들에게 명령과 교훈을 주는데 2 장을 할애했다(살전 4-5 장). 계시록 2-3 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내가 알고 있다 . . .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순서로) 꾸중을 하시기 전에 칭찬을 하셨다. 진리를 따라

⁵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102.

⁶ 히브리어 어근 [샤마르](“지키다, 보호하다, 주의깊게 행하다”)는 2-5 절에서 2 절에 한 번, 3 절에 두 번, 5 절에 두 번, 모두 합쳐서 5 번 나오지만, 영어의 어느 한 단어로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다.

행해지는 한 우리는 항상 성도들의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유도해야 하고, 성도들의 충성을 강요하기보다는 격려해야 한다.

II. 방심않는 신실함 (22:9-20 A Vigilant Fidelity)

둘째로, 우리는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보여주는 경계를 조금도 늦추지 않는 신실함을 본다(22:9-20). 동쪽 지파들이 실로를 떠나(9 절) 큰 제단을 쌓았다.⁷ 그 제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서쪽 지파들은 실로에 모였다(12 절). 동쪽 지파들과 실제로 싸우기 전에(12 절) 그들은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비느하스의 영도 아래 열 명의 지도자를 보냈다(13-15 절). 그 대표단은 동쪽 지파들에게 그들의 관심사(곧 경고)를 표명했다. 왜 제단을 쌓는 일로 야단법석을 떨었는가? 어떻게 여호와께 반역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제단이 바꿀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신명기 12 장을 보면 찾을 수 있다.⁸ 거기서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만(신 12:5, 13-14) 그들의 희생 제사들을 드리라고 명령받았다. 여기 묘사된 “그 곳”은 가나안들이 통례적으로 그들의 제사들을 드리던 “모든 곳들”에(신 12:2-3) 대립하는 것이다. 제사를 한 성소로 제한하는 것은 예배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의도를 갖는 예방적 신학이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그것은 한 제단, 한 신앙, 한 백성을 의도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곳마다 예배를 허용해 보라. 그러면 그것은 곧 가나안적 색채를 띠게 되고, 가나안 신앙에 젖어들고, 가나안의 관행들을 과시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게 될 것이었다. 요컨대, 그것은 일격에 여호와께 대한 충성과 이스라엘의 통일성을 파괴할 것이었다. 그래서 서쪽 지파들에게 또 하나의 제단의 소문은 인간이 택한 예배와 제사를 암시하고 배교로 나아가는 첫 단계의 기미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있는 이런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의 비극을 한탄하며 서쪽 지파들을 비난한다.

인간의 본성에는 추악한 것이 있다. 불화가 일어나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은 무력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즉시 싸워서 이겨

⁷ 나는 이 제단이 요단 서편에 쌓아졌다고 생각하지만 10-11 절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관심이 있다면 주석들을 참고하라.

⁸ 신명기 12 장이 참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다. 본문 자체의 논의를 위해 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6), 216-218 를 참고하라. 전반적인 비평적 논의에 대한 관점을 위해 Gordon J. Wenham, ‘Deuteronomy and the Central Sanctuary’, *Tyndale Bulletin* 22 (1971): 103-118 을 보라.

그들이 잘못 판단했었던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결정이 있었다. 진상을 파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은 서둘러 “전쟁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은 13-14 절과 일치하지 않는 말이다.] 이 세상에는 기분 좋게 사리에 맞는 것들이 많지 않다. 모든 때의 문제는 어떻게 칼의 조정 대신 전원 일치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느냐는 것이다.⁹

여기에 오해의 비극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오해가 아니라 강해자의 오해이다. 이스라엘이 외견상 불충해 보이는 것에 의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상태의 징조였다.

서쪽 지파들은 동쪽의 두 지파 반에 의한 어떤 불충성도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할 것임을 강조했다. 바알 브올의 사건(민 25 장)이 회중에 대한 여호와의 재앙을 가져왔었는데(22:17) 그들은 여전히 브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동쪽 지파들이 배역한다면 내일은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임할 것이다(22:18). 그들이 배역하면 그것은 “우리로 배역하게 할” 것이다(cf. RSV; 히브리어 동사의 모음을 고침: [역자주: 파알 어간 [팀로두]에서 히프일 어간 [탐리두]로 고친 것이지만 BDB/KB 에는 히프일 어간이 없음]). 아간을 기억하라(22:20; 7 장을 보라)! 그것은 단 한 사람의 행위이었으나 아간 혼자만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한 사람의 배신 행위는¹⁰ 온 회중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했다.

서쪽 지파들이 자극을 받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은 허용된 범위가 모두에게 심판을 가져오고 용인된 불충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⁹ Joseph R. Sizoo, ‘The Book of Joshua: Exposition’, *The Interpreter’s Bible*, 12 vols. (New York: Abingdon, 1953), 2:658. 조지 부시(George Bush, *Notes, Critical and Practical, on the Book of Joshua* [Chicago: Henry A. Sumner, 1881], 193-94)는 서쪽 지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다(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보인 거룩한 질투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제도들의 존중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인해 완화되었고 극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진상을 조사할 대표단을 보내서 의심했던 것들이 확인되면 그들의 악행을 버리도록 보다 온화한 방법들을 통해 그들이 설득될 수 있을지 보기로 결정했다. . . 그 사안이 너무 분명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거나 너무 커서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 분명코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 사건에 대해 추론하는 것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그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형제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그 형제들에게 가능하면 그들 자신을 정당화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한 것은 적절하였다.”

¹⁰ 어근 [마알](“배신, 배신하다”)과 동사 [마라드](“반역하다, 배역하다”)는 22:16-20 에 각각 4 번씩 나온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예배가 부패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힘이 닿는 한 그것을 옹호하는 일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경건에 대한 뛰어난 예시가 있다.¹¹

이러한 열정적인 경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예배에 대한 이러한 심취, 언약 백성이 그 길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이러한 염려를, 오늘의 교회가 회복할 필요가 얼마나 절실한가! 교회는 그 구성원들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규율 아래 두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지독한 규율이 아니다.) 우리 시대에서 문제의 일부는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데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교리들에서조차도) 복수성이 기대되고 허용되고 환영받고, 결국 우리가 누구관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규율 아래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왕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양떼의 보살핌을 장로들에게 맡기셨고, 장로들은 그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통제해야 한다(행 20:28; 벡전 5:1-4). 확실히 그리스도의 양떼의 작은 목자들은 신약의 규율들을 교회에 적용해야 하지만 여호수아 22 장에서 그들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III. 경건한 갈망 (22:21-29 A Godly Anxiety)

셋째로, 요단 동쪽 지파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예배에 대한 경건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22:21-29). 얼마나 다행스러운 아이러니인가! 서쪽 지파들은 제단이 불충성의 표현이라고 염려하였지만(22:13-20), 동쪽 지파들은 그것이 불충성을 방지하는 수단임을 주장하였다.

동쪽 지파들은 맹세코 그들이 제단을 만든 일에 불충성의 의도가 없었으며 만일 그럴 의도가 발견된다면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벌을 내려도 좋다고 말했다(22:21-23). 오히려 그들의 제단은 미래(히브리어 [마하르], 직역하면 "내일", 22: 24, 27, 28)에 대한 그들의 갈망의(히브리어 [드아가], 22:24) 산물이었다. 그들은 한 세대쯤 지나 서쪽 지파들의 후손들이 동쪽 지파들의 후손들을 멸시하며 요단강을 베를린 장벽처럼 여기고 동쪽 지파들을 여호와의 백성의 일원이 아니라고 간주해 버릴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결국, 서쪽 지파들이 동쪽 지파들은 진짜 약속의

¹¹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trans. Henry Beveridge, in vol. 4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81), 254.

땅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미쳤다.¹² 그들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와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얼마든지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들의 요지는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22:25).

이러한 염려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바르게 요단 강을 그러한 분리의 배후에 있는 잠재적인 지리적 장애물로 여겼다. 다리에 대해 익숙한 문화 가운데 사는 우리가 요단 계곡이 주는 의사 소통의 장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19 세기에 조지 아담 스미스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다른 행성의 표면에 요단 계곡과 맞먹을 것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 우리 지구상의 물에 의해 덮힌 어떤 다른 것도 해면하 300 피트까지 잠기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길이가 160 마일 이상이고 너비가 2 마일에서 15 마일인 단층이 있는데 사해에 이르면 해면에서 그 깊이가 1292 피트까지 떨어진다. 사해의 밑바닥은 1300 피트가 더 깊다. 이 깊은 도랑에 길이가 거의 100 마일이 되는 요단강이 있고, 길이가 각각 12 마일과 53 마일되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다.¹³

“이 거대한 도랑”은 요단 계곡에 대한 스미스의 용어이다.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 22 장에서보다 민수기 32 장에서 이런 장애를 고려하는 선견지명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기서 그들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실 방식으로, “내일을 염려하고 있다(cf. 마 6:34).”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마 6:9 에서처럼) “너희는 이렇게 염려하라!”고 가르치시었을 것이다. 그것은 여기에 합당한 염려와 적절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곧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충성할지를 염려하며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교훈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부지런하고 흥미롭고 꾸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과 함께

¹² 민수기 32 장과 Gordon J. Wenham, *Number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1), 212-213 을 보라.

¹³ George Adam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22d e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n.d.), 468-69. 그리고 D. Baly, *The Geography of the Bible*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7), 218 도 보라. 야빈-시스라 이야기(삿 5:15b-17a)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혹 요단강이 그 장벽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기도하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손주들과 증손주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조지 부시의 한탄에 이상할 것이 없다.

아아, 슬프도다. 수천의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은혜의 수단들을 그들의 후손 사이에 영존하게 하려는 대신 그들 후손의 보다 더 좋은 관심사들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충분한 세속적 유산을 물려주려고 얼마나 안달복달하는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 쓰여진 호화로운 맨션에서 살거나 축적된 부에 골몰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금하셨다.¹⁴

적어도 요단 동쪽 지파들은 미래의 한 함정에 대비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이 동쪽 지파들에게는 “여호와와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정복 직후에 만들었던 제단을 가리킬 수 있었을 것이다. 정말 이상한 제단이다! 그것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제단 곧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거주자들과 똑같이 길르앗의 거주자들에게도 속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를 위한 제단이다.

서쪽 지파들과 동쪽 지파들은 통채로 삼키면 우리에게 올바른 균형을 줄 패러독스를 남겨 주었다. 서쪽 지파들은 통일성이 배교와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동쪽 지파들은 충성이 통일성 없이 공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동쪽 지파들의 강조는 히 10:24-25의 배후가 되고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다가 자리를 뜬 베드로와 나머지 유대인들을 책망했던(갈 2:11-21) 이유의 일부이다.

IV. 만족스러운 해결 (22:30-34 A Satisfying Resolution)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가 만족스러운 해결을 보게 된다(22:30-34).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안심하게 되었다.

비느하스는 조사 위원회를 대표하여 동쪽 지파들에게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22:31).”고 말했다. 여호와의 임재의 징표는 그분의 백성이 범죄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분의 심판(“여호와의 손”)으로부터 보호받은 점이다. 비느하스는 동쪽 지파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본질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알게 된다고

¹⁴ Bush, *Joshuai*, 198.

말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속량의 교리 배후에 있는 것이다.¹⁵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호 아래 두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진노로부터 보호하시는 때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족했다. 명백히 그들의 공격과 섬멸을 위한 임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칭송하였다(22:33b).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의 백성들을 지배하도록 해 주심에 대하여(cf. 골 3:15) 하나님을 칭송하였던 것이다.

동쪽 지파들은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입니다.”라고 말하며(22:34b) 그들이 쌓은 제단의 배후에 있는 그들의 의도를 재천명하였다. 구약의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보다 더 결정적인 고백은 없다(신 4:32-40, 특히 35, 39 절 그리고 왕상 18:21, 24, 36, 37, 39). 이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고전 12:3)라는 고백이 신약의 신앙의 핵심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당신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백성입니다.”라는 의도로 그들이 말했다는 것이다. 여호수아 22 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통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그분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증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이 그분의 임재, 그분의 평강, 그분의 진리에 대한 매우 분명한 증거와 함께 종식되기를 바란다.

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당신은 오늘의 교회에서 서로 서로에 대하여 너그럽게 칭찬하는 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2. 오늘의 우리 교회들에서 신자들에 대한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가? 왜 그런가? 아니면 왜 그렇지 않은가?
3.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중요한가?
4. 당신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경건한 염려를 가져 본 적이 있는가?

¹⁵ 이것은 패커가 표현한 대로 “복음의 핵심”이다. J. I. Packer, *Knowing God*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3), 161-180 을 보라.

5. 그리스도의 몸에 통일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서로 서로의 "등을 두드리는" 정도의 반응만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통일성이 있을 때, 누가 영광을 받는가?

20. 불안한 장래 (수 23 장 Staying on Edge)

당신은 폭우나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 불안해하며 각별한 신경을 쓸 것이다. 당신의 눈은 가시 거리보다 15 피트는 더 멀리 보려고 하고, 당신의 몸은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대처하려고 긴장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매우 지치게 하므로 당신은 긴장을 풀 수 있는 보다 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매우 오랫동안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에서조차도 고속도로 운전과 시내 운전은 상당한 신경을 쓰도록 한다. 그것이 반드시 날카로운 신경을 쓰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계속 신경을 쓰게 만든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수 23 장에서 보인 관심사이다. 이스라엘이 불철주야 (아마도) 5 년의 정복 전쟁을 한 것과 그 정복을 완수하고 그 결과들을 보존하기 위해 오랫동안 열정과 비전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는 세 가지 모임들(수 22 장을 보라) 중의 두 번째 모임이 있다. 땅을 보존하기 위해(23:13, 15, 16) 여호와께 충성할 필요가 있음이(23:6, 8, 11) 계속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그의 마지막 뜻과 유언을 전하고 있다.

본문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 본문의 구조나 전개를 요약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종종 있다. 수 23 장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지속적인 충성을 하라는 권면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있다.

1-5절: 여호와와 도우심에 대한 기대

6-13절: 여호와와 도우심에 대한 조건

6-8절: 충성에 대한 첫 번째 권면

9-10절: 은혜 곧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서 오는 동기 부여

11절: 충성에 대한 두 번째 권면

12-13절: 두려움 곧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리실지도 모르는 재앙에서 오는 동기 부여

14-16절: 여호와와 도우심에 대한 대안들

(여호와와는 은혜에서만 아니라 심판에서도 신실하시다)

이 개요는 여호수아의 연설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논의의 배경을 이루고 있지만, 나는 그것과 다른 제목들을 사용하여 수 23 장의 가르침을 살필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 앞에 놓아 둔 강조점들을 살펴보자.

I. 여호와와 증인들의 특별한 책임 (23:1-3 The Peculiar Responsibility of Yahweh's Witnesses)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수아가 여호와와 증인들의 특별한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여호수아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보았다(2-3 절).”라고 말하며¹ 자기 자신을 계속 남게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다.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 내용은 6-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대한 충성의 선두에 서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엄숙한 시간이었다. 여호수아는 곧 죽을 것이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와께 대한 순수한 예배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² 마지막 기회를 사용하고 있었다. 정복의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았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할(24:31)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영적으로 충성하도록 붙들어 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격려할 특별한 책임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과 삶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할 어떤 종교적인 움직임도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만 했다(23:7).

이 지도자들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들에”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고(23: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다(삿 2:7).” 그러나 이 증인들도 여호수아처럼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죽을 때가 올 것이다(삿 2:10a). 다름 아닌 바로 이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삿 2:10)” 다른 세대에

¹ 여호수아서의 후반부가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한 설명으로(13:1) 시작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라. 여기 23:1-2 곧 여호수아서의 거의 끝 부분에도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²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trans. Henry Beveridge, in vol. 4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81), 263. 칼빈은 여호수아의 실행을 부모들과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추천하였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경건한 염려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한 가족의家長이 그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가 죽어서도 그들에게 유익을 줄만한 것을 연구하여 그의 배려가 오래 오래 남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의 장래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훌륭한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그들이 남기는 잘 정돈된 상황이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대하여 듣는다.³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셨던 전사이신 여호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게을렀던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모른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수 24:31 의 말씀은 그들이 전승에 있어서 게을렀다기 보다는 오히려 부지런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세대(23: 8b) 뒤에 믿음없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듣든, 안 듣든(겔 2-3 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두려운 심판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언을 전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불신앙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시편 78 편의 취지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시 78:2-8, 개역개정)⁴

여기에 언약 교육의 전반적인 철학이 있다. 그것은 특별히 교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잠언에서 보는 것처럼 믿는 부모들의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소망을 두는(시 78:7)” 일이 결정될 것이다.

³ 나는 삿 2:10의 “그들이 알지 못했다[로 야드우].”는 표현이 인식의 부재가 아니라 고백의 부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나는 그들이 여호와와 그분이 행하신 일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기 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생각한다.

⁴ 시 44:1-3 도 보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서 특별한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달리, 우리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일어났던 일을 보지 못했고, 우리는 여리고의 성벽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우리는 아이성의 잠복에 참여하지 않았고, 벰호른의 비탈 길에 큰 우박이 떨어질 때(수 10:11) 고향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이 기록의 어떤 것도 다음 세대가 하품만 할 만큼 지루하거나 장황하거나 따분하지 않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이 따분한가? 누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일을 하셨던가? 누가 내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셨는가? 누가 죽음을 짓밟으셨는가? 누가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가? 이 신앙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는 가나안에 풍요 의식과 성적 행위로 나아가도록 유인하는 온갖 종류의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II. 여호와와 도우심에 대한 대담한 확신 (23:3-5 The Confident Assurance of Yahweh's Help)

둘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져야만 하는 여호와와 도우심에 대한 대담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먼저 비교적 지금과 가까운 과거를 언급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⁵ 이시니라(23:3).”고 말하고 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며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23:4-5).”고 말하고 있다.

부수적으로 우리는 현존하는⁶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볼 수 있는 정복에 대한 동일하고 일관된 묘사를 여기서 만난다. 결정적인 정복(23:3)이 이루어졌지만 계속적인 점유(23:4-5)를 해

⁵ 마지막 동사 “싸우다”의 어형은 분사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영어 성경 중에는 NASB[“... for the LORD your God is He who **has been fighting** for you.”]와 TEV[“The Lord your God **has been fighting** for you.”]만 이ニュ앙스를 드러내고 있다.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334 을 보라.

⁶ “현존하는” 성경 기록이란 누군가 그것들을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전승들”로 잘라내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성경 기록을 의미한다.

나가야 하고,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지만(23:1)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다(23:4-5). 이 두 가지 강조점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다. 사실상, 처음부터 하나님은 정복에 점진적인 측면이 필연코 있을 것임을 알리셨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 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출 23:29-30).”⁷

여호수아의 목적은 정복의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남게 될 사람들이 여호와와 도우심을 확신하기를 원했다. 그는 여호와와의 최근의 행위(23:3)와 그분의 이전의 약속들(23:5;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는 출 23:29-30 과 같은 본문들을 가리킨다는 것에 유의하라.)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이 이러한 확신을 갖도록 가르쳤다.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아이, 벤 호른, 메롬, 사솔에서 싸우신 것을 보았던 사람은 누구나 남아 있는 과업에 대하여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때까지 사실임이 증명되었다면 분명코 그것은 앞에 놓여 있는 것에도 충분했다. 사실상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허세를 강조하지 않고 여호와와 권능을 찬양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해 싸워 오신 분이시다(23:3).”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는 그들을 쫓아내실 분이시다(23:5).”

물론, 믿음의 단순한 논리는 그러하다. 여기에 일관된 성경적 패턴이 있다. 이스라엘의 자신감과 확신은 과거에 여호와께서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으로부터 나온다(시편 105, 114, 135, 136 편 등을 보라).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분명코 다음에 오는 것에도 충분하시다. 이러한 “믿음에 기초한” 추론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서도 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천 명을 먹이셨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바다의 폭풍도 다루실 수 있다는 추론을 했어야 했다(막 6:51b-52 을 보라).

⁷ 신 7:22 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크레이기(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6], 182)는 “초기 정복은 기습적이지만 정착과 완전한 정복의 과정은 점진적일 것이고, 그 동안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충분히 불어나서 그 땅에 정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III. 여호와와 백성의 신중한 순종 (23:6-13 The Careful Obedience of Yahweh's People)

그러나 여호수아 23 장의 대부분은 여호와와 백성의 신중한 순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여호수아가 일차적으로 지도자들에게 말하였을지라도(23:2) 그는 백성의 대표자들인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었다.

i. 순종의 표준 (The Standard of Obedience)

순종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⁸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23:6).” 수 1:7-8 에서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 명령 아래 두고 있다. 하나님의 “풀-타임”(진저리나는 표현!) 종들이 아닌 사람들은 보다 낮은 수준에서 어물어물 지내도 되고 풀 타임 종들에게만 요구되는 보다 높은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은 주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

ii. 순종의 형식 (The Form of Obedience)

수 23:7-8 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순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23:6 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가 있다(23:7-8).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 장은 이 점을 강조한다. “선행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이어야 하고, 사람들이 성경의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서나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고안해 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성경적 순종은 요구적인 것이지만 또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열심있는 크리스찬 친구들이 당신에게 아침 일찍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지만(예: 시 119 편) 이것이 어떤 이들의 신진대사를 고려하지 않거나 다른 이들의 귀저기를 갈고 아침을 준비하는 일을 무시하고 아침에 일찍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당신의 열렬한 크리스찬 동료가 당신에게 기도할 때 한 번에 30 분을 보내는 일에 신실할 것을 촉구할지 모른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지만(마 6:5-8; 빌 4:6-7)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스톱워치를 들이대지 않는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전통 때문에 비난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순종의 특별한 형식이 있다. 이 순종은 분리의 형식을 띠고 있어야 한다. 가나안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섞이는 것은 풍요를 추구하는 신학이 이스라엘에게 더 쓸모있어 보이게 하고 가나안 신앙 체계를 수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 뿐이다.

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위한 순종의 형식으로 남아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일반적인 요구로 시작될 수 있지만(예: 너희 주변의 세상이 너희를 꺾어서 세상 자신의 모습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안으로부터 너희의 마음을 다시 주조하시게 하라[롬 12:2, *Phillips* 직역]), 결혼에 있어서 크리스찬 배우자만(고전 7:39) 구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들과 결정들을 포함한다. 크리스찬 배우자를 구하라는 명령을 짓밟아 버림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슬픔을 가지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크리스찬의 경험에서 순종적인 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흔히 어려운 일이고 때때로 괴로운 일이다. (이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종이나 형식주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움이나 긴장이 그 요구를 무효로 하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우리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져야 한다(요 17:15).

iii. 순종을 위한 동기들 (Motives for Obedience)

성경은 빈번하게 어떤 고려 사항들, 어떤 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로 순종하도록 감동시키고 순종할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고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네 가지 논거를 덧붙이셨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따르고 있는 패턴이다. 그는 순종의 표준과 형식뿐만 아니라 순종에 대한 동기들을 역설하고 있다. 수 23:9-10 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수 23:11-13 에서 그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호소하고 있다.

수 23:9-10 은 회고적이고 여호와께서 최근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것을 요약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반응은 여호와와의 최근의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한 순종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 23:11-13 은 미래적이고 위협적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고 이 남은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면,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정복을 완성할 수 없게 하실 것이다. 오히려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울무가 되며

뒹이 되며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23:13; 민 33:55).⁹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좋은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선하심에 대한 회고를 통해 주장한 것과 똑같이 여호와와 심판에 대한 위협에 호소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감동시켜야 한다. 우리에게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무엇이든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히브리서와 오후 한 나절만 씨름하면 그런 생각을 영구히 하지 않을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IV. 여호와와 심판의 절대적 확실성 (23:14-16 The Utter Certainty of Yahweh's Judgment)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위협과 두려움의 요소에 계속 머무를 것이다. 우리의 취향에 맞든 안 맞든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심판의 절대적 확실성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연설을 마감하고 있다.

수 23:14 에서 여호수아의 권면은 그 절정에 이른다. 여호수아는 자기 뒤에 생존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매우 잘 알고 있던 것 곧 여호와와 온전하신 신실하심을 상기시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23:14)." (21:43-45 에 대한 강해를 보라.) 여호와는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을 세부적으로 모두 이루셨다. 얼마나 탁월하신가! 이제 복을 선언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직 그의 요점을 다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23:15)."고 말하였다.¹⁰ 수 23:16 이 설명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함으로써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⁹ 울무와 뒹이 주는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인들과의 친교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매우 오랫동안 깨닫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죄의 속임수"(히 3:13)란 그런 것이다.

¹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추방당하거나 멸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암시라도 (바벨론) 유수를 전제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은 학자적 가정처럼 보인다. 그래서 소긴(J. Alberto Soggin, *Joshua: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218-219)은 수 23:13-16 이 사후 예언 곧 이 절들이 바벨론 유수가 일어난 후에 기록되었고 마치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인 것처럼 여호수아의 입으로

얼마나 충격적인가! 우리는 수 23:14 바로 이후에 일어서서 가장 헌신적인 기분으로 “당신님의 신실하심은 위대하십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전에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여호와와 신실하심은 두 개의 날이 있는 칼과 같아서 그분은 은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호와와 신실하심은 언약의 복에서만 뿐만 아니라 언약의 저주에서도 드러난다. 이를 통해 여호와는 자신이 그분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 중에도 끝까지 그들을 뒤쫓으시는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다.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잘 길들여진 안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뿐만 아니라 파멸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산타 클로스와 달리 여호와는 거룩하시며 그분의 위협은 공허한 빈 말이 결코 아니다.

여호수아는 설교학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이 점에 있어서 모세의 제자 훈련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거슬리는 음조로 그의 연설을 끝내지 않았을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가 긍정적인 음조를 지닌 23:14 로 끝마쳤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면, 여호수아 23 장은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1 절)으로 시작하여, 여호수아 덕분에 여호와와 진노(16 절)로 끝난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패턴을 본다. 우리는 시편 95 편의 저자가 1-5 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하는 것을 들으며 흥분한다. 우리는 그가 6-7c 에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따뜻함을 느낀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에 대한 경고를 가지시고 그 흐름을 끊으실 때 충격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암시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불신과 마음의 완고함을 일깨워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편도 망가뜨리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3 장이 여호수아의 부정주의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내가 5-6 학년이었을 때 우리 학교의 성적 체계는 A-B-C 로 표시하는 형식을 바꾸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만족스러움과 만족스럽지 못함을 나타내는 S 와 U 로 표시하는 형식을 따랐다. 나의 아버지는 이것에 대하여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고, 내 성적표에 서명하실

말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가정은 실제로 유수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유수의 위협을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부 플로리다 출신의 사람은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에 대하여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오류에 대한 명쾌한 비판을 위해 Kenneth A. Kitchen, ‘Ancient Orient, “Deuteronism,” and the Old Testament’, in *New Perspectives on the Old Testament*, ed. J. Baron Payne (Waco: Word, 1970), 5-7 을 보라.

때 한 번 새 성적 표시 체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시며 의견란에 “정확한 성적을 주는 것이 왜 죄인가?”라고 쓰셨다.

그것이 바로 여기의 요점이다. 부정적인 마감이 왜 죄인가? 그것이 이스라엘로 자신들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인가? 그것은 무슨 차이를 만드는가? 우리가 불행한 마감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불행한 마감에 잘못된 것은 없다. 성경은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롬 11:22)”을 견지하고 있다. 위험스럽게도 우리는 둘 중 어느 하나를 망각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시 물러서서 반추하며 우리 이방인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우리 영혼에 “그래 맞아.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야. 당신들은 거의 신실하지 않아서 항상 심판을 필요로 했어.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 . .”라고 속삭일지도 모른다. 잠깐! 성경적 믿음에서 이방인 자부심으로 선을 넘어가지 말라.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라. 곧 당신이 하나님의 원 감람나무(유대인)에 접붙여 있음을 기억하라. 혈통적 유대인들의 일부가 불신 때문에 잘려 있지만 “당신은 믿음에 의해서만 견고히 서 있다(롬 11:20).” 그러므로 뽐내는 웃음 대신 베풀고 재와 경외가 당신의 몫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당신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롬 11:21). 여호수아 23 장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연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의 행위들에 합당한 찬양”을 물려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2. 신자들이 여호와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을 현재에서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3. 성경이 매우 빈번하게 “기억하라”고 상기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4.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당신을 감동해 순종하도록 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하는가?
5.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찬양의 중간에 그러한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21. 아브라함의 장소에서의 언약 갱신 (수 24:1-28 Covenant Renewal at Abraham's Place)

여호수아 24 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재판장들, 관리들과 함께 어깨를 마주하고 세겜에 서서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세 번째 모임에 참여하며 엄숙함을 느끼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24:1) 서 있고 우리가 곧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려고(24: 2a) 하는 엄숙한 모임이기 때문이다.¹ 그것은 역사적이고 성스러운 순간이다. 차가움과 뜨거움을 동시에 느끼는 기분이 든다. 나에게 있어서 그 효과는 마치 내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해서 나의 역사적인 영웅들인 앤드류 보나르와 호라티우스 보나르, 라비 던컨, 로버트 머리 맥체인과 만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

본문의 신학적 증언을 들으려고 노력하며 나는 본문을 구조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특히 첫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피려고 한다.

I. 언약 역사의 회고 (24:2-13 The Review of Covenant History)

수 24:2-13 에서 여호수아는 언약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말한다. 그의 개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기의 순간들 곧 이스라엘의 복지를 위협하는 시기들에 집중되어 있고 그 위기의 순간들은 각각 여호와와 개입에 의해 해결된다. 여호와와 은혜와 능력만이 이스라엘이 지금

¹ 여호수아 24 장을 언약 갱신 의식으로 보는 것에 관하여 그리고 여호수아 24 장이 밝혀진 다양한 고대 근동의 조약문의 문학적 양식에 들어 맞는지 안 맞는지에 관하여 그리고 어느 정도나 들어 맞는지에 관하여 많은 글이 쓰여졌다. 주전 2 천년기 히타이트 조약의 통상적인 구조는 (1) 조약을 정하는 종주국 왕을 밝히는 전문, (2) 종주국 왕이 봉신국에 베풀었던 과거의 은택들을 회고하는 역사적 서문, (3) 종주국 왕이 그의 봉신(들)에게 부여하는 (기본적이고/이거나 자세한) 요구를 말하는 준수조항, (4), 조약의 문서를 보관하고 읽는 것과 관련된 조항, (5) 빈번하게 이방인 신들로 이루어진 증인들, (6) 조약에 불신실함 혹은 신실함에 따른 복과 저주를 포함하고 있다. 여호수아 24 장은 언약/조약의 정확한 본문이 아니라 언약 갱신의 보고이기 때문에 조약의 정확한 패턴을 발견하리라는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 24 장에서 조약의 요소들, 곧 (1) 전문(24: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 역사적 서문(24:2b-13), (3) 준수조항(24:14-15, 기본적인 준수조항), (4) 문서 조항(24:26), (5) 증인들(24:22, 26b-27), (6) 저주(cf. 24:19-20) 등을 볼 수 있다. 조약의 형식과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간결한 논평을 위해 Kenneth A. Kitchen, *The Bible in Its World: The Bible and Archaeology Today*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7), 79-85 쪽과 Kenneth A. Kitchen,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 (Chicago: Inter-Varsity, 1966), 90-102 쪽을 보라.

세겜에 서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²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대 조약들의 역사적 서문에 상응하는 것 곧 왕이신 여호와와 은혜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고 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정말 위대한 서문이 아닌가!

i.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The Surprising Grace of God)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곧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 . (24:2b-3a)”로 시작한다. 우리는 본문(“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표현)이 명백하게 암시하는 것 곧 아브라함이 나머지 조상들과 같이 이방신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영감받은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데라와 나홀처럼 아브라함도 통속적인 우상숭배의 죄책으로부터 면제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³

그러나 기독교인의 통상적인 생각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항상 굿런치씨(“좋은 공구 씨”) 곧 적은 지혜를 가진 신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착하고 건실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여기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어떤 유대인 지성인들도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희년서라는 가경은 아브람이 14 살 때 이방신 숭배의 잘못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버지와 분리하는 것으로 묘사한다(희년서 11:16).⁴ 사실,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에게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한다(희년서 12:1-8). 그러나 60 살이 되었을 때 아브람은 실제로 과감하게 우상들의 집을 불태워 버린다(12:12-14).

이 모든 것은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존 뉴튼의 말이 옳음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너무 놀라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과 같은 성경의 올 스타들을 이미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이미 진리의 길을 가고 그렇게 고상하게 시작된 개종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약간의 도우심만 필요한 것으로 묘사하며 그들에 대한 새긴 우상을 꾸며내고 있다.

² 칼 구트브로트(Karl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3d. ed. (Stuttgart: Calwer, 1965), 158)가 이스라엘을 “역사의 기적”으로 논평한 것을 참고하라.

³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trans. Henry Beveridge, in vol. 4 of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81), 272.

⁴ [역자 주] <http://www.pseudepigrapha.com/jubilees/11.htm> (*The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of the Old Testament* by R.H. Charles, Oxford: Clarendon Press, 1913)에는 11:16 이 아니라 11:15 에 이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그런 것은 모두 쓰레기 같은 것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었다.” 이것이 여호와와의 은혜이다. 그 모든 것은 거기 곧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은혜에서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이 이교 신앙이란 황량한 구덩이와 진창인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선행에 의해 심오한 무지와 오류의 구렁텅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나오게 되었다.”⁵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게 된 것은 아무런 명백한 이유가 없이 죄인인 조상 아브라함을 불드신 하나님의 전적인 기쁘신 뜻이라는 단 하나의 끈에 달려 있다.

ii. 하나님의 점진적인 행보 (The Gradual Pace of God)

언약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점진적인 행보를 다 경험할 수 없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며 “그리고 나는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했고 나는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24:3b).”라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이어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다—그분이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이 두 진술은 함께 놓으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일곱하기 일은 일이다. 창세기의 수학에 의하면 이삭을 얻는데만 25 년이 걸렸다(창 12:4; 16:3, 16; 17:1, 17; 21:5).

그러나 여호수아가 계속 여호와와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했고, 나는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나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24:3b-4a).” 상황이 훨씬 나아진 것은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손자를 주심으로써 그를 번성하게 하셨다! 성경의 수학에 의하면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였으나 자녀 없이 20 년을 보낸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창 25:19-26).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은 달력에 쫓기시지도 않으시고 시각에 위촉되시지도 않는다. 여호와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 일을 천천히 하셨다. 그분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지만 때때로 너무 천천히 하시므로 우리는 종종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한다. 작은 일에 신실하시며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정도나 속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사실 자체에 고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너무

⁵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273.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이루어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우리의 시야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것을 쉽게 놓쳐 버리는 실수를 저지른다.

나는 시내에 있는 인쇄소에 들어갈 때마다 주인이 계산대 뒤에 두드러지게 붙여 놓은 포스터를 본다. 거기에는 여러 위치에서 배를 움켜 쥐고 크게 웃는(포복 절도하는 듯한) 만화 캐릭터가 셋이 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언제죠?!”라는 글이 쓰여 있다. 그건 그들의 주문이 그들이 원하는 때보다 더 일찍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참을성 없는 고객들에게 미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행보에 안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포스터라기보다는 비유가 될 것이다.

iii.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방식들 (The Mystifying Ways of God)

한 어려운 문제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로 이어진다. 언약의 역사에서 조만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방식들을 만난다. “내가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24:4b).”⁶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언약의 계보가 아닌 에서와 그 자손은 그들의 기업을 받았지만 언약의 계보인 야곱과 그 자손은 그들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종살이를 하게 될(창 15:13-16)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민들은 고통을 겪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매우 빈번하게 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기다려야 하는 이 신비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⁷

믿음의 삶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절대적 솔직함은 매우 괄목할만한 것이다. 히 11:32-38 은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주시는 놀라운 은택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그분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⁶ 세일산은 전통적으로 아라바의 동쪽, 사해의 남/남동쪽에 있는 에돔(에서의 자손들)의 영토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용어는 아라바의 서쪽에 있는 영토도 포함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개관을 위해 John D. W. Watts, ‘Seir’, *Wycliffe Bible Encyclopedia*, 2 vols. (Chicago: Moody, 1975), 2:1545 와 Andrew Bowling, ‘Seir’, *ZPEB*, 5:329-330 등을 참고하라.

⁷ 우드스트라(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346)는 수 24:4 에 대하여 “이렇게 선택은 이 절의 초두에서 강조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자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의 과정 또한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애굽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의 왕들의 압제 아래서 잔인한 고통을 겪으며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입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다(히 11: 32-35a). 이것은 승리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이다. 그러나 저자는 세미콜론(쌍반점) 하나 없이 계속 이어간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 . .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 11:35b-38 개역개정).”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허락하신 이상한 시련들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이것 또한 “승리적인 기독교인의 삶”인가? 누가 알랴? 그러나 이것 또한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과 똑같은 기독교인의 삶이다.

나의 요점은 성경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얼버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 24:4 로 돌아가보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와 선하심에 관한 이 전반적인 개관에서조차도 이러한 신비가 발견된다. 에서는 그의 기업을 받았지만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신비는 이야기 전체에서도 그리고 이야기 전체에 비추어서도 분명하게 보인다. 밤새도록 울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cf. 시 30:4-5).

이 신비를 걷어차도 아무런 소용없으나 이 신비 자체가 우리를 인도해 우리의 하나님을 깊이 흠모하도록 해야 한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고달픈 지점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얼버무리지 않으시고 난관들을 생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결코 신비들이나 어두운 시절들을 그 기록으로부터 지우지 않으셨다. 나의 요점은 당신이 그와 같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솔직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약의 기록을 내가 믿는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마 28:17).”라는 세 단어가 마태복음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그들의 의심에 대하여 듣는 것이 당신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가?”라고 물을지 모른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나에게 저자가 숨기는 것이 없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만일 마태가 나로 하여금 신학적인 허튼 생각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의심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였을 것이다. 마태가 그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말했다는 사실은 나에게 마태(혹, 당신이 선호한다면,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숨긴 것이 없고 간직한 비밀들도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래서 나는 진리를 나에게 말해 주는데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어두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실 만큼 친절하시다. 우리가 어두움을 즐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 처하게 하실 때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하나님의 명백한 권능 (The Manifest Power of God)

기대되는 바대로 이 역사적 서문의 상당한 부분이 하나님의 명백한 권능을 이야기한다. 여호수아는 그 권능이 드러난 세 가지 주요 시기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24:5-7 출애굽

인간 매개자들(모세와 아론)을 파송하심(5a)

재앙들을 내리심(5b)

홍해에서 구원하심(6-7)

24:8 요단 동쪽의 정복(참고, 민 21:21-35)

24:11-12 요단 서쪽의 정복

여리고에서의 승리(11)

“두 아모리 왕들”에 대한 승리(12)⁸

이스라엘이 이 부분으로부터 받게 될 주요한 인상은 권능이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점이다. 여호수아는 24:12의 끝부분에서 능숙하게 그 요점을 지적하며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⁸ 나는 수 24:12의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남부 연합과 북부 연합의 주모자인 아도니베섹과 야빈(10:3, 5; 11:1-3)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며, 시온과 욕(24:8; 민 21 장)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잘못 놓여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Alan R. Millard, ‘Amorites’, *IBD*, 1:43-44 을 참고하라. 아무도 수 24:12(출 23:27-28; 신 7:20)의 “왕벌”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실제의 왕벌인지, 공포와 공황인지, 가나안에서의 애굽의 군사행동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참고, Woudstra, *Joshua*, 349). 그러나 칼빈(*Joshua*, 274)은 주요 관심사를 잘 파악하고 “그러나 어떤 일이 왕벌에 의해 일어날 때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옹호된다. 따라서 내려질 결론은 백성이 그 땅을 그들 자신의 칼이나 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참고, 시 44:3, 5-7) 요약한다.⁹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을 성취했다고 아예 상상조차 말라. 찬양은 여호와와 그분의 강한 팔에 속한 것이다.

“홍해에서 구원하심” 부분(24:6-7)도 비슷한 요점을 밝히고 있다.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다.¹⁰

이 진술은 출 14 장에 대한 집약이다. 출 14 장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인 것을 강조한다. 사실상, 출 14 장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그러한 속수무책의 상태에 처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 비하히롯, 므딕, 바알스본(출 14:2)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을지라도 출 14:1-4 의 전반적인 묘사는 우리로 그 상황을 잘 보도록 해 준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길을 가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로 “돌이켜서” “바다와 므딕 사이에” 장막을 치도록 하셨다(출 14:2). 그 때 바로는 이스라엘이 “정신없이 땅을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바로가 보기에 바다 곁에 앉아 있는 오리들로 만드신 것처럼 보인다.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면 그들은 갇혀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욥 2:9).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⁹ 조지 부시(George Bush, *Notes, Critical and Practical, on the Book of Joshua* [Chicago: Henry A. Sumner, 1881], 212)는 “이 도구들이 그들의 전쟁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하시거나 공개적인 심판을 통해 먼저 공격하시고 적의 능력을 마비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도구들을 사용한 것이 허사였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한다.

¹⁰ 수 24:6-7 에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계속 번갈아 나오는 것에 유의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너희가 바다에 이르렀다.” 조상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셨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을 “너희 눈이 보았다.” 어떤 의미에서 “너희가 바다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20 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중의 많은 사람이 세겔에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하는 “너희”는 또한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를 동시대화하는 것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후 세대인)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 하셨던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 5:2-3 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이고,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롭다.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고후 4:7).“ 그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고전 1:29).“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고 외치는 열간이로 만드시는데 있지 않고, 우리를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121:2).“라고 기꺼이 고백하는 겸손한 예배자로 만드시는데 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솜씨, 통찰, 책략, 염려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신(사 43:16)” 여호와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이시려고 종종 우리를 속수무책인 상태로 밀어 넣으신다.

v.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 (The Faithful Protection of God)

수 24:9-10 에서 여호수아는 발람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를 상기시킨다. 여호수아가 핵심만 전하고 있을지라도, 전체 이야기를 다시 보려면 민수기 22-24 장(추가하면 민 25 장 그리고 31:8, 14-16)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압 왕 발락은 매우 성공적인 술객 발람을 고용하여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다. 발락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발람은 감쪽같은 속임수를 이스라엘에게 베풀 예정이었다. 발람은 이익을 좇는 예언자이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가 발락에게 가도록 허락하셨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거나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민 22:20). 이것은 발람이 예언의 대가를 후하게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었다.

발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호와의 통제 아래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가 모압을 가는 도중에 별도의 가르침을 그에게 주셨다. 세 번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서 발람을 찌르려고 하였다. 매번 발람의 나귀는 그를 구해 주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벌을 받았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발로 들어섰고, 포도원 사이에 있는 담에 몸을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눌렀고(칼에 가슴이 찢리는 것보다 한쪽 발이 상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 마지막에는 발람 밑에 엎드렸다(민 22:22-27). 발람이 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릴 때, 나귀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라고 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 22:28 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나귀로 말을 하도록 하셔야만 했다면, 그는 꽤 아둔했음이 틀림없다.

여호와와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대꾸하게 하신 후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민 22:31). 그때에 비로소 발람은 자신이 죽음 직전에 처해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여기에 진짜 아이러니가

있다. 발람은 술객이요, 선견자요, 미리 아는 자이었다. 그러나 발람이 보지 못한 여호와와의 사자를 본 것은 나귀였다. 말 못하는 나귀가 발람보다 더 총명했다. 불쾌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진실을 말하면 이 내러티브의 요점은 발람이 실재의 나귀라고 할 수 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발람은 여호와와의 요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돈벌이에 치중하는 발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고삐에 묶여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힘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무시무시하고 난처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발람은 여호와와의 뜻만을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와의 뜻은 이스라엘을 위한 복이었다.

나머지는 과거지사이다(민 23-24 장을 보라). 발락은 왕복을 입고 위풍 당당하게 모든 금관악기(아마도 여러 고등학교 음악대)를 동원하여 발람을 환영하며 그의 마법적 저주를 들으려고 했다. 그러나 발락의 모든 시도는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축복으로 끝날 뿐이었다. (수 24 장으로 돌아오면) 여호수아의 요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가 오히려 너희를 계속 축복하였고,¹¹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24:10).” (민 22-24 장의 전체 이야기는 창 12:3a 곧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의 보호와 관련된 구절이며 이것이 우리의 민 22-24 장의 독서를 통제해야 한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여호와와의 뜻은 복이므로, 발람이든 발람이 아니든 그는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를 기억하라. 발람의 열정과 발락의 목적으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설교한다. 이와 동일한 호소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된다. 발람과 발락과 같은 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가장된 모습을 갖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없이 남아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말씀을 하셨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우리의 비극과 손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종종 의아해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나의 지식과 당신의 지식은 너무 단편적이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¹¹ 어근이 같은 정형 동사 + 부정사 자립형으로 되어 있는 [바여바레흐 바로흐]라는 히브리어 구문은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그가 너희를 계속 축복하였다.”라고 번역된다. J. Wash Watts, *A Survey of Syntax in the Hebrew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4), 92-93 을 참고하라.

무엇으로부터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당신으로부터 지키셨는가를 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고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vi. 하나님의 계속적인 공급 (The Continuous Provision of God)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공급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는 수 24:7 말씀에 암시되어 있다. 이 절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가! 출애굽기의 절반과 민수기 전부가 이 절 안에 압축되어 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생존한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기나긴 기적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와 풍성한 공급을 즐기고 있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24:13).” 여기에 풍성한 공급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내가 주었다!”) 자동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수 24 장 7 절과 13 절의 증언을 결합해 보라. 여기에 필요 절실한 공급과 풍성한 공급이 있다. 그러나 각기 하나님의 공급이고 모두 하나님의 부양이다. 여호와와 공급이 참으로 얼마나 현세적인지 주목하라. 광야의 만나이든 가나안의 포도원이든 그것은 언약 백성의 배를 채울 양식이다. 가나안은 거주할 땅이고 집을 가질 성읍이다. 안에서 살 성읍들과 양식이 될 소산물. 우리는 얼마나 조잡할 수 있고 얼마나 세속적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결코 초월하지 못한다. 빵, 콘 플레이크, 캐서롤 같은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마 6:11).

이것이 위대하신 왕이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인 언약의 역사에 대한 회고이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란 손목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부드러운 수갑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어떻게 내가 너를 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았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내가 너를 당황하게 했고 너의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너를 구원했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내가 바로 오늘 이 날까지 너를 빵과 고기로 보존했는지 기억하라.” “오, 날마다 나는 그분의 은혜에 얼마나 큰 빛을 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고백이 이 본문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당신의 감정에 역사하며 끄는 힘이라고 느끼는가?

말할 필요조차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택들을 소개하는 역사적 서문은 더 길어지고 더 놀라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왕이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에는 위대하신 왕 자신의 희생의 행위가 포함된다. 더 이상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값주고 산 바 되었기 때문이다(고전 6:19-20).” 당신은 “당신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 곧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벧전 1:14-19)”임을 알기 때문에, 혁신적인 거룩과 두려움을 갖는 경외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신약 본문들의 논리는 우리에게 은혜의 주장을 밀고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러한 주장과 요구와 논법은 매우 많은 것을 설명한다. 그것은 갈 2:20 이 매우 긴 절이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들로 끝내려 하지 않았고 끝낼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을 덧붙여야만 했다. 그것은 딤후 1:17 의 “죽지도 않으시고 보이시지도 않으시는”이라는 수식어가 송영을 채우는 어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죄인 중의 괴수로 남아 있을 흉악한 비방자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에 참으로 감격한 사람의 반응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족쇄가 달린 채로 오고 그분의 백성은 그것의 포로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¹²

II. 언약적 헌신에 대한 요구 (24:14-24 The Demand for Covenant Commitment)

본문의 두 번째 주요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적 헌신에 대한 요구를 내세운다(24:14-24).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의 네 번의 말과 이스라엘 백성의 네 번의 반응을 담고 있다.

- 여호수아 – 요구, 14-15
- 이스라엘 – 다짐, 16-18
- 여호수아 – 경고, 19-20
- 이스라엘 – 단언, 21
- 여호수아 – 문의, 22a
- 이스라엘 – 인정, 22b
- 여호수아 – 요구, 23
- 이스라엘 – 재다짐, 24

¹² 우리의 논의는 성경에 묘사된 여호와와 은혜의 행위들에 집중하였다. 그렇지만 신자 개개인마다 여러 해를 거쳐 그 자신의 삶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모으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i. 논리적인 헌신 (A Logical Commitment)

언약은 어떤 종류의 헌신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논리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24:14a).” “그러므로 이제는”이란 어구는 헌신이 24:2-13 에 제시된 은혜에 비추어 요구되는 반응임을 보여준다. 여호와께 대한 충성은 단지 그분이 역사적으로 풍성하게 베푸신 선한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재적 반응일 뿐이다.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는 강권함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넘치도록 풍성한 자비의 물결에 대한 유일하고 합리적인 반응일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에 단단히 붙잡혀 있고 순전한 논리에 의해 거의 충성을 강요당하고 있다. 의당 기대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로마서 1-11 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들에 비추어 롬 12:1-2 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보일 유일하고 합리적인 반응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모든 자비하심에 비추어, 내가 너희에게 이 권면을 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살아 있는, 죽지 않은 제물로 그분께 드리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고려할 때 그분을 섬기는데 너희 삶을 바치는 것은 너희가 해야 할 논리적인 예배 행위이기 때문이다.¹³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기독교인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비정하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비정하게 합리적일 수 없지 않은가? 적어도 기독교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합리적이지만 결코 비정하게 합리적이지는 않다.

ii. 배타적인 헌신 (An Exclusive Commitment)

그리고 여호수아는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했다(24:14b-15, 23).

14b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23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¹³ F. F. Bruce, *An Expanded Paraphrase of the Epistles of Paul* (Exeter: Paternoster, 1965), 223, 225.

여호수아가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섬기다”라는 뜻을 갖는 히브리어 어근 [아바드]는 24: 14b-15 에서 7 번 나온다. (이 어근은 수 24 장에서 발진성 질병(홍역)처럼 18 번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참고, 롬 6:17-18, 22).

여호수아가 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이 알아채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유명한 오늘-너희가-선택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로 두 부류의 이방신들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더 충분히 설명하면 이렇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로 “여호와를 섬기라(24:14).”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들은 적어도 어떤 신(들)을 선택해야 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벽까지 밀어부쳤다. 그들은 어느 곳이든 내려와야 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으신 여호와가 아니면, 그들은 그들 조상이 섬기던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나 그들 당대의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해야 했다. 전통을 좋아하고 시대의 테스트를 합격한 것을 좋아하고 “우리 조상의 신앙”을 열망하던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신들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관련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시대 조류에 발맞추기를 원하는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선한 의도의 행위로서) 현 사회 환경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였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한 말은 이렇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 여호와가 아니면, ‘이 쓰레기같은 신들(매튜 헨리)’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전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한 방식에 당혹스러워할지 모른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방신들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에 진지했는가? 어떻게 그것이 정말 선택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이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귀류법(歸謬法) 규칙이나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그 결과가 터무니없게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너희가 섬길 자로 어느 신 아닌 신들(nongods)을 선택하라.”고 말한다. 너희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습시다. 이방신들 가운데서 섬길 신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의 요점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거부하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남아 있는 유일한 선택들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대꾸한다. 이 접근법은 우리의 서구적인 평범한 마음을 당황하게 만든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몰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영원히 여호와의 종들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었다. 때때로 충격 요법이 예측가능한 설교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나와 내 집 곧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24:).”¹⁴ 인기 있는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무슨 선택이 일어나더라도 여호수아가 서 있는 입장은 그와 그의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 자신만의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헌신으로 밀어부쳤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려면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야”만 했다(24:23). 그것은 전부이든지 아니든지였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든지 아니면 전혀 헌신하지 않든지 해야 했다. 그것은 진부한 돼지와 암탉 이야기에 나오는 돼지의 딜레마다. 암탉과 돼지가 걸어서 교회를 지나가며 바깥에 있는 게시판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았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쓰여 있었다. 돼지들과 암탉들이 늘 하던 것처럼, 그것들은 길을 계속 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내 암탉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암탉이 말했다. “이제야 방법을 찾았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햄과 달걀로 이루어진 아침 식사를 준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यो.” 돼지는 재빨리 대답하며 “오, 그건 안 될 말ियो.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그 식사가 단지 기부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나에게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यो.”라고 말했다. 이 옛 돼지 말이 옳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요점이다. 빠져나갈 암탉의 길은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향해 (말하자면) 전적인 돼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양보는 결코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 고려해야 했다.

iii. 조심스러운 헌신 (A Cautious Commitment)

어느 누구도 24:16-18 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은 반응보다 더 만족스럽고 정통적인 것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¹⁴ 힐러스(Delbert R. Hillers, *Covenant: The History of a Biblical Idea* [Baltimore: Johns Hopkins, 1969], 63)는 여호수아의 결단이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여호와와 언약 관계에 들어선다는 것은 개별적인 가정이 각각 결정할 일이었다. ...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우두머리와 맺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전 지파를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이 거룩한 언약은 개별적인 가정들과 맺어지고, 각 가정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언약의 규정들을 알게 하는 책임이 있었다.” 기독교인 아버지들은 이것을 숙고해야 한다.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의 “나와 내 집”(24:15)에 그들은 그들의 “우리도 역시”를 덧붙였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단 촉구를 좋아하는 어떤 전도자도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도 역시”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그의 “너희는 할 수 없다.”로 응답했다(24:19).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여호와께 헌신한다면 그것은 조심스러운 헌신 안에 있어야 했다.

여호수아의 응답은 충격을 주는 거절이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24:19).”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그분이 너희를 멸하시리라(24:20).” 너희의 신앙 고백을 가볍게 말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었다. 혹시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은 아니냐? 그분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시는 것이 그분에 슬픔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항상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히 그분에게 너희가 나올 수 없다. 여호와는 초청의 찬송을 부르는 동안 내린 가벼운 결단을 기뻐하는, 부드럽고 정다운, 하늘의 산타와 같은 분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입을 다물고 그 대가를 헤아려보지 않고 감정적인 헌신을 하려는 백성들의 실없는 자기 확신을 억제하려고 애썼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나 이 말보다 더 유익한 말들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지”를 강조하셨던 것은(눅 14: 26, 27, 33)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큰 인기를 얻고 계실 때였다(눅 14:25).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기 전에 주의깊게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눅 14:28). 이것에 교회는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예수님이 아스피린보다 두 배 더 빨리 효과적인 다양한 종류의 미리 포장된 기쁨, 평강, 공급에 불과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분은 우리의 셀로판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팔아서 안 되고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제가 당신님을 위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요 13:37).”라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로 (그리고 우리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요 21:15-19) 그분의 질문 아래서 빈민하게 해야 한다. 우리들 중에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라고 혹은 “저의 예수님, 제가

당신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노래 부르며 거룩하신 심판주 앞에 위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떤 찬송가에는 내가 감히 부르지 못하는 가사들이 있다.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것들 중의 하나는 그의 쉬운 헌신의 표현들을 의심하고 문제 삼는 것이다. 나의 교단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임직을 위한 서약들 중의 하나는 이렇다.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개인적이든 관계적이든 사적이든 공적이든 당신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고 근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삶의 양식 가운데서 복음의 고백을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독자로 삼으신 양들 앞에서 모범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나는 소문난 10-피트 장대를 가지고도 이 서약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교만하고, 화 잘 내고, 탐욕스럽고, 욕심많은 사람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직 이 서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만 나는 그것을 시인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약속하기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므로 나는 부인했어야만 할 것이었다. 세례 서약, 회원 서약, 결혼 서약도 동일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역설을 유지해야 하고, 항상 그의 “여호와를 섬기겠다(24:14)”와 그의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24:19)” 사이에 서 있어야 한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다.¹⁵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쉽거나 가볍거나 경솔하거나 무심코 해서는 안 되고 조심스럽고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한다(24:21, 24).

¹⁵ 칼빈(*Joshua*, 276)은 19 절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잘 파악하였다.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더욱 더 불합리하다. 마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추켜서 그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려는 정해진 목적을 정말로 바라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을 불러 일으켜서 드러내게 하려 할 때 여호수아의 혀는 성령님의 영감 아래 인도받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의 권위 아래 두실 때 그들은 통상 기꺼이 경건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지만 곧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기초 없이 집을 짓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해야만 하는 대로 그들 자신의 약점을 불신하지도 않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즉흥적인 운동에 의해 하늘 높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맨 처음의 시도들마저도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지한 검토를 할 필요는 없다.”

III. 언약 종교의 불가사의 (24:25-28 The Wonder of Covenant Religion)

여호수아 24 장의 세 번째 부분(24:25-18)에서 우리는 언약 종교의 불가사의를 잘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불가사의가 전혀 없다. 이 구절들은 언약과 조약의 비준의 어떤 예측가능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24:25a의 용어에¹⁶ 암시되어 있듯이 분명히 통상적인 제사가 있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24: 26a).”라는 말씀대로 작성된 문서가 있었다.¹⁷ 그리고 그때 거기에 무언의 증인 곧 큰 돌이 있었다(24:26b-27)! 여호와께서 그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들었던 돌에 관하여 읽는 것은 도깨비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할지 모른다.¹⁸ (바위가 귀를 갖고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방인 조약들에서 여러 신들이 증인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이방 신들을 모두 “비신격화하므로” 이용 가능한 증인들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하늘, 땅, 산들—그리고 돌들—이 증인 역할을 해야 한다(참고, 사 1:2; 미 6:2).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던 중요한 장소 곧 세겜(24:25),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세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24:26)”에 주목할 때 우리는 그 불가사의에 마음이 끌린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창 12:6-7 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창 12:7).”라고¹⁹ 약속하셨던 것은 바로 여기

¹⁶ 영어 성경들은 대개 “언약을 맺다 to make a covenant”라고 밋밋하게 번역하므로 “(동물들)을 자르다, to cut”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카라트]에 암시된 동물 제사를 흐리게 한다. “언약을 자르다 to cut a covenan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배경에 대하여 *TDOT*, 2:262-64 (Weinfeld)와 *TWOT*, 1:457 와 *ISBE*, rev. ed., 1:790-91 (Thompson)을 보라. 이 표현의 성경신학적 의미를 위해 특별히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0), 7-15 을 보라.

¹⁷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Meredith G. Kline,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Eerdmans, 1963), 13-26 을 보라.

¹⁸ 우드스트라(Woudstra, *Joshua*, 358)가 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강조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있지 백성들이 한 말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여호와와 “은혜로우신” 행위들(24:2-13)은 고소하는 증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돌이 우리에게 대한 증인이 될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말은 “이 잔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듯이 원시 물할론의 부작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표시가 아니다.

¹⁹ “네 자손에게”를 문두에 오도록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 본문에 “네 자손에게”가 강조되고 있는 어순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어순은 그 당시에 아브람이 자손을 갖지 못했고 사실상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이상하다.

세겜에서였다. 이제 600 여 년이 지난 후에 여기 약속의 장소 곧 세겜에 그 땅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여호와와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김없이 이루어졌다.²⁰

그러나 언약 종교의 참된 불가사의는 언약이란 것이 있다는 사실에 있다. (분명히 여호수아 24 장에서처럼) 여호수아가 언약 갱신을 주도한 것은 갱신할 언약이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느 누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던가(참고, 출 34:10)?

신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는 개념들은 다른 종교들과 문화들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언약이란 개념은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믿는 자가 많은 신들과 다양한 관계들에 묶여 있던 다른 종교들에서 허락되었던 이중 혹은 다중 충성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유일한 개념이었다. 정치적인 조약들에서 한 왕에게만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준수조항은 단 하나의 배타적인 신에 대한 종교적 믿음과 놀랍게 일치한다.²¹

이러므로 고대 세계에 조약들과 언약들이 있었다. 왕들과 봉신들 사이의 언약들, 대등한 자들 사이의 언약들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언약의 하나님, 곧 알렉 모티어의 표현대로 “약속들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언약에 의하여 그분 자신을 백성과 묶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가? 그렇게 이상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오직 이스라엘 안에만 그러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당신은 무릎을 꿇고 예배를 시작하며 “당신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미 7:18)?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왕상 8:23).”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IV. 공부를 위한 질문들 (Study Questions)

1.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²⁰ 야곱이 그의 가족 식구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창 35:2)”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세겜에서였다. 그때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창 35:4).” 이제 수백년 후에 여호수아의 요구는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수 24:23). 야곱의 후손들은 그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겜은 여호와와 신실하심이 주는 위로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충성에 대한 요구를 공포하고 있다.

²¹ Moshe Weinfeld, ‘Berith’, *TDOT*, 2:278. 그리고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 4 n.2 도 보라.

2. 당신은 하나님의 신비들—당신이 때때로 견디어 내는 어두움—이 받아들이기에 힘든 것을 발견하는가?
 3. 쉬운 것들과 함께 어려운 것들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솔직하심이 당신에게 격려를 주는가?
 4.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그분의 능력을 계속 보이시는가? 이로 인해 당신은 그분을 더욱 더 의지하게 되는가?
 5.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보호하셨는가를 보기 위해 백미러를 통해 보듯이 과거를 뒤돌아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당신으로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가 아니면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묻게 하는가?
 6. 어떻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은 필요하고 풍부한가?
 7. 여호수아가 요구한 헌신은 크고 깊다.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는가?
- 당신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겸허하게 일어나 그분을 찬양하는가? (그래야만 한다!)